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博士學位論文

社會福祉 相談서비스가
女性老人虐待 에 미치는 影響 研究



漢城大學校 大學院

行政學科

行政學專攻

文正愛

博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黃 振 洙

社會福祉 相談서비스가
女性老人虐待 에 미치는 影響 研究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 for the counselling the Aged on the
Abuse of Old Females

2008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大學院

行政學科

行政學專攻

文 正 愛

博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黃 振 洙

社會福祉 相談서비스가
女性老人虐待 에 미치는 影響 研究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 for the counselling the Aged on the
Abuse of Old Females

위 論文을 行政學 博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8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大學院

行政學科

行政學專攻

文 正 愛

文正愛의 行政學 博士學位 論文을 認證함

2008년 月 日

審査委員長_____印

審査委員_____印

審査委員_____印

審査委員_____印

審査委員_____印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5
제 2 장 이론적 배경	8
제 1 절 여성노인학대 이론	8
1. 노인학대의 개념	8
2. 노인학대의 유형	10
3. 노인학대의 특성	14
4. 노인학대의 이론	18
5. 노인학대의 위험요인	26
제 2 절 사회복지 상담서비스의 이론적 고찰	37
1. 노인상담서비스의 개념 및 영역	37
2. 노인상담서비스의 기능 및 의의	39
3. 노인상담서비스와 사회적 지지	40
4. 노인상담서비스의 조절효과	43
제 3 절 선행연구	45
1. 노인학대	45
2. 노인상담서비스	49
3. 선행연구의 시사점	51

제 3 장 연구의 설계54

제 1 절 연구모형의 설계와 가설의 설정54

1. 연구모형의 설계54

2. 연구가설의 설정59

제 2 절 연구설계와 실증분석방법73

1. 연구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73

2. 자료수집방법87

3. 분석방법 및 절차88

제 4 장 실증분석결과 논의.....91

제 1 절 실증조사 자료의 분석91

1. 표본의 일반적 특성91

2. 여성노인학대 실태93

3. 표본과 관련된 체계변인 및 학대경험의 일반적 경향93

4. 연구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97

제 2 절 가설의 검증101

1. 가설1 검증101

2. 가설2 검증104

3. 가설3 검증107

4. 가설4 검증109

5. 가설5 검증111

6. 가설6 검증114

제 3 절 실증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117
1. 조사대상자 빈도분석의 주요특성	117
2. 연구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119
3. 여성노인의 개인적 요인과 학대경험과의 가설	120
4. 여성노인의 가족상황적 요인과 학대경험과의 가설	122
5. 여성노인의 사회문화적 요인과 학대경험과의 가설	125
6. 개인적 요인과 학대경험 간의 조절효과에 관한 가설.....	127
7. 가족상황적 요인과 학대경험 간의 조절효과에 관한 가설	128
8. 사회문화적 요인과 학대경험 간의 조절효과에 관한 가설	130

제 5 장 결 론	133
-----------------	-----

참고문헌	142
부 록	161
ABSTRACT	170

표 목 차

<표 2-1> 노인학대위험요인	35
<표 4-1>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92
<표 4-2> 표본의 학대경험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	93
<표 4-3> 조사대상자들과 관련된 체계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95
<표 4-4> 조사대상자들의 학대경험의 일반적 경향	96
<표 4-5> 의존도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결과	97
<표 4-6> 부양부담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결과	98
<표 4-7> 가족결속력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결과	98
<표 4-8> 사회적 고립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결과	99
<표 4-9> 사회적차별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결과	99
<표 4-10> 노인상담서비스 수준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결과	100
<표 4-11> 학대경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결과	101
<표 4-1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학대정도의 차이	103
<표 4-13> 의존성과 학대경험수준의 단순회귀분석 결과	104
<표 4-14> 부양부담과 학대경험수준의 단순회귀분석 결과	106
<표 4-15> 가족결속력과 학대경험수준의 단순회귀분석 결과.....	107
<표 4-16> 사회적고립과 학대경험수준의 단순회귀분석 결과.....	108
<표 4-17> 사회적 차별과 학대경험수준의 단순회귀분석 결과	109
<표 4-18> 의존성*상담서비스수준과 학대경험수준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111
<표 4-19> 부양부담*상담서비스수준과 학대경험수준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112
<표 4-20> 가족결속력*상담서비스수준과 학대경험수준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113
<표 4-21> 사회적 고립*상담서비스수준과 학대경험수준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114
<표 4-22> 노인차별*상담서비스수준과 학대경험수준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	116
<표 4-23> 연구가설의 검증결과 요약	117



그 립 목 차

<그림 2-1> 학대관련요인과 환경체계의 개념적 관계	25
<그림 2-2> 노인학대 관련요인과 여성노인학대의 관계모형	26
<그림 2-3> 노인학대의 위험요인	34
<그림 2-4> 노인상담서비스 기관	43
<그림 2-5> 독립변수, 종속변수, 조절변수	45
<그림 3-1> 연구의 모형	59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목적

통계청이 지난 2008년 10월 1일 발표한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지난 7월 현재 501만 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0.3%를 차지했다.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7%를 넘어 이미 ‘고령화 사회’로 들어섰고, 2018년에는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에 들어설 것으로 추산된다(국민일보, 2008. 10. 2).

이러한 고령화에 저출산으로 야기되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핵가족화와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노부모 부양의식의 약화,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가정의 부양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노화에 따른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문제 및 의존성 증가는 노인부양가족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양부담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초래하게 되며, 노인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증대시킨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우리나라 노인학대 실태를 살펴보면,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에서 전체노인의 37.8%가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99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조애저외, 1999)인 8.2%에 비해 4배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학대 가해자는 주로 부양을 맡고 있는 장남(42.9%)과 며느리(39.9%)순이었으며, 함께 살 경우는 신체적 학대가 49.1%로 가장 많았으며, 함께 살지 않을 경우는 경제적 학대와 방임이 높게 나타났다(국가인권위원회, 2002; 나용선, 2005:1에서 재구성). 게다가 최근 매스컴 보도에 따르면 부양자녀에 의한 노부모 유기·폭행·살인·방치 등의 노인학대 행위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노인학대의 문제는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하여 더 이상 국가 및 사회가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날로 증가하는 노인인구 중 여성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높아져서¹⁾ 오늘날 고령층 인구의 대부분이 여성이며 우리나라의 ‘노인문제는 곧 여성노인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단 인구학적인 측면에

서 뿐만 아니라 여성노인들은 남성에 비해 2배 이상의 낮은 유배자율과 사회구조적 요인에 따른 여성차별 등으로 경제적으로 빈곤하다. 또한 신체적으로는 남성노인들에 비해 자녀출산 및 육아, 가사노동 등으로 인해 만성적이고 퇴행적인 질환을 많이 갖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남편 사별 후 소외, 우울증세를 보이는 등 자녀들에게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학대에 더욱 노출될 수밖에 없다. 즉 여성노인들은 급속한 인구증가와 함께 성차별, 연령차별 등 이중차별을 겪고 있는 사회의 최 취약층 위치에 있어 여성노인 부양문제를 노인자녀와 가족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및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완화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최근 들어 그 어느 때 보다는 사회복지서비스 방안의 일환으로 ‘노인상담서비스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노인복지관련 정부 부처 및 학계나 전문가 사이에 크게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복지 노인상담서비스²⁾는 노인에게 상담제공은 물론이고, 상담과정을 통하여 파악된 노인의 욕구나 문제해결에 필요한 사회복지적 프로그램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아직은 미흡하지만 이전에 비해 노인상담서비스관련 예산의 큰 폭 증가와 함께 상담서비스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확대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여성노인학대의 위험요인(원인)을 둘러싼 환경변수로서 노인상담서비스를 새롭게 조명하고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참고로 보편적으로 학대연구에서 ‘원인’이라는 용어보다 ‘위험요인(Risk Factor)’이라는 용어가 선호되는데, 이는 위험요인은 서로 다른 시각의 다양한 방법론과 표집기술을 수용하기 때문이다(Schiamberg & Gans, 1999; 이연호, 2005: 38에서 재구성). 노인상담서비스와 관련하여, 특히 이연호(2004)는 노인학대의 개입과정에서 먼저,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정서적지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그리고 경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처치 및 법률상담서비스가 공급되며, 주간보호시설, 가정봉사원 또는

1) 여성노인이 2006년 현재 노인인구의 67.8%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06).

2)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 노인상담서비스를 약하여 사회복지 상담서비스나 노인상담서비스로 명명하여 사용한다.

자원봉사자 파견 등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점에서 상담을 통한 일반 여성노인의 문제해결을 위한 개입과정에서는 예방적, 실천적, 사회복지적 방안으로서, 학대피해노인의 문제해결을 위한 개입과정에서는 피해노인의 문제해결을 위한 임상적, 실천적, 사회복지적 방안으로서의 노인(학대)상담서비스의 역할과 기능은 중요하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노인학대 관련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대체로 노인학대의 위험요인은 개인적, 가족상황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유형은 경제적, 언어·심리적(정서적), 신체적, 방임 등의 학대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대다수의 기존연구에서 개인적 요인 중에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의존성, 가족상황적 요인 중 부양부담, 가족결속력, 사회문화적 요인 중 사회적 고립이나 사회적 (노인)차별 등의 위험요인들이 학대(경험)정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 관련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를 실증분석을 통하여 확인하고 특히 이들 사이에 상담서비스가 관여하여 그러한 영향력을 조절할 수 있는지 분석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동일한 수준의 학대위험요인이 존재하더라도 상담서비스의 수준에 따라 학대위험요인이 학대(경험)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어느 정도 약화 내지 강화할 수 있는지 연구과제로서 제기한다. 예를 들어 여성노인이 경제력 및 교육수준이나 사회성이 낮아 세대 간의 갈등과 고립을 갖기 쉬우므로 취업활동, 학습활동, 여가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등 노인상담프로그램을 통하여 자립심을 키워 의존성을 낮추고, 자녀들과의 의사소통도 원활해지며, 학대에 심하게 노출됐을 때 위기대응능력도 제고될 수 있다. 이렇게 여성노인을 지지할 수 있는 자원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노인상담서비스의 역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 여성노인 학대 특히 가장 빈도가 높은 언어·심리적(정서적)학대 및 방임 등을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노인학대에 관한 우리나라의 기존 연구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발전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 그 수도 적고 연구방법과 대상도 제한적이며, 특히 여성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질과 양면에서 매우 미흡하다. 즉, 얼마 안되는 여성노인학대에 관한 연구들도 주로 여성노인학대의 실태 및 특성

등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여성학적이고 성차별적인 접근, 기존의 연구경향과 이론의 소개와 소수의 여성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 제도와 정책적 측면에서의 접근 등에 치우친 나머지, 여성노인만을 대상으로 학대(경험)의 관련(영향)요인을 규명하고 그 영향을 논의하여 시사점을 찾는 실증적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여성노인만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의 위험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들 요인과 학대경험 간에 노인상담서비스에 의한 조절효과, 즉 학대약화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여 여성노인학대 경험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 관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한다.

최근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한 여성노인인구의 증가, 핵가족화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 경제난의 과중에 따른 부양부담의 증가, 세대간의 의사소통 부족 등 여성노인을 둘러싼 주변 상황의 급변에 발맞추어 여성노인학대의 증대에 따른 대안을 모색해야 할 현시점에서 기존의 개인이나 가정 차원, 그리고 사후적이고 치료적인 여성노인학대 관리의 패러다임 대신 국가나 사회 차원, 그리고 예방 및 완화 차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전술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적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성노인학대의 실태를 파악하고, 또 여성노인학대의 위험요인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규명하며, 이를 바탕으로 이들 요인과 학대경험 간에 노인상담서비스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 학대피해 여성노인에게서 나타나는 학대위험요인 및 학대경험의 정도는 어떠한가?

둘째, 노인학대의 위험요인이 여성노인학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노인상담서비스가 노인학대 위험요인에 따른 여성노인학대의 정도에 조절변수로서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가?

이와 관련,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첫째, 노인학대의 위험요인이 여성노인학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이들 간의 관련성에 대한 이론적인 타당성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통해서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여성노인학대

의 위험요인 중에서 학대경험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들을 규명함으로써 이들 요인에 초점을 맞춘 국가 및 지역사회의 노인상담(복지)서비스 정책의 입안과 실천이 기대된다.

셋째, 노인상담서비스의 조절효과가 규명됨으로써 상담서비스기획 및 제공시 실무적인 지침이 제시되고 여성노인학대 관련 기존연구 범위의 확대가 기대된다.

넷째, 여성노인학대 문제 해결의 실천적이고 효과적인 핵심전략으로서 노인상담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노인상담서비스에 대한 관계자들의 인식변화가 기대된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론적 고찰과 함께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적 고찰에서는 기존 문헌 등을 통하여 여성노인학대의 위험요인, 학대경험, 노인상담서비스 등의 연구 단위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이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연구단위 간의 관계를 체계화 및 모형화를 시도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구모형을 수립하며, 연구모형에 따라 관련 선행연구 및 이론적 관련성을 근거로 하여 연구변수간의 관련성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실증적 분석에서는 설정된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논의하고 시사점을 찾기 위하여 학대받은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SPSS WIN 14.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 이용한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타당성분석, t(F) 분석, ANOVA검증 및 단순·다중회귀분석 등을 이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이론적 접근과 관련하여, 가족내의 학대원인을 밝히는데 있어서 좀 더 통합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증가(Kemp, 1998)와 더불어 노인학대의 원인 역시 관련된 원인을 가능한 모두 포괄하면서, 동시에 실질적인 경험연구가 가능한 이론적 모델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긴다(한은주, 2006:43).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근간으로서 전체론적인 관점에서 인간행동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조명한 생태학적 이론으

로 접근하여 연구단위간의 관계를 체계화 및 모형화 시켰다. 여기서 노인은 본 연구의 특성상 여성노인의 경우로만 한정한다.

자료수집의 대상과 범위는 선행연구 등 이론적 배경하에 생태학이론을 근거로 도출된 연구단위간의 관계모형을 기반으로 연구모형 및 가설을 설정함에 따른 설문지를 작성하여 60세 이상 300명의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이들 중 학대경험이 있는 142명의 여성노인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지역은 서울시를 지역간의 편차를 고려하여 서부(은평구), 북부(노원구), 중앙(종로구), 남부(영등포구), 동부(중랑구) 등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이들 권역에 소재하는 노인(종합)복지기관 5개(200명)와 관내 경로당 5개(100명)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자는 조사 실시 전 3명의 아르바이트 학생들로 구성된 조사원들에게 조사내용 및 방법, 설문조사 시 유의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개별면담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의 범위는 크게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 장 서론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여성노인학대의 위험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거의 전무하고, 또한 노인상담서비스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노인상담서비스의 시각과 역할의 측면에서 여성노인 학대 문제에 접근하고, 이에 따른 진단 및 처방이 없었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학대위험요인과 학대경험 간의 관련성, 그리고 이들 관계에 노인상담서비스의 조절효과를 이용하여 사전적(임상적), 실천적, 사회복지적인 새로운 노인학대 관리(예방 및 완화)의 패러다임을 개발·정립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분명히 하였다. 이어서 연구의 방법과 범위에 대해서 서술했다.

제 2 장 노인학대의 이론적 배경에서는 문헌 등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노인학대의 개념, 유형, 특성에 대해 논하고, 노인 학대의 이론 및 위험요인을 파악하였다. 특히 연구관련 이론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근간으로서 여성노인학대 문제를 생태적 이론으로 접근, ‘노인학대 관련(영향)요인과 여성노인학대의 관계모형’을 도출하여 학대위험요인과 노인상담서비스, 즉 노인학대 관련(영향)요인과 학대경험 간의 관계를 체계화 및 모형화

시켰다. 그리고 노인상담서비스와 관련해서 노인상담서비스의 개념과 영역, 노인학대 경험을 예방하고 완충할 수 있는 실천적이고 효율적인 핵심 전략으로서 노인상담서비스의 기능 및 의의에 대해 설명하였다. 아울러 사회적 지지와 관련하여 노인상담서비스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부각시켰고, 노인상담서비스의 조절효과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 및 노인상담서비스에 관한 연구, 선행연구의 시사점에 대해 논하였다.

제 3 장 연구의 설계에서는 앞서 전장에서 도출된 ‘노인학대 관련(영향)요인과 여성노인학대의 관계모형’을 기반으로 독립변수로서 위험요인, 조절변수로서 노인상담서비스, 종속변수로서 여성노인학대 간의 상호작용 및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이러한 관계를 토대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제 4 장 실증분석결과 논의에서는 가설을 실증분석(검증)하였고, 실증분석한 결과에 대해 논의를 하고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제 5 장 결론에서는 연구결과의 의의 및 요약, 시사점과 제언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여성노인학대 이론

1. 노인학대의 개념

노인학대를 정의하는 기준은 국가나 민족, 사회나 문화, 연구자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개념 정의 하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를 기초로 국가별 정의를 살펴보면, 노인학대는 영국의 British Medical Journal에 ‘할머니 구타(granny battering)’라는 논문에서 처음 소개되면서(Bennett & kingston, 1993;나용선,2005:6에서 재인용) 대중적인 이슈가 되었다. 미국의 경우 1995년 The Action on Elder Abuse는 노인학대를 ‘모든 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인에게 해나 장해를 일으키는 단일한, 반복적인 행동 또는 적절한 행위의 부족’으로 정의 한다. 또한 가정노인학대의 개념을 방임을 포함하는 적극적 의미에서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기타 부양자나 친척에 의하여 행해지는 신체적, 정서적, 재정적 착취 및 방임과 노인자신에 의한 방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고령자 안전보호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보고서-고령자 학대실태에 관한 조사연구(1996년/평성 9년)는 학대를 타인에 의한 것으로 신체적 폭력에 의한 학대, 성학대, 심리적 장애를 유발하는 학대, 경제적 학대, 그리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간호 등을 방임, 거부, 태만 하는 유형으로 분류하였다(이연호, 2005:25-26). 캐나다의 경우 보건국(Health Canada)은 ‘노인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재정적 해를 가져오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연구자별로 살펴보면, Lynn McDonald(1996)는 노인학대를 의존하는 가족이나 전문 케어제공자들이 노인들에게 가하는 해로운 행동을 말한다. 이 해로운 행동은 노인들에게 불필요한 고통과 곤란을 야기하는 신체적, 심리적, 물질적인 손상을 주게 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O'Malley와 그의 동료들(1983)은 노인학대와 방임을 구분하였는데 노인학대는 심리적, 신체적 또는 재정적 상태에 부정적이거나 해로운 결과를 가져온 행동으로 정

의 내리고 방임은 노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정서적·신체적·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규정하고 학대의 개념을 명확하게 했다.

방임은 일반적으로 부양자가 노인의 욕구를 잘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것으로, 다시 적극적인 방임과 수동적인 방임으로 구분되는데, 적극적인 방임은 노인에게 대해 신체적이거나 정서적인 고통을 가하려는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시도로써 부양자가 노인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음식, 물, 은신처, 의복, 의료적·정서적 지원을 제공할 부양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수동적인 방임은 해를 입힐 의도 없이 부양자가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 욕구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부양자가 노인의 욕구를 충분히 알거나 깨닫지 못했을 경우, 또한 부양자의 시간, 재정, 기술, 에너지의 부족으로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전길양·송현애, 1997). 그러나 학대로 볼 것인가 방임으로 볼 것인가라는 선택의 애매모호함이 제기되고(Pagelow, 1984), 적극적인 경우와 소극적인 경우의 의도성 판단이 모호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 두 가지를 묶어서 함께 보는 연구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어떤 경우에는 ‘학대’나 ‘방임’이라는 용어보다는 고의로 한 행위나 모르고 행한 것이 모두 포함된 노인에게 대한 불충분한 부양(inadequate care of the elderly) 또는 학대와 방임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노인학대(mistreatment of the elderly)’란 용어가 더 선호되기도 하였다(Lachs & Pillemer, 1995; Rosenblatt, 1977; 전길양·송현애, 1997; 한은주, 2006:26에서 재인용). 그러나 최근의 연구는 학대와 방임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방임을 학대에 포함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동희(1996)는 노인학대를 “의존적인 노인에게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그리고 친척들 사이에서 자행되는 언어적, 신체적, 정서적 혹은 심리적 상해와 인격이 무시되는 행위를 말하며, 또한 자산에 대한 오용 등으로 노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전길양과 송현애(1997)는 노인학대와 방임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행동을 학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노인학대 용어를 개념화하였으며, 이연호(2002)는 노인학대의 개념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노인에게 해를 입히는 개념의 소극적 전제에서 벗어나 노인의 인권과 권리보장을 전제로 한 적

극적인 넓은 범주로 규정하고 있다(이은희, 2007:28).

2.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학대의 영역은 노인관련 연구자들의 각자의 연구목적과 취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합의해내기는 어렵다.

Hickey와 Douglass(1981)는 학대를 신체적 학대, 심리적 및 정서적 학대, 언어적 학대, 방임으로 분류하였으며, 그리고 Godkin, Wolf & Pillimer(1989), 그리고 Bouter외(1998)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재정적 학대, 방임 등으로 재정적 학대를 포함시켰으며(이은희, 2007:29), King(1986)은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하여, 노인학대를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 방임, 경제적 착취 등으로 분류하였다. 신체적 학대는 폭력이나 육체적 해를 가하는 행동이고, 심리적 학대는 정신적 고통, 공포, 혹은 불안을 야기하는 위협, 폭력, 모욕 등을 말하며, 방임은 노인에게 해를 가져오는 의무의 불이행, 무관심, 권리침해를 말하며, 경제적 착취는 노인의 재산이나 돈을 횡령하는 것으로 때로는 협박, 폭력, 거짓말을 동반한다(손에스더, 2001:8).

한은주(2000)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재정적 학대로 분류하였으며, 이연호(2002)는 구체적인 학대유형을 신체적, 심리적, 재정적 학대 및 방임으로 분류하였다(이은희, 2007:30).

이해영(1996)은 노인학대의 유형을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노인학대를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 방임(방치), 경제적 착취로 크게 분류해 볼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신체적 폭력이나 상해, 음식제공과 의료조치 등의 거부, 방치, 감금, 폭언, 모욕, 노인재산의 유용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서구와 달리 자식이 노인을 부양하는 것이 당연했던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양거부와 노인유기가 특히 우리사회의 노인학대의 유형으로 간주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서운(2000)은 노인학대의 유형으로 신체적 학대, 재정적 학대, 성적 학대, 소극적 방임과 적극적 방임(유기를 포함)을 포함한 방임 및 자기방임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손에스더, 2001:9).

노인학대는 광범위한 세 개의 범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는 가정의 노인학대(Domestic Elder Abuse)와 시설 노인학대(Institutional Elder

Abuse), 자기방임(학대)이다. 즉, 가정 노인학대는 피해노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성인자녀, 배우자, 친지, 친구 등의 보호제공자에 의한 학대이며, 시설학대는 노인에게 비용을 받고 보호를 제공하는 요양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노인의 신체적, 정서적 손상으로 인하여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자기방임이나 자기학대 등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한 보호가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여, 가정내에서 부양자(성인자녀, 배우자, 사위 등)에 의해 자행되는 가정 내 노인학대로 한정하였다. 또한 언어·심리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는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 양자를 동일한 유형으로 간주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여성노인학대의 개념을 ‘여성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부양자가 60세 이상³⁾의 여성노인에게 의도적·비의도적으로 신체적, 언어·심리(정서)적, 방임, 경제적 학대를 가해서 여성노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노인학대의 유형은 신체적, 언어·심리(정서)적, 방임 및 경제적 학대⁴⁾로 정의하였다. 이들 유형들에 대한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란 타인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신체적 손상 혹은 정신적 고통의 결과를 가져오는 폭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혹은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는 힘의 사용에 의한 학대를 말한다. 예를 들면 타박상에서부터 폭행, 타인의 권리에 대한 불법적인 부정, 성적 폭행, 행동의 자유에 대한 통제, 살인 등이 포함된다(Giordano & Giordano, 1984; Hwalek & Sengstock, 1986; Johnson, 1995; 손에스더, 2001:11에서 재인용). 권중돈(2002)은 신체적 학대란 때리기, 치기 밀기, 차기, 화상, 신

3) 우리나라의 경우 정년이 보통 55세에서 60세 사이이며, 회갑연령이나 발달단계 등을 근거로 하여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는 경우가 통념이라 할 수 있고(이영자, 1999), 국민연금수령자격도 60세 이상부터 부여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60세 이상의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4) 본 연구에서는 물질적 학대라는 관점에서 재무회계 개념을 연상시키는 ‘재정적’용어보다는 ‘경제적’ 용어를 사용하였다.

체의 구속, 상처나 멍, 타박상, 골절, 탈구 등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고보선(2005)은 신체적 학대 중 머리채를 잡거나 움켜잡아 뽑는 것 등을 언급하였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학대란 ‘신체의 구속, 치기 밀기, 때리기, 상처나 멍, 머리채 잡아 뽑기 등 노인에게 구타와 폭력 등에 의해 신체적 손상 또는 정신적 타격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2) 언어·심리적(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노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행동으로 언어적 학대 및 심리적 학대와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보통 심리적 고통 또는 상처를 유발시키는 의도 또는 행동으로 정의되고 있는 정서적 학대는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행동으로, 위협이나 모욕 등의 습관적인 언어적 공격, 노인에게 창피를 주는 것 등과 노인을 어린애처럼 취급하거나, 가족, 친구, 또는 행동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것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한은주, 2006:29). 손 에스더(2001)는 언어·심리적 학대란 모욕적인 언어, 언어적 폭행, 시설에 가두겠다는 위협 등과 같은 협박, 비인간화, 소외감에 의한 공포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노인에게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심리적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주장하였다. 권중돈(2002)은 정서적 학대란 모멸, 겁주기, 자존심에 상처 입히기, 위협, 협박, 굴욕, 어린이에 취급하기, 의도적인 무시, 멸시, 비웃기, 대답을 안 하기, 고립시키기, 짓궂게 굴기, 감정적으로 상처 입히기 등을 뜻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언어·심리(정서)적 학대⁵⁾란 ‘노인에게 자주 자존심에 상처 입히기, 모멸감이나 수치심 주기, 의도적인 무시 및 소외, 위협주기, 고립시키기, 어린이 취급하기, 굴욕이나 멸시주기, 협박하기, 비난하기, 방해·간섭하기 등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 노인에게 정신적 또는 정서적 고통을 주는 것’라고 정의하였다,

3) 방임

5) ‘언어적 학대’를 학대유형 중의 하나로 별도로 분류하고 있는 연구도 적지 않다.

방임은 노인의 의·식·주 문제해결 등과 같은 부양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비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것이며(이연호, 2005:29에서 재구성), 인간으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의료적 치료 및 처치 중지, 기타 필요한 재활의 기회를 의도적으로 박탈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방임은 학자에 따라서 적극적 방임, 소극적 방임, 자기방임으로 분류하고 있다. 적극적 방임은 부양자가 서비스나 간호를 의도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소극적방임은 부양자가 서비스나 간호를 비의도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방임 중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보지 못하거나 않는 자기방임을 본 연구의 취지에 적합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권중돈(2002)은 적극적 방임이란 생활자원을 주지 않기, 신체적인 수발이 필요한 사람을 수발 안하기,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 안하기, 의도적으로 필요한 보건·복지·의료서비스의 이용을 거부 등, 소극적 방임이란 고립시키기, 존재조차 잊어버리기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방임이란 ‘의도적으로 보건·복지·의료서비스의 이용을 거부,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 안하기, 생활자원을 주지 않기, 존재조차 잊어버리기 등 부양자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노인들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나 수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4) 경제적 학대

친척 혹은 부양자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노인이 소유하고 있는 가치있는 물건, 재산, 돈 등을 강압적으로 혹은 노인의 뜻과 관계없이 훔치거나 처분하는 불법적 행동을 하거나(Quinn & Tomita, 1997; Giordano & Giordano, 1984; Hwalek & Sengstock, 1986) 어떤 경우에는 부양자가 노인의 재산을 양도하도록 노인을 설득하는 행위이다. 노인의 금전 혹은 재산 등을 친척 또는 부양을 제공하는 자 등이 고령자의 뜻에 관계없이 이전을 하거나 또는 훔치는 것 등을 포함한다. 이따금 폭력, 사기행위, 허위의 대행권 행사 등이 그 수단으로 사용된다. 또한 노인의 뜻과 관계없이 주거가 옮겨지거나 적절한 생활환경을 박탈당하는 것과 생활을 유지하

도록 용돈이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 등이 포함된다(황길현, 2003:11). 권중돈(2002)은 물질적 학대란 재산이나 돈의 악용, 훔치기, 경제적으로 의존하기, 함부로 사용, 무단으로 사용, 허가 없이 또는 속이고 자기 명의 변경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학대란 ‘부양자가 노인들의 재산 혹은 금전을 본인의 뜻에 관계없이 불법으로 악용 및 도용하거나 가로채거나 훔치는 것, 또는 용돈이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으로 정의 하였다.

3. 노인학대의 특성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급속한 도래와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 및 사회가 치관의 변화로 노인 개인적으로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역할 상실 및 경제능력 상실, 소외감과 고독감에 빠지게 되었고 가정에서나 사회적으로는 노인부양부담이 증가일로에 있어 노인학대의 증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취약한 여성노인들은 남성 노인들에 비해 더욱 학대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인 가족윤리와 체면의식 등의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노인학대 문제는 은폐시 되고 있고 여전히 학대 피해자나 학대 가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학대유형, 학대위험요인 그리고 노인학대의 경험비율 및 빈도 등에 관해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이들을 보다 정확히 규명할 수 있는 많은 실증적인 후속연구들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

특히 그 실상에 비해 사회의 인지가 아직 부족하고, 사회적인 대책도 미흡하여 사회복지적인 개입, 즉 노인상담서비스(프로그램)의 정책적 강화 및 실천이 요구된다.

선행연구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학대를 당한 노인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으며, 피해자 가해자와의 관계는 직계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난하게 혼자 살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고령여성들이 노인학대의 주된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선화(1998)의 ‘학대받는 여성노인의 상황에 관한 연구’에서 학대 피해 여성노인의 연령은 75~79세의 여성노인이 32%로 가장 높았고, 동거

형태는 혼자살고 있는 경우가 32%로 가장 높았다. 건강상태는 건강하지 못한 노인이 60%로 높게 나타났고 생활수준도 양호하지 못한 경우가 80%로 나타났다. 학대자는 아들, 며느리 순이었고, 학대유형은 방임이 53.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정신적 학대와 언어적 학대가 높게 나타났다. 여성노인의 학대요인으로는 가족관계의 불화, 무능력한 아들, 며느리와의 갈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연호(2005)의 연구에서는 성별분포는 여성노인이 79.4%, 남성노인이 20.6%로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는 70-79세 43.1%, 80세 이상 37.3%, 60-69세 19.6%순으로 70세 이상 중, 고령기 이상의 노인이 학대의 대상임을 알 수 있다. 교육정도는 무학 39.2%, 국졸 36.3%로 국졸이하의 학력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 상태의존도를 보면, 자녀에게 전혀 의존하지 않음 68.6%, 별로 의존하지 않음 2.0%, 자녀에게 부분적으로 의존 10.8%, 자녀에게 전적으로 의존 18.6%로 학대피해 노인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는 낮게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외(2007)의 '전국 노인학대상담 사업 현황보고서'에서 성별로는 여성노인이 68.1%를 차지하고, 남성노인이 31.8%를 차지하여, 우리나라 학대피해노인 중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의 두 배 이상으로 타났다. 연령별로는 남성노인은 70~74세가 24.2%, 75~79세 21.0%, 60~69세 18.6%의 순이고, 여성노인은 70~74세 23.4%, 80~84세 21.5%, 75~79세 20.8%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통해 노인학대의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서구의 연구에서는 다른 유형의 학대에 비해 신체적 학대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O'Malley와 동료들(1979)의 연구에서 학대 사례 중 41%이상이 신체적 외상으로 판명되었고, Pillemer & Finkelhor(1988)가 보스턴에서 시설에 수용되지 않는 노인 2,000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신체적 학대가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학대이며, 만성적 언어 공격, 방임의 순으로 나타났다(손 에스더, 2001:13).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언어·심리적(정서적) 학대의 경우가 전체노인의 7.7%가 경험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방임 2.5%, 경제적 착취 2.1%, 가타 학대 경험은 1.0%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학대·폭력⑥의 경우는 전체노

인의 0.3%만이 경험하여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고보선(2005)의 연구에서도 노인이 가장 많이 경험한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이며, 그 다음으로 학대 경험이 많은 유형은 언어적 학대, 방임, 신체적 학대, 그리고 경제적 학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자녀와 함께 살 때 더 많이 발생하며, 재정적 학대는 노부모 또는 혼자 살 때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경, 1998, 한은주, 2006:32). 또한 손 에스더(2001)의 연구에서는 여성노인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학대의 유형을 방임, 언어·심리적 학대, 경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외(2007)의 조사결과에서도 정서적학대(46.7%), 방임(37.7%), 경제적학대(7.4%), 신체적학대(4.7%)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의 원인에 대하여 김태현 외(1997)는 노인학대를 유발시키는 요소로 ①수명의 연장으로 육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손상된 노인이 증가하여 가족으로부터 원조를 받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고, ②노령과 만성적 질병 등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의존성은 학대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으며, ③스트레스 ④어릴 때의 학대경험이 노인학대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도 있으며 학대자의 개인적 문제, 알코올이나 정신병, 관계의 부적응 등을 요인으로 들고 있다(King, 1986; 이해영, 1996; 장은실, 2005:26에서 재인용). 고보선(2005)은 노인학대의 관련요인이 피해노인의 의존도 및 가해자의 의존도, 가족결속력, 사회적 차별 등의 요인임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바 있다. 한은주(2006)의 연구에서는 노인학대의 위험요인으로서 여성노인의 의존성, 자녀와의 관계만족도, 친척·이웃·친구로부터의 정서적 지원 및 도구적 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장은실(2005)은 노부모학대의 관련요인으로 부양부담, 부모의 의존성, 부모와의 결속력 등을 요인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노인학대의 경험 비율에 대해서는 1999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부모 학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노인의 8.2%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부양자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그 후 국

6) 우리나라의 경우 신체적학대가 매우 낮은 경험률을 보이고 있으나 노인들이 수치심과 자존심으로 인해 노출을 꺼리고 있고, 또한 반복적인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이 결국 신체적 학대로 연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 보다 상당히 높은 경험률을 보일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가인권위원회의 지역사회 노인학대 실태조사(2002)에서 전국지역노인 1,349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하였는데, 전체노인의 37.8%가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보건사회연구원의 1999년 조사결과 의 8.2%에 비해 4배가량 증가하였다. 손에스더(2001)의 연구에 의하면 전체 응답노인의 64%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학대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외(2007)의 조사결과에서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 접수된 총 건수 중 학대사례가 전체의 49.8%를 차지하였고, 일반사례는 전체의 51.2%를 차지하였다.

또한 노인학대의 가해자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노인학대 실태조사(2002)에서 학대가해자는 주로 부양을 맡고 있는 장남(42.9%)과 며느리(39.9%) 등의 순이었다. 보건사회연구원(1999)의 조사에 따르면 아들 42.6%, 며느리 44.7%, 딸·사위 12.8%로서 노인의 자녀가 51.1%였고, 자녀의 배우자 및 기타는 48.9%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외(2007)의 조사결과에서도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부양을 맡고 있는 아들 53.3%, 며느리 12.4%, 딸 1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Steinmetz(1990)는 가해자의 50%가 성인자녀이고, 특히 아들은 신체적 폭행을, 딸은 방임을 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테이(Sodei, 1999)의 연구에 의하면, 남자노인의 부양자는 아내(54%), 며느리(18.4%), 딸(11.7%)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거동이 불편한 여자노인의 부양자는 며느리(46.0%), 딸(30.8%), 남편(10.1%)의 순서로 나타났다. 특히 부양의 책임은 대부분의 가정 내에서 한사람만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부양부담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주부양자인 여성들이 가해자가 된다.

연구자별로는, 한동희(1996)는 학대받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연구의 결과의 의해 부양자의 무능력, 부양자의 스트레스, 힘의 견제, 재산문제, 상호관계의 심리적 문제 등을 학대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남자노인보다 여자노인이 학대를 더 많이 받았으며, 후기 고령자일수록 학대를 받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대받은 노인은 생활수준이 낮고, 자녀와의 관계의 질이 좋지 못하고 건강상태가 나쁜 노인의 경우가 많았다(황길현, 2003:25-26). 김한곤(1998)의 연구에서는 조사결과 응답자들 중 노인학대를 직접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30.4%이었으며,

노인학대 유형으로는 언어적 학대가 50.0%, 방치 29.8%, 경제적 착취 16.3%의 순이었으며, 육체적 학대는 3.9%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노인 학대의 피해대상자는 여성(57.3%)이 남성(42.7%)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가해자는 직계가족이 48.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상반되는 결과들도 있지만, 노인학대에 대한 공통적인 주요 특성으로는 노인학대를 받는 사람은 우선 대부분이 고령의 여성노인인 경우가 많다. 특히 이들 여성노인은 남편과 사별 후 홀로 노년기를 맞는 경우가 많으며, 그러한 과정에 신체적으로나 경제·사회적으로 자립이 어려워 신체적·경제적으로 자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노인학대 가해자로 주로 부양을 맡고 있는 아들, 며느리, 딸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금의 여성노인은 교육수준이나 사회화의 경험이 더욱 낮아 세대간의 갈등이나 고립을 갖기 쉽고, 성과 연령에 의해 이중차별을 받고 있는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소외당하고 있다. 여성노인이 학대의 훨씬 더 노출되었기 때문에 노인의 학대는 곧 여성노인의 학대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노인이 받는 학대별 유형은 언어심리적 학대와 방임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4. 노인학대의 이론

1) 노인학대에 관한 제이론

다른 학대영역에 비해 그 숫자가 많지 않지만 노인학대의 원인 또는 위험요인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모델)이 존재하나, 본 연구에서는 노인학대 관련 이론으로 사회학습이론, 교환이론, 스트레스 이론, 상징적 상호작용이론, 그리고 본 연구의 이론적 근간이 되는 생태학적 이론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⁷⁾

7) 이하는 황길현(2003)을 재구성함.

대다수의 사회과학자들은 폭력과 공격성이 본능이라기보다는 학습되어진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 Bandura의 이론은 개인의 학습바탕을 원래 백지상태로 가정하고 폭력행위를 하나의 학습된 현상으로 설명하는데 개인은 다른 사람의 폭력행위를 관찰·모방함으로써 새로운 공격행동의 기술을 습득하고 공격행위에 대한 금지해제를 일으켜 양심의 가책이나 죄의식 없이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정옥, 1987:23).

노인을 학대하는 자녀와 배우자의 학대행위는 문화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방위가족에게서도 학습된다. 즉, 어린시절의 학대경험 혹은 그들의 부모가 학대하는 광경을 본 자녀는 부모가 연로하게 되었을 때 노부모를 학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사회학습이론이 노인학대의 경험적 증거로서 입증되지 않았지만, 반드라의 보브인형 실험에서 관찰과 모방이 폭력 아동이 입증되었기에 사회학적 학습이론의 세대간 폭력 전이는 노인학대에 유용화 될 수 있다.

Douglass(1983)는 방임과 학대를 일으키는 원인은 학대를 목격하거나 받아온 아동이 학대하는 성인으로 성장한다는 가설을 지지하였다. Kimsey 등(1981)은 가족의 전후관계 속에서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던 성인자녀들이 현재 그들이 부모에 대항하여 유사한 형태의 폭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2) 교환이론(Exchange theory)

호혜성(reciprocity)의 원리가 사회질서를 유지시키는 기반이 된다는 이론으로 호혜성의 원리라고 하는 규범이 붕괴될 때 학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즉, 노인학대는 부양자가 그들이 기대하는 부양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당면하여 부양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시도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Walker 등(1992)은 딸과 어머니 사이의 부양관계를 교환이론을 이용하여 연구하였는데, 그는 부양하는데 생기는 비용으로 걱정, 긴장, 압도당하는 느낌, 유감, 감정적 소모, 초조, 무력감, 좌절, 죄의식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의 쇠퇴를 지켜봄으로써 발생하는 근심 등을 감정적 비용으로 제시하였으며, 그 외에도 재정적 비용, 시간의 제한에 대한 비용을 들었다. 부양

함으로 얻는 보상으로는 부양자가 노화과정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킬 수 있고, 부양을 통해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배우자를 기쁘게 하고,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 등이다. 따라서 대가의 모색 없이 부양자에게 비용을 증가시키는 전통적 가족주의 고수는 노인과 성인자녀 세대간의 관계에 큰 위기를 낳게 할 것이다(한동희, 1996:12에서 재구성).

(3) 스트레스이론(Stress theory)

고령자의 부양은 매우 힘들고 많은 스트레스를 불러 일으키는 작업이므로 많은 학자들이 노인학대와 방임의 원인을 설명할 때 이 스트레스이론을 지지하고 있다⁸⁾.

즉, 노인학대를 일으키게 하는 특정한 스트레스 요인들에는 개인의 환경변화에서 오는 대처능력의 부족, 부양자에게 과도하게 요구되는 정신적, 물질적 비용 등이 있는데 이런 요인들 때문에 노인학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Haviland, 1989). 스트레스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과거 관계의 질이 낮거나(특히, 가족구성원의 애정결핍), 가정내 폭력의 내력, 몸이 불편하고 의존적인 노인, 정신 질병이나 건강하지 못한 부양자, 노인의 문제행동과 내적 스트레스의 증가 등이다. 특히 의존적인 노인에게 대한 부양자의 역할이 스트레스가 되거나 부담이 된다는데는 상당한 동의가 이루어져 있다(Simos, 1973; Eggert et.al., 1978; Cantor, 1983; Reece et.al., 1983; Baines, 1984; Ory, 1985).

이러한 스트레스 요소들 외에도 부양자와 학대받는 노인의 성격, 노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살피야 하는 책임감 등으로 부양자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연속으로 받을 때 노인을 학대할 가능성이 높다(Haviland, 1989).

(4) 상징적 상호작용이론(Symbolic interaction theory)

인간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한 의미를 주체적으로 해석하여 나름대로 상황을 규정한 후, 자신과의 내면적 상호작용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반응양식을 결정하게 된다. 즉, 개인이 처해진 상황, 자아개념, 다른 사람들과의 반응에 따라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Bahr, 1989).

8) 이하는 나용선(2005)을 재구성함.

Steinmetz(1988)는 노인학대의 연구에서 이 이론을 적용하였는데 노인과 그들을 부양하는 자녀사이의 태도, 행위, 상호작용을 관찰하여 모든 부양자가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며, 부양 그 자체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처럼 가족폭력에 있어서는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지가 중요하며, 실제적으로 이를 객관적이고 독특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Steinmetz, 1978). 가족은 흥미로운 단위이고, 가족에 속한 구성원은 일생동안 상호작용하며, 그 속에서 특징적인 행동의 유형을 갖는다(나용선, 2005:17에서 재인용).

상징에 대한 의미는 소유하고 있는 자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은 자원이론(resource theory)⁹⁾ 따라 의사결정과 행위를 결정하게 된다. 사회·정서적 자원은 스트레스, 부담감, 갈등을 규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물질적, 사회·정서적 자원은 노인을 부양하는 성인자녀에게 똑같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가족폭력이 일어나기 쉬운 것을 예측한, 자원이론을 사용한 연구(Gelles & Straus, 1979)등에서 볼 수 있듯이 부양을 제공하는데 있어 성인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스트레스와 폭력이 적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학대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조작원으로 모여지는 요소를 밝히려는 시도로서 상징적 상호작용의 틀에 근거를 두는 것은 학대적 행위에 영향을 주는 상황적 요소를 밝히는데 중요하다(한동희, 1996:11).

(5) 생태학적 접근 이론(Ecological theory)

생태학적 이론에서의 ‘환경속의 인간’이라는 총체적 인간관은 유기체를 환경과 분리할 수 없고 상호작용하는 체계로 보기 때문에 개인과 환경은 이분화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양자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둘 수 있게 해준다(Germain, 1991; 김동배 외, 1998; 이연호, 2005:30에서 재인용). 이러한 맥락에서 Kemp(1998)는 가족내 학대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생태학적 모델(Ecological Model) 또는 체계적 접근법(System Approach)이 유용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이 접근법에서는 인간의 행동을 개인, 가족, 지역, 사회 등과 같은 환경과 결부시켜 이들 상호간의 지속적인 상호

9) 이 이론은 모든 사회체계는 폭력의 힘과 위협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으므로 가족에서도 폭력이나 폭력의 위협은 있을 수 있다. 즉 학대는 다른 자원이 불충분하거나 부족할 때, 자신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이다.

작용과 역동성을 다룸으로써 전체적인 관점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생태학적 접근에서는 폭력이 발생하는 즉각적 상황, 그 가족들의 상황, 이웃, 사회적 연결망, 그리고 폭력을 발생시키는 문화적 가치관들이 영향을 주어 가정폭력이 발생한다고 봄으로써 학대의 원인을 개인적 차원, 가족 체계적 차원, 사회적·문화적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노인학대 원인을 노인자신이나 부양자의 개인적 특성, 그리고 가족체계의 특성에 초점을 두는 동시에 더 큰 사회적인 맥락에서 그 같은 문제가 초래된 본질적인 영향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루게 되어, 노인자신만의 특성이나 또는 부양자만의 특성만 살펴보는 단편적인 접근방법보다는 좀 더 거시적으로 노인학대의 원인을 규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한은주, 2006:45). 또한 가족생태학적 관점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인간발달 생태학¹⁰⁾이라는 모형을 제시한 Bronfenbrenner(1992)와 그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가족구성원에 의한 학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진 Belsky(1993)의 모델이 있다. 이러한 Bronfenbrenner모형과 함께 Belsky의 모형을 본 연구의 이론적 근간으로 삼고자 한다.

2) 연구관련 이론

(1) 생태학이론의 도입 배경 및 의의

앞서 설명한 사회학습이론, 교환이론, 스트레스이론, 상징적 상호작용이론 등의 노인학대 가설 또는 이론적 설명들은 경험적 탐색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학습 이론적 가설(예: 폭력행태는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된다) 역시 다른 형태의 가족폭력에 관한 연구(Milner, 1990; Cox, 1996)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성인 모두가 자신이 어렸을 때 가족 내에서 폭력을 경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 교환이론적 관점은 노인과 전 생애에 걸쳐서 관계를 유지해왔고 연대감을 갖고 있는 자녀, 배우자와 같은 친족보다는 며느리와 같은 인척의 경우 공평성과 보상에 더 민감하다는 점에서 볼 때 이 이론은 자녀나 배우자로부터의 학대보다는 기타 부양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를

10) 이는 인간을 독립된 유기체보다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적인 산물로 보고 인간발달은 변수간의 인과관계보다는 상호의존성과 상호작용성의 전체성 안에서 검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환경을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등 네가지 환경체계로 세분화하였다.

설명하는데 더 설명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제한점을 들 수 있다(Fulmer, 1988). 따라서 이런 가설들은 경험적인 명확성이 부족하고, 사례마다 그 특성이 달라 한 가지 이론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처럼 확대의 원인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론이 각기 다르고, 각 이론의 독특성으로 인해 지엽적인 원인분석에 그치고 있음으로 해서 관련 연구의 결과에 있어서도 불일치되는 측면이 나타나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노인학대와 관련된 원인을 가능한 모두 포괄하면서 동시에 실질적인 경험연구가 가능한 이론적인 모델을 구성하는 필요성이 생긴다(한은주, 2006:42-43에서 재구성).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학대의 원인을 단일 측면으로 규명한 사회학 습이론, 교환이론, 스트레스이론, 상징적 상호작용이론 등 보다는 통합적인 원인론의 틀을 제시한 생태학적 접근 이론을 본 연구의 이론적 근간으로 삼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생태학적 접근 이론들 중에서 Bronfenbrenner(1992)의 인간발달 생태학 이론과 이를 기초로 한 네가지의 환경체계로 모형화 시킨 Belsky(1993)의 이론을 설명하여 노인학대의 관련요인에 대한 생태학적 이론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Belsky의 모형을 바탕으로 동모형의 환경체계에 부합되게 노인학대 관련요인들을 규정하여 노인학대 관련요인들, 즉 학대위험요인, 학대경험, 노인상담서비스 간의 관계모형을 도출하였다.

(2) 노인학대 관련요인에 대한 생태학이론 접근

① Bronfenbrenner의 이론¹¹⁾

그는 인간발달의 타 맥락이지 않은 환경을 네가지 환경체계(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로 묘사하였고, 이 체계들은 “러시아 인형처럼 차례로 끼워 맞춘 일련의 겹구조”로 이루어 졌다고 하였다.

i) 미시체계(microsystem)

즉각적인 환경내에서의 상호관계들의 복합체, 즉 개인을 둘러싼 직접적 환경내의 활동, 역할, 대인관계 유형 등을 말한다.

ii) 중간체계(mesosystem)

발달하는 개인이 실제로 참여함으로써 그 사람의 직접적인 환경에서 무

11) 이하는 한은주(2006)을 인용함.

엇인가 일어나도록 영향을 끼치는 경우로, 성장하는 유기체가 참여하는 두 가지 이상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과정과의 상호작용이나 상호관계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가변적이고 이동적이다.

iii) 외체계(exosystem)

성장하는 유기체가 적극적으로 참여자로 관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인이 속해있는 최근접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서 이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는 환경을 말한다. 의도적으로 구조화 되거나 지역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주요 사회기관이 이 환경의 범위에 포함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친구나 이웃, 대중매체, 정부기관, 상품과 용역의 분배체계, 교통통신시설 등을 들 수 있다.

iv) 거시체계(macrosystem)

민족집단체계와 같이 특정문화의 유형들로 각 문화속에 내재화되어 있는 신념체계나 이데올로기 등을 포함한다.

② Belsky의 이론

그는 아동학대의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Bronfenbrenner의 연구를 기초로 아동을 둘러싼 환경을 세분화하여 네가지 환경체계, 즉 개인적 체계(ontogenic level), 미시체계(microsystem level), 외체계(exosystem level), 거시체계(macrosystem)로 구분지었다.

개인적 체계에는 학대자의 개인적 특성변수를 선정하고 미시체계에는 가정, 부모의 직업, 학교, 친구 등과 같은 아동의 직접적인 환경요인을 선정하였으며, 외체계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 예를 들어 법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노력이라든가,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의 활성화 등과 같은 요인을 변수로 설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거시체계에는 문화, 가치, 규범, 태도, 성역할 등과 같은 광범위한 요인을 선정하였다(한은주, 2006:49에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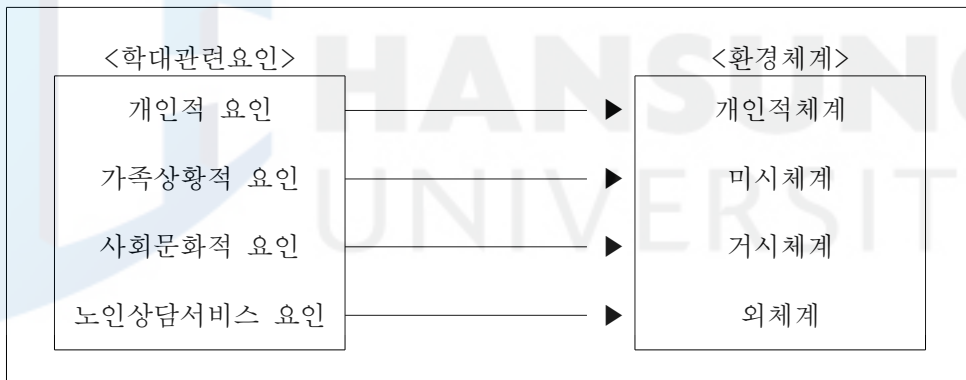
이와 관련, ‘이 체계는 가정 내 학대와 관계되는 4단계 즉, 개체 발생론적 수준, 미시체계수준, 외적체계수준, 거시체계수준으로 조직화 된다. 가해자의 개인적 요소는 개체 발생론적 수준에서 형성되며, 외적체계는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관계로 구성된다. 또한 거시체계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특정지어 지며 다른 수준을 포함한다(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연구회 역, 2001; 이연호, 2005:30에서 재인용).

③ 학대관련요인과 Belsky의 환경체계와의 개념적 관계

본 연구에서는 노인학대 특성분류를 참고하여 피해여성노인과 학대자와의 관계를 1) 개인적 요인 2)가족상황적 요인 3)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분류하였고, 이들의 관계를 둘러싼 환경변수로서 노인상담서비스 요인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여성노인학대의 잠재적 관련(영향)요인과 노인학대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들 요인을 모두 포괄하면서 실증적인 분석이 가능한 Belsky의 생태학적 이론 접근을 시도하여 동 이론의 네 가지 환경체계에 부합되게 노인학대 관련요인을 구분하였다. 즉, 개인적 요인은 개인적 체계로, 가족상황적요인은 미시체계로, 사회문화적 요인은 거시체계로, 노인상담서비스는 외체계로 규정하였다(<그림 2-1>참고).

<그림 2-1> 학대관련요인과 환경체계의 개념적 관계



(3) 노인학대 관련요인과 여성노인학대의 관계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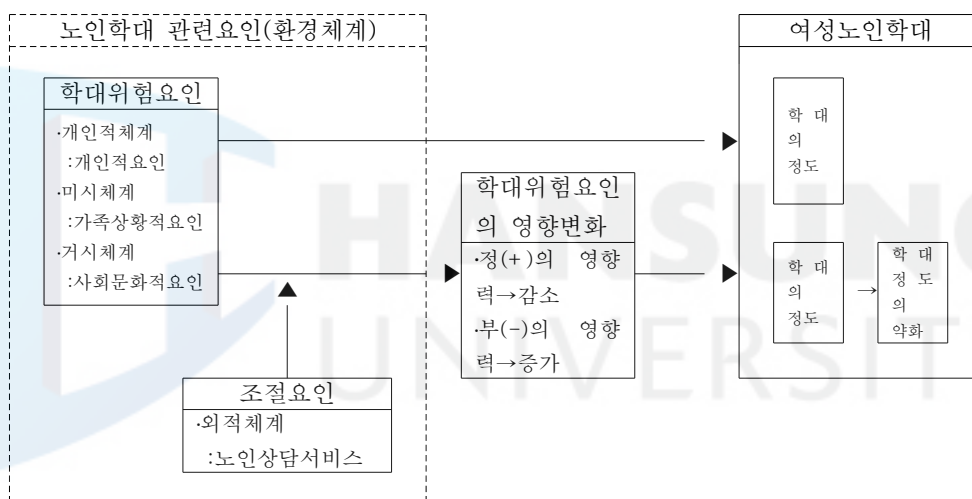
노인학대의 위험요인은 여성노인학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노인상담서비스가 학대위험요인과 여성노인학대와의 관련성에서 조절 변수로서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는가?라는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생태학적 이론을 근간으로 본 연구 단위 간의 이론적·실증적 관계모형을 다음의 <그림 2-2>과 같이 구축하였다.

본 관계모형은 첫째, 노인학대 위험요인(개인적 요인, 가족상황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이 여성노인학대의 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둘째, 그럴 경우 환경변수로서 노인상담서비스가 관여할 때 노인상담

서비스의 수준에 따라 여성노인학대의 정도가 악화 될 수 있다는 기본관점에서 출발하였다. 즉, 노인학대 위험요인이 여성노인학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때 주어진 학대위험요인의 수준하에서 여성노인학대의 정도가 노인상담서비스의 조절효과에 의해 완화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논리에 의거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생태학이론 접근을 시도, 실증적 분석이 가능한 이론적인 모형으로서의 ‘노인학대 관련요인과 여성노인학대의 관계모형’을 도출하여 학대위험요인과 여성노인학대, 노인상담서비스간의 관계를 체계화 및 모형화 시켰다.

<그림 2-2>노인학대 관련요인과 여성노인학대의 관계모형



5. 노인학대의 위험요인

노인학대는 특성상 다차원적이고 다변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련요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그 요인도 연구결과마다 서로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동일한 요인도 조사대상자의 상황변화에 따라서 노인학대 경험에 정(+)이거나 혹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은희, 2007:32에서 재구성).

미국의 경우 90년대 초기에는 주로 노인과 가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 요인 연구가 활발하였으며, 90년대 중반이후부터는 노인과 가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토대로 한 다른 변수들, 즉 부양부담

스트레스, 노인질병수준, 가족기능, 사회적지지 등과 관련된 것들이 가정 내 노인학대요인으로 확인되는 연구결과들이 있었다. 이외에도 권력관계의 불균형을 설명하는 페미니스트 이론이나 사회내의 노인의 지위를 설명하는 노인차별주의이론(Agism)을 이용한 접근들이 다양하게 학대연구에 적용되어 왔다(Bond et. al., 1999). 국내 연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90년대 중반이후부터 노인학대에 대한 개념화작업과 관련된 연구를 시작으로 2000년대 들어서는 가정 내 노인학대요인과 관련된 연구가 나오기 시작했다(이은희, 2007:32-33).

각종 문헌 및 논문을 통해 미국과 우리나라의 노인학대와 관련된 선행 연구결과를 검토해 보면, 대체로 노인의 개인적 요인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재산수준 등 일반적 특성 요인들과 노인의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의존도 등이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부양자의 개인적 요인으로는 음주, 질병, 약물의존, 무능력, 부양노인과의 기대감불일치, 자녀의 의존성 등, 가족적 요인으로는 가족의 부양부담과 함께 의사소통, 가족결속력, 관계만족도 등,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사회적 고립 및 지지체계, 노인차별, 부양기대감 등의 요인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노인학대 특성분류를 참고하여 피해여성노인과 학대자와의 관계를 1)개인적 요인 2)가족상황적 요인 3)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분류한 뒤, 선행연구를 근거로 본 연구의 의도에 맞추어 여성노인학대의 원인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변인들을 구성하였다.

1) 개인적 요인

(1)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노인학대 선행연구는 보편적으로 고령의 노인이 보다 학대가 발생할 상황에 처할 위험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한다(Kosberg, 1988; Lachs, 1994; Kemp, 2000). 이외에도 노인의 종교, 결혼상태, 가족현황 등이 자주 학대 위험요인과 관련되어 거론되는 요인들이다(이연호, 2005:43-44). 결혼상태는 대체로 많은 연구들에서 성별에 상관없이 홀로되어 배우자 없이 성인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학대를 받기가 좀 더

쉬운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Paveza 등, 1992; Hwalek et.al., 1996; Lachs et.al., 199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김미경, 1998; 한은주, 2006:52에서 재인용). 보건복지가족부의(2007)의 조사결과에서 피해노인 중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전체 66.2%를 차지하였고,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전체 31.4%를 차지하여 성별에 관계없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학대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중의 하나이다. 다수의 연구결과(Shiferaw et.al., 199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이선이, 1998; 한은주, 2000, 재인용)는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이 학대를 좀 더 받는 것으로 제시하며 교육수준이 다른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이연호, 2005:44).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의(2007)의 조사결과에서 학대피해노인 교육정도가 파악된 수는 2,008명으로 전체 86.9%를 차지하였고, 파악된 총 2,008명 중 무학이 48.7%(977명)을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교졸업 31.2%(627명), 중학교졸업 8.8%(176명)를 차지하여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학대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은 Choi(1999)는 노인의 자녀에게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는 경제적 상황이 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임을 밝혔으며, 이연호(2002)도 개인적 요인으로서 노인의 경제상태가 노인학대의 요인임을 연구하였다(이은희, 2007:39에서 재구성). 노인의 경제상태정도는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로 경제상태 의존도로 제시된다. 경제 상태의존 역시 논란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노인의 보호제공자에 대한 경제적 의존과 동시에 가해자의 노인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Wolf, Strugnell & Gordin, 1982; Kemp, 2000; 이연호, 2005:45에서 재인용).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의(2007)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학대피해노인의 생활수준은 수급자와 저소득층이 총 2,312명 중 1,311명으로 전체 57.6%를 차지하여 과반수 이상이 저소득층 이하의 경제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대행위자 총 2,636명 중 생활수준이 파악된 경우가 2,538명으로 전체의 96.3%를 차지하였고, 파악된 2,538명 중 중산층이 1,481명으로 전체 58.4%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저소득 28.7%(729명), 수급자

8.1%(206명)로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경우 가해자의 노인에 대한 경제의존도 보다는 노인의 보호제공자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임을 추론할 수 있다.

가족(동거)현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조애저외, 1999)에서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6.7%,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는 10.0%가 학대를 경험하여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자녀들로부터의 학대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손에스터, 2001:16에서 재구성).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의(2007)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대피해노인이 학대행위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2,312명 중 1,189명으로 51.4%를 차지하고 있고, 동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1,120명으로 48.4%를 차지하여 학대행위자와 동거하는 경우가 동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보다 학대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

(2) 의존성

대부분의 연구결과 신체적, 인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노인이 비슷한 연령이지만, 같은 장애를 겪고 있지 않은 노인보다 더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데 동의를 하고 있다(Block & Sinnott, 1979; Hickey & Douglass, 1981; Wolf et.al., 1982; Pagelow, 1984; Quinn & Tomita, 1986; Pillemer & Wolf, 1986; Pedrick-Corneil, 1987; Steinmetz, 1987, 1988; Pillemer & Finkelhor, 1988; Hotaling et.al., 1988; Pillemer & Suitor, 1992; Lachs & Pillemer, 1995; Neale 등, 1996; Lachs 등, 1997; Sodei, 1999; 한동희, 1996; 이선이, 1998; 이성희 · 한은주, 1998). 특히 중단적 연구를 한 Lachs 등(1997)의 결과는 의존성이 학대와 관련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한은주, 2006:53). Blenkner(1969)에 따르면 건전한 상태가 아닌 상태, 늙게 되는 상태가 의존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Blenkner의 의존성은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현재 작업하는 세대로부터 전이된 수입에 의존하게 되는 생산적 역할의 손실에서 기인되는 경제적 의존성(economic dependency) 둘째, 매일 일상생활을 수행할 기능적 능력이 쇠퇴되고, 육체적 힘이 줄어들어서 오는 신체적 의존성(physical dependency) 셋째, 인지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들의 부양자에게 의

존해야할 정도의 인지적 기능의 소멸로 인한 정신적 의존성(mental dependency) 넷째, 역할, 애정, 동료감, 지위, 권력 등의 다양한 손실을 낳는 사회적 의존성(social dependency)으로 나누었다(한동희, 1996:50).

그러나 최근의 의존성 연구들에서 노인의 의존성과 동시에 부양자의 노인인에 대한 의존성을 주목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Pillemer(1985) 역시 학대노인 집단비교연구에서 학대노인의 건강상태가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노인들보다 심각한 상황은 아니며 가해적 보호제공자들이 경제적으로 노인에게 의존적임을 발견하였다(이연호, 2005:44).

따라서 노인의 의존성과 노인학대와의 관계는 선행연구들이 반드시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대체로 노인의 의존성은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가족상황적 요인

(1) 부양부담

Korbin과 그의 동료(1989)는 주부양자의 과중한 부양부담 스트레스가 주부양자의 이성적 통제를 불가능하게 하여 학대를 유발하며 이러한 경우 신체적 학대를 유발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았다. 또한 Beck and Ferguson(1981)는 성인자녀가 노인을 부양하는 데서 오는 강력한 부양부담 스트레스와 부양경비부담을 학대요인으로 보았다. 이성희와 한은주(1998)는 부양자의 노인학대경험과 관련요인 연구에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중년기의 기혼남녀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피부양자에 대한 심리적 학대 및 방임의 경험이 가장 높은 경향을 나타냈으며, 그 원인으로는 쌍방간의 이해부족과 경제적 능력 부족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학대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부양스트레스가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Douglass(1980)는 1979년에 미시간주 5개 지역의 의사와 전문가들에게 개별면접을 실시한 연구에서 노인과 부양자 사이의 상호관계에 있어 학대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즉, 첫째 의존적인 노인을 부양하는데 부적절한 경제사정(경제문제), 둘째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부양자 자신의

몸이 불편한 경우, 셋째 노부모와 부양자 모두 알코올 중독자인 경우, 넷째 적절하지 못한 주거문제, 다섯째 노부모와 성인자녀관계가 적개심으로 가득 찬 경우, 여섯째 노부모를 집에서 부양하는데 도움이 되는 원천이 없거나, 그러한 정보가 없는 경우, 일곱째 부양하는 사람 쪽이 지나치게 욕심이 많은 경우 등이다(나용선, 2005:26). 또한 Steinmetz(1978)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부양자의 자녀들이 진학하는 시기와 그들의 개인적 발전과 경력을 위해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할 때라 하였다. 자유로운 활동의 증가와 새로운 긍정적 삶의 설계를 할 수 있는 생활주기의 후반에, 노부모 부양이라는 부과된 스트레스는 노인학대로 나타내기 쉽다(나용선, 2005:27).

취업여성의 증가로 부양요구는 커진 반면에 부응할 수 있는 여건은 오히려 어려워져 그 부담감도 학대의 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노인학대는 가족의 정신병리의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정신적으로 건강한 가족이라도 과도한 부양부담으로 인해 학대적으로 될 수 있다. 특히 노령이나 질병부담으로 인한 노인의 성격변화는 돌보는 가족들을 지치게 하고 의료비용의 과중한 부담 또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다(이해영, 1996:p.306). 그리고 서운(2000)의 연구에서도 부양자의 부양스트레스가 가족의 무관심, 부양자의 경제적 문제와 함께 노인학대의 주요 요인임이 밝혀졌다(이은희, 2007:50-51).

(2) 가족결속력

가족결속력은 가족의 구조 및 기능과 관련된 요인으로 다른 형태의 가족 폭력에서의 연구에 비해 노인학대 연구에서는 비교적 연구진전이 늦은 관련요인이다. 이는 노년기 이후의 가족주기에서는 가족구성원인 자녀가 독립하여 다른 가족을 형성하게 되고 노년기 가족구조나 기능이 다른 시기의 가족주기에 비해 연구가 미비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Kim(1997)의 소수민족 노인학대 연구에서는 학대노인 가족의 결속력이 위험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노인을 포함한 혹은 노인이 제외된 가족결속력이 학대에 영향을 미친다. 가족구조의 기능이 변화하고 핵가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결속력은 학대에 영향을 미치

며 노인의 심리적 복지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이연호, 2005:47). 고보선(2005)의 연구에서 가족결속력은 전체 학대경험 정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가족구성원들이 결속력이 약할수록 노인은 학대경험을 많이 하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때, 가족결속력은 노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가정환경 자원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전길양·송현애(1997)의 연구결과 노인의 배우자나 아들, 딸 등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할수록 노인의 학대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illiland와 Jimenez(1996)는 학대받은 노인들이 가족들과 낮은 수준의 애정을 표현하였으며, 제대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서적 유대감 또는 관계만족도가 낮을수록 학대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한은주, 2006:58).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부모의 자녀에 대한 만족도 등이 노인학대의 위험요인으로 나타난다. 노인과 자녀의 관계만족도는 특히 노년기 부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사회교환이론은 가족 내 노인학대에서의 가족관계를 설명한다(나용선, 2005:24).

3) 사회문화적 요인

(1) 사회적 고립¹²⁾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된 노인은 특히 학대를 받을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이웃, 친구, 그 외 친척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도움 또는 중재를 받기가 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즉, 능동적 사회적 관계망인 부양자가 노 부모를 부양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가족원 및 지원망 또는 부양자가 일정기간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부양에 따른 부담감이 높아지고 이는 학대 또는 비효과적인 부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Phillips, 1983; Pillemer, 1986; Kosberg, 1988; Pillemer & Wolf, 1996; Pillemer & Finkelhor, 1988; Lachs & Pillemer, 1995; Lachs et.al., 1997; Sodei, 199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그러나 Costa Rica의 노인과 미국의 노인을 비교한 연구결과(Gilliland & Jimenez, 1996), 미국에서 학대

12) 이는 다른 말로 노인이 원조와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라고 할 수 있다.

를 받고 사는 노인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Costa Rica에서 학대를 받고 사는 노인은 가족수가 많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고립이 반드시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은주, 2006:59). 한은주 자신의 연구(2006)에서도 노인의 사회적 고립이 학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고립¹³⁾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인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여 다른 위험요인들과 관련된다. 노인들은 사회의 노인차별주의로 인하여 소외되며 개인적으로는 정신적, 신체적 무능으로 인하여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된다(Kemp, 1998; Abraham, 2000). Wolf(1996)는 사회적 고립이 특히 재정적 학대, 방임과 강한 관련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즉, 재정적 학대와 관련되는 사회적 고립은 노인 행동통제 수단으로 사용되며 노인을 원치 않는 장소로 이주시키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가해자는 다른 구성원, 친구, 친지들을 의도적, 간접적으로 노인주변에서 제거한다. 노인의 양호한 사회적 관계망은 학대의 노출을 우려하는 가해자에게 학대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므로 보호요인이 된다(Brandi, 2000).

따라서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학대 경험과의 관계는 기존의 연구들이 반드시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대체로 노인의 고립은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사회적 (노인)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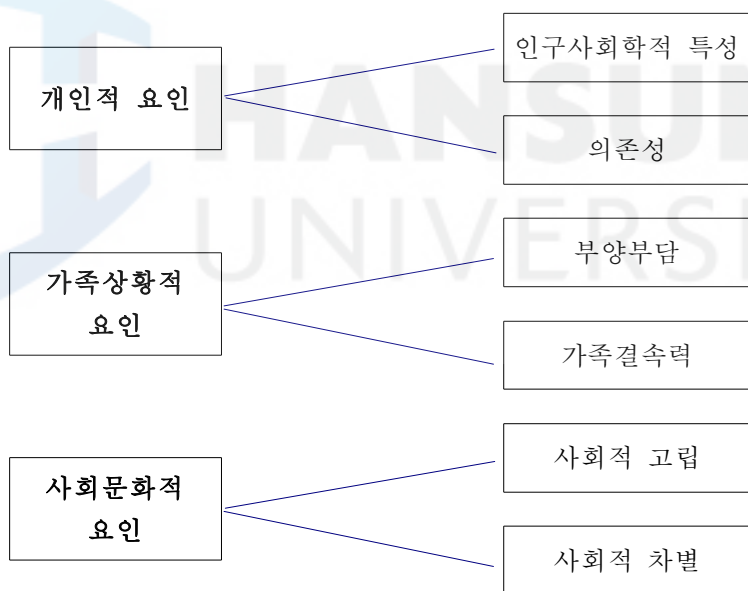
노인은 특히 사회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 학대받기가 더욱 쉬워진다. 이는 의무 있는 역할의 상실에 영향을 미치는데, Atchley(1977)는 이를 ‘기회의 상실’이라고 명명하였다. 즉, 사회가 노인을 고립시키고, 더 이상 이들에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의무적으로 은퇴를 해야 하는 것은 직업적 역할을 잃어버리게 하고, 이것은 이러한 과정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노인의 저가치화는 개인의 지위뿐만 아니라 학대를 받기가 좀더 쉽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Hotaling et.al.,

13) 이하는 나용선(2005)을 인용함

1988; 한은주, 2006:60-61에서 재인용).

Troll 등(1976)은 미국사회는 이러한 노인차별주의로 노인이 고통 받는다고 지적하고 노인을 ‘노쇠하고, 외롭고, 쓸모없는 신체, 변변치 못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높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인종이나 성을 바탕으로 한 차별과 같이 능력의 직접적 평가가 아닌 노인에 대한 선입감 때문에 통용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이유로 사회의 많은 활동으로부터 노인을 이탈시키는 것이다. 노인차별주의는 이처럼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설명되는 선례, 선입감, 전형적 사고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Henton et.al., 1984; 한동희, 1996:20에서 재구성). 특히 여성노인은 연령차별과 성차별의 이중적 차별을 받고 있다.

<그림 2-3> 노인학대의 위험요인



<표 2-1> 노인학대위험요인

연구자	제목	발표지	조사대상	위험요인
한동희 · 김정옥 (1995)	노년기특성에 관련된 노인학대 연구	가정학회지 제7호	성인자녀, 배 우자, 친척동 거 중 학대 경험노인 남 녀 54명의 심층면접	노인의 인격적 특성(사리 판단력저하, 고집이 센 성 격, 공격적인 성격 등), 신 체적, 정신적 의존성, 무기 력감, 생존적 의존
한동희 (1996)	노인학대에 관 한 연구	효성가톨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65세 이상 학대경험 노 인 54명	노인일반적 특성: 연령(75 세 이상 53.8%), 성(여성 77%), 생활수준(-), 자녀 와의 관계의질(-), 건강상 태(복합질병), 부양자의 특 성: 부양자의 무능력, 부양 부담 스트레스, 자아존중 감, 의존성, 노인-동거 자 녀와의 결속관계
이영숙 (1997)	고부관계에서 발생한 노인학 대에 관한 연 구	대한가정학회 지 35(2)	며느리와 동 거한 경험이 있는 여성노 인, 117명	가족 간의 지위관계 고부관계
전길양 · 송현애 (1998)	노인홀대에 관 한 연구	한국가족상담 교육단체협의 회	60세 이상 노인 160명, 성 인 남 녀 291명(남성 144명, 여성 147명)	개인적 변인(노인):노인의 성(남성), 연령, 자녀와의+ 동거, 관계적 변인(부양 자): 연령(-)가족관계 만족 도(-), 가족 내 위치(차남 및 둘째며느리 이하-), 부 양부담 스트레스, 부모의 부양기대감의 불일치, 가 족지지, 가족원과의 관계, 자녀와의 접촉 정도
이성희 · 한은주 (1998)	부양자의 노인 학대 경험과 관련요 인	한국노년학회	노인과 동거 중인 40세 이상의 기혼 남녀 200명	노인의 의존성 수준 부양부담 스트레스
서윤 (2000)	노인학대사례 연구	한국노인복지 학회	학 대 경 험 노 인 39명 사 례연구	가족의 무관심, 부양부담 스트레스, 노인의 질병으 로 인한 의존성, 가해자의 개인적특성, (이기적, 외도, 이혼 등)·생활곤란
한은주	노인학대의 원	성신여대	자녀와 동거	미시체계변인:노인의 성(여

(2000)	인에 대한 생 태학적 연구	대학원박사학 위논문	중인 60세 이상 노인 200명	성), 교육수준(-), 신체적 인지적장애로 인한 의존 성, 결혼상태 중계체계:남성부양자의 음 주수준, 자녀와 관계만족 도(-), 비동거자녀와의 비 접적 결속력(-) 거시체계:사회적 고립정도, 친구, 이웃, 친구로부터의 도구적, 정서적 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인지도
박봉길 (2001)	노인학대 인식 도 분석을 통 한 사회사업원 조전략	부산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전문가, 부/ 피양자	가족관계 불일치 정도 상호 의존성
이연호 (2002)	노인학대 위험 요인과 피해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학 대 경 험 이 있는 60세 이상 노인 102명	개인적 요인:교육수준(-), 인지기능수준(-), 성별, 경 제상태(-), 신체기능(-) 가족적위험요인:가족결속 력(-) 사회문화적 위험요인: 단 체참여횟수, 친척접촉횟수, 자녀접촉횟수, 원조 요청
송영민 (2002)	여성노인의 의 존성과 학대경 험에 관한 일 고찰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차 조사:시 설수용 여성 노인 14명, 노인 단독 가 구노인 8명, 자녀 동거 노 인 10명(총 32명) 2차 조사:1 차 조사대상 중 12명	질병으로 인한 강한 의존 성→부양부담유발→노인학 대요인

자료: 이은희, '노인학대 연구', 한국학술정보(주), 2007, pp.34-35

제 2 절 사회복지 상담서비스의 이론적 고찰

1. 노인상담 서비스의 개념 및 영역

21세기 들어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화 및 핵가족화 등에 따라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국가의 공통사항인 노인의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참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잡다양하고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는 (여성)노인의 욕구 및 문제를 정확히 파악 할 수 있는 노인상담과 함께 그에 부응하는 양과 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노인상담서비스란 ‘노인에게 상담제공은 물론이고, 이에 필요한 상담프로그램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즉, 노인상담서비스는 ‘노인의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참여적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담을 통하여 노인의 욕구 및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신속·정확한 사회제도적 대응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태식, 2007:38).

노인상담의 영역을 노인문제의 영역에 따라 크게 ①소득보장 ②의료보장 ③사회적 서비스보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소득보장은 노인문제 중 경제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고, 의료보장은 건강관리의 문제해결을 위한 것이며, 사회적 서비스 보장은 역할 상실과 여가문제 및 심리적 소외와 고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최일성외, 1995; 김태식, 2007:18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최일성외(1995)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김태식(2007)의 연구 및 김진희(2007)의 연구를 참조하여 노인상담서비스의 영역을 노인문제의 영역에 따라 크게 ① 경제적 문제관련 상담(서비스) ② 신체적 문제관련 상담(서비스) ③ 정서적 문제관련 상담(서비스) ④사회 참여적 문제관련 상담(서비스) ⑤ 정보적 문제관련 상담(서비스) 등 5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경제적 문제관련 상담(서비스)는 노인문제 중 생계 및 취업의 문제해결을 위한 것이고, 신체적 문제관련 상담(서비스)는 건강 및 의료의 문제해결을 위한 것이며, 정서적 문제관련 상담(서비스)는 심리 및

가족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며, 사회 참여적 문제관련 상담(서비스)는 봉사 및 여가활동의 문제해결을 위한 것이며, 정보적 문제관련 상담(서비스)는 복지혜택 및 법률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경제적 문제관련 상담(서비스)는 공적부조제도로써 노인, 저소득층, 실업자 등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현재 65세 이상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이거나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자에게 일정금액이 지급되는 경로연금, 그밖에 지하철, 고궁, 국·공립박물관 및 공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로우대제도, ‘노인고용촉진법’에 의해 노인취업알선센터, 고령자인재은행, 노인공동작업장 등을 통한 노인 취업 알선, 공공시설 안에서 매점, 자동판매기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는 노인에게 우선권을 주는 생업지원, 노인과 동거 또는 부양하는 가족에게 제공하는 주택상속세 공제, 주택자금 할증 지원 등 세제혜택과 아파트 분양 시 혜택부여 등을 들 수 있다.

신체적 문제관련 상담(서비스)은 65세 이상자, 중증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 대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으로 의료문제 해결을 돕는 공적부조제도인 의료급여제도, 노인을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조기치료를 위한 노인건강진단제도,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¹⁴⁾, 주간보호서비스¹⁵⁾, 단기보호서비스¹⁶⁾, 간호방문사업 등이 있다.

정서적 문제관련 상담(서비스)은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개인상담, 가족들 간에 직접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문제해결과 가족관계의 변화를 도모하는 상담인 가족상담, 교육 및 자조집단 프로그램¹⁷⁾등이 있다.

14) 이는 2006년 5월부터 정부의 주도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가정 봉사원 파견 사업의 일종인 ‘노인돌봄비 바우처(Voucher)’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중산층 이하 가정 중 혼자 활동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가정봉사원을 파견해 식사, 목욕, 청소, 세탁, 외출, 생필품 구매 등을 도와주는 것이다.

15)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인노인을 낮시간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16)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인노인을 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하고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17) 노인을 부양하는 부양자들이 서로가 경험하는 부양부담을 공유하고 상호지지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와 함께 노인과의 효과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교육시키는 서비스이다.

사회 참여적 문제관련 상담(서비스)은 노인(종합)복지회관이나 경로당¹⁸⁾ 등을 통하여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건강증진, 교양, 여가활동, 자원봉사활동, 오락, 기타 노인의 복리증진과 사회 참여적 문제해결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정보적 문제관련 상담(서비스)은 각종 노인상담기관(시·군·구의 사회복지과, 동사소의 노인복지담당자, 노인복지기관, 노인(전화)상담소 등)을 통하여 복지혜택 및 법률적 문제 등 각종 상담에 응하고 있다.

특히 새롭게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의 복리증진을 위한 상담 및 신고의무담당을 위해 시·군·구에 노인상담원을 배치하여 노인 개인 및 가족을 상담, 노인복지에 필요한 환경조사, 노인복지시설 입소 상담, 노인 단체활동 및 취업에 관한 상담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2. 노인상담서비스의 기능 및 의의

노인상담이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전문적 훈련을 받은 상담자와의 대면관계를 통해 자신의 개인적·가족적·신체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함과 더불어 감정, 사고·행동 측면의 인간적 성장을 통해 효과적으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돕는 과정을 의미한다(김태현, 1985:14). 즉, 상담과정을 통해서 노인들이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하여 노인들로 하여금 편안한 노년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돕는 활동이 노인상담의 핵심이다(Burlingame, 1995). 이런 점에서 McDonald(1996)는 노인복지실천에서 노인상담은 노인이 직면한 심리사회적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치료적 기능뿐만 아니라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서비스나 원조의 매개체로서의 기능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Thorman(1995)은 노인상담의 목표를 자아 존중감의 증진, 문제해결능력의 향상, 상실에 대한 대처, 위기상황의 해결, 스트레스의 감소와 대처능력 제고라고 하였다. 즉 노인상담서비스를 통해 신체적·경제적인 능력은 저하되었지만 노인 자신도 어엿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감을 갖게 된다. 또한 학대위험 상황에 처할 때 보

18) 이는 일명 노인정이라고 불리며, 지역노인들의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정보교환 등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며, 동사무소 및 노인복지기관, 보건소 등에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방문하여 서비스와 편의를 도모해주고 있다.

다 성공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김태식, 2007:16,18에서 재구성).

특히, 노인학대상담서비스와 관련해서, ‘현시점에서 학대피해 노인이나 가해자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복지적 개입을 기반으로 한 전문 프로그램 및 서비스제공의 확대인 것이다. 즉, 먼저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정서적지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문제에 따라 피해노인, 가해자, 가족 및 친지 등을 대상으로 개별상담, 가족상담, 집단상담 등을 실시하여 학대로 인한 심리/정서적 피해의 치유를 도모한다. 그리고 경제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의 자격확인 후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요원과의 협조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호, 경로연금 등 경제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의료처치서비스가 제공된다. 법률 상담 및 의뢰서비스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더군다나 사회복지기관 및 서비스 연결도 개입과정의 핵심적 부분이 된다. 주간보호시설 이용, 가정봉사원 또는 자원봉사자 파견 등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재가복지시설에 의뢰하여 실시되는 서비스로 식사, 청소, 요리, 간병 등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이연호, 2004: pp.238-250). 이런 점에서 일반여성노인의 문제해결뿐만 아니라 학대피해노인의 문제해결의 개입과정에서도 상담을 통한 학대피해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적(임상적), 실천적, 사회복지적 개입으로서의 노인(학대)상담서비스의 역할과 기능이 마찬가지로 중요하고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3. 노인상담서비스와 사회적 지지

상담서비스와 사회적 지지는 그 기능과 역할 면에서 대체적으로 사용되거나 혹은 혼용되어 사용되어 질 수가 있는데, 개념적 차이는 있지만 기능과 역할 면에서는 상담서비스가 사회적 지지의 일부분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사료된다. 그러면 사회적 지지가 무엇이기에 상담서비스가 그 일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

Caplan(1983)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란 ‘감정적 지지와 물질적 원조를 제공해 주리라 믿는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유대관계’라고 정의하였고, Lin 등(1979)은 사회적 지지는 ‘다른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 의한 사

회적 결속력을 통하여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지지'로 정의하면서, 사회적 지지망에 가족구성원, 친척, 친구, 친지, 동료, 지역사회 등을 포함시켰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조적 측면은 한 개인의 사회적 망에 통합되어 있는 정도(지지망의 크기, 사회적 지지의 원천)를 평가하고, 기능적 측면은 한 개인이 스트레스사건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을 돕고 자원들의 이용가능성, 즉 사회적 지지의 유형(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도구적 지지)¹⁹⁾의 정도를 평가하는 차원을 의미한다(손에스더, 2001:23에서 재구성).

이와 같이 사회적 지지는 그 일부분으로서 (노인)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집단이나 지역사회의 지지를 포함하는 광의의 지지체계라 볼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노인상담서비스는 주로 지역사회(시·군·구)의 사회복지과 및 주민자치센터, 노인(종합)복지기관, 경로당, 노인(전화)상담소, 보건소, 노인학대상담센터²⁰⁾ 등에서 제공되어 진다(<그림 2-4>참조).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대신 노인상담서비스를 강조하고 그 조절효과를 규명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서비스의 인지 및 이용도가 낮기 때문이다. Douglass(1980)는 서비스 제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 결과, 훈련부족, 의존적인 노인들의 욕구에 대한 민감성 부족, 지역사회 자원과 부양서비스 인지에 대한 부족 등으로 인해 노인학대가 일어난다고 하였다(한은주, 2006:60).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노인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이 점차 인식되면서 상담서비스(프로그램)관련 예산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 '노인 돌보미 바우처(Voucher)'사업 등 서비스 확

19) 정서적 지지는 개인으로 하여금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 주며 그 자신이 사회성원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고 애정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행위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존중감, 애정, 신뢰, 경청, 관심, 배려의 제공을 들 수 있다. 도구적 지지는 개인이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을 직접 도와주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현물, 현금, 노동력, 시간, 환경의 개선 등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적 지지는 개인이 환경으로부터 제기되는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충고, 제안, 정보, 지시를 제공하는 것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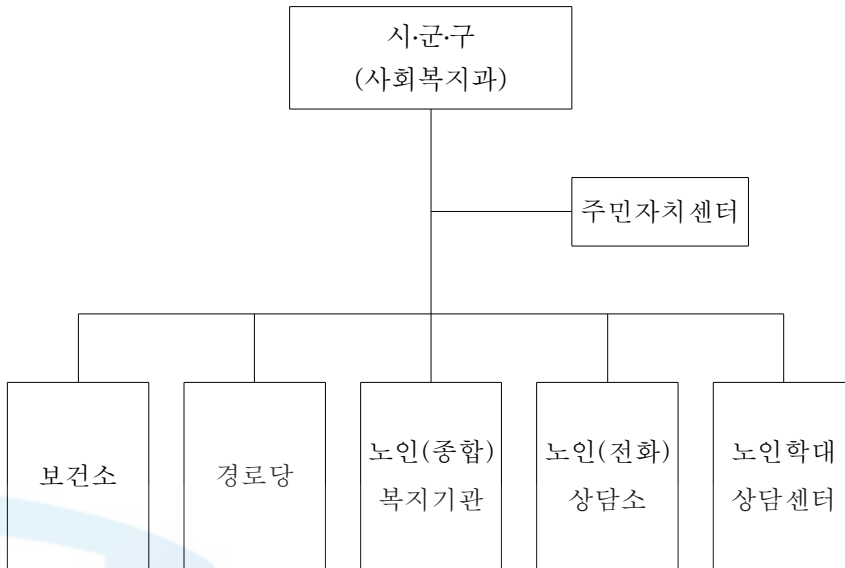
20) 2002년 12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노인학대상담기관으로서 학대받는 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학대에 대한 홍보와 교육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대도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서구의 복지국가에 비해 상당히 미흡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식적인 지원체계인 노인상담서비스(프로그램)의 인지도나 이용도는 열악한 비공식적 지원체계(사회적 지지체계중 가족구성원, 친척, 친구, 친지, 동료 등)에 놓여있는 여성노인들로 하여금 이용이 가능한 대처자원이 될 수 있다.

둘째, 노인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감과 고독감, 상대적 박탈감 등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많은 노인문제들이 다양한 정서적 영역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족원보다는 친구나 이웃이 사회적 역할을 상실해가는 노인들에게 노년기 적응 및 사기 고취에 긍정적 역할을 준다고 하나, 이러한 1차 집단의 비공식적인 관계망을 통한 지지는 양과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자연히 전문상담원과 같은 공식적인 관계망을 통한 지지와 자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현외성 외, 1998:67)

셋째, 본 연구를 위해 노인복지기관과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과정에서 대동소이한 노인학대위험요인의 수준하에서 노인복지기관의 이용여성노인들은 상대적으로 노인상담서비스의 수준은 높으면서 학대경험의 정도가 낮은 반면, 경로당의 이용여성노인은 상대적으로 노인상담서비스의 수준은 낮으면서 학대경험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노인상담서비스가 학대의 위험요인과 학대경험과의 관련성을 조절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노인상담 서비스의 활발한 이용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완화하는데 다소나마 기여하리라고 기대되고 이를 위해 노인 상담서비스 중심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방안을 강구하고 사회적 개입방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겠다.

<그림 2-4> 노인상담서비스기관



4. 노인상담서비스의 조절효과

다양한 사회과학분야에서 흔히 완충효과(buffering effect)라고도 불리는 조절효과(modulating effect)는 매우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조절효과란 제3의 변수에 의해 독립변수(학대위험요인)가 종속변수(학대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해주거나 약화해 주는 효과를 의미한다. 즉, 조절효과란 X의 Y에 대한 효과가 제3의 변수 Z에 따라 달라지는 효과를 말한다. 이때 Z를 조절변수(moderator)라고 정의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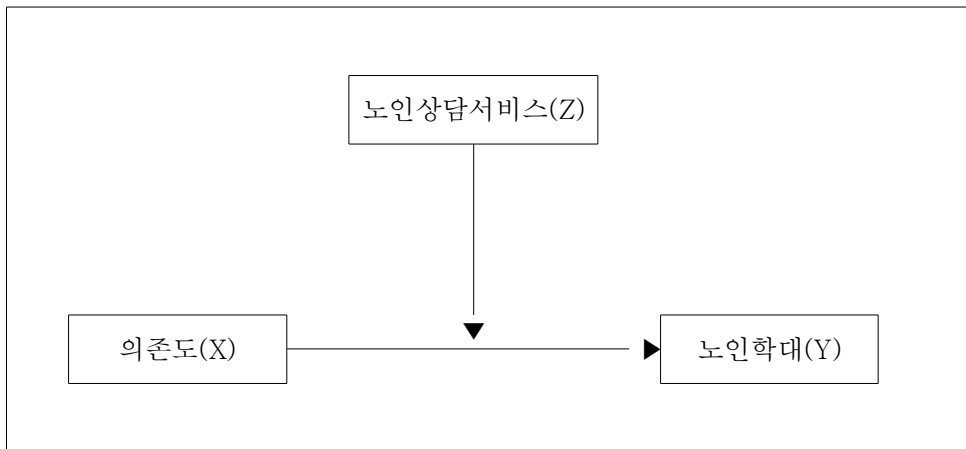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은 크게 3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독립변수의 종속변수로의 회귀, 2단계는 독립변수, 조절변수의 종속변수 회귀, 3단계는 독립변수, 조절변수, 독립변수*조절변수의 종속변수 회귀의 단계를 거쳐 설명력(R^2)을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보는 검증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노인의 학대요인을 독립변수로, 노인상담서비스를 조절변수로 하고 학대경험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기 위하여 예를 들면, <그림 2-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여성노인의존도가 클수록 학대정도가 커지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항상 그런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이유로는 노인상담서비스

의 수준이 높을수록 의존성이 낮아져 의존성과 노인학대간에 관계가 약해지는 것을 발견한다면, 노인상담서비스가 의존성과 노인학대간의 관계를 조절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강해지는/약해지는 조건을 분석해 준다는 의미에서 조절변수를 조건변수(conditional variable)로 부르기도 하고 상호작용변수(interaction variable)로 부르기도 한다. 조절변수가 매개변수와 다른 점은 조절변수는 독립변수(X)와 종속변수(Y)의 진정한 관계를 조절해주는데 반해서, 매개변수는 의사관계²¹⁾를 중간에서 진정한 관계로 설명해준다는 데에 있다(신민철, 2008: pp.79-80에서 재구성). 이와 관련 조절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자료를 참조하기 위하여 여성노인학대 경험이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실증분석한 손에스더(2001)의 연구와 함께 CRM통합과 CRM성과와의 관계에서 시장지향성의 조절효과를 규명한 송길례(2007)의 연구와 호텔고객의 (불)만족과 구매 후 행동 간의 관계에서 관계혜택 및 전환장벽의 조절효과를 파악한 우성근(2004)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상담서비스의 조절효과란 여성노인의 학대위험요인과 학대경험과의 관계에서 노인상담서비스가 학대요인과 상호작용하여, 즉 노인상담서비스가 학대요인에 영향을 미쳐 전체 학대경험의 수준을 조절하는 작용을 하는 효과를 의미하며, 다시 말하면 여성노인의 학대경험은 동일한 학대위험요인의 수준에서 상담서비스혜택의 정도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21) 의사관계란 외생변수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가짜 관계를 만들어내는 경우를 지칭한다.

<그림 2-5> 독립변수, 종속변수, 조절변수



제 3 절 선행연구

1. 노인학대

외국의 경우 노인학대는 1975년 영국에서 베이커(Baker)의 할머니 구타(granny battering)라는 논문에서 최초로 소개되어 대중적인 이슈가 되었다. 1980년 초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노인학대의 개념화 작업과 관련된 연구를 하기 시작했으며, 90년대 초기에는 주로 노인과 가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 요인연구가 활발하였다.

성별과 관련하여 Lau&Kosberg(1979) 등은 (고령의)여성노인일수록 더욱 학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였다. 즉, 여성은 남성에 비해 평균수명이 길어 배우자와 사별하고 홀로 사는 경우가 훨씬 많고, 자녀와 교환할 수 있는 자원이 상대적으로 남자노인에 비해 적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Pillemer&Finkelhor(1988)은 최근 성인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홀로된 남자노인들이 더 많은 학대를 받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또한 최근에 성별이 노인학대 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어서(NCEA, 1994; Lachs et.al,1997), 연구결과상의 불일치 양상이 뚜렷이 나타나며, 성별자체가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각각의 성별에 따른 또 다른 특성이 노인학대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지

가 명확하지 않다.

연령과 관련하여, Kosberg(1988) 등의 노인학대 선행연구는 보편적으로 고령의 노인이 보다 학대가 발생할 상황에 처할 위험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이연호, 200:43). 최근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기 노인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인구사회학적 변화는 의존적 노인인구를 양산하므로 연령은 학대의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혼 상태와 관련하여, 성별에 따른 학대경험과 마찬가지로 결혼 상태에 따른 노인학대에 대해서도 일관된 결과는 없으나, Paveza외(1992)를 포함한 대체로 많은 연구들은 성별에 무관하게 홀로되어 배우자 없이 성인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이 그렇게 많은 노인에 비해 학대를 받기가 좀 더 쉬운 것으로 보고 있다(한은주, 2006:51).

노인학대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 노인의 교육수준이 학대의 요인이 된다는 연구결과는 잘 보이지 않으나, 대개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이 학대를 좀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Shiferaw et.al.,199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서혜경, 1995; 이선이, 1998; 김미경, 1998, 재인용). 이는 대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다른 상황적인 변수(예를 들어, 경제적 상황, 대처자원 인지 등)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장은실, 2005:12). 그 밖에 노인의 경제수준, 종교, 자아존중감, 자녀와의 동거여부 등도 자주 학대요인과 관련되어 거론되는 요인들이다. 그리고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노인과 가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토대로 한 다른 변수들, 즉 주로 피해자인 노인과 가해자의 개인적 특질과 관련된 것들이 위험요인으로 강조되었다. 예를 들어 주부양자의 과부담(상황모델), 의존적인 노인과 가해자(교환이론), 아동기학대와 방임의 영향(사회학습이론) 등이 주요 위험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권력관계의 불균형을 설명하는 페미니스트 이론(Feminist Theory)이나 사회내의 노인의 지위를 설명하는 노인차별주의 이론(Agism)을 이용한 접근들이 다양하게 학대에 적용되어 왔다(이은희, 2007:32). 또 노인의 빈약한 사회적 관계망을 설명하는 사회적 고립주의 접근들이 있으나, Gilliland 외(1996)는 고립이 반드시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눈여겨 볼만하다. 주부양자의 부담과 관련하여, Korbin 외

(1989)는 주부양자의 과중한 부양부담 스트레스가 주부양자의 이성적 통제를 불가능하게 하여 학대를 유발하며 이러한 경우 신체적 학대를 유발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았다.

의존성과 관련하여 Block&Sinnott(1979)를 포함한 대부분의 연구결과 신체적, 인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노인이 비슷한 연령이지만, 같은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노인보다 더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데 동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Pillemer(1985) 등에 의해 반드시 노인의 의존성이 노인학대를 일으키는 요인이 아니라는 연구가설이 지지되기도 하였다. 즉, 신체적으로 학대를 받아왔던 노인 42명과 그렇지 않은 노인 42명을 비교 연구한 Pillemer는 학대받고 있는 노인들이 신체적으로 덜 장애를 겪고 있었으며, 경제적으로도 덜 의존적이었고 오히려 학대자들이 학대를 받는 노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 주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존성이 노인학대의 한 요인이지만 다른 상호관련변수와 복합적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한은주, 2006:51에서 재구성).

1990년대 이후 노인학대 관련요인 연구와 관련되어 부양자와 가족간 관계를 설명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었다. 많은 논란을 가져왔으나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의존적 피해자와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부양자간 관계는 연구의 초점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의 질로 변화시키는데 합의하였고, 현재는 부양자 스트레스나 부양부담을 학대유발요인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의 상호작용에 작용하는 중요한 변인(Anetzberher, 2000)으로 본다. 최근 연구는 관련 요인의 복잡성과 중복성 등을 고려한 이론 및 모델들이 강세를 보이는 추세 속에 있으며, 예를 들어 Kemp(1999)는 생태체제모델에 입각하여 거시(Macro), 중간(Meso), 미시(Micro) 세가지 수준에서의 위험요인을 설명하였다. 거시수준은 광범위한 문화사회적 요인이다. 예를 들면, 노인차별주의는 노인에 대한 전반적 사회적 인식으로 노인 공공정책에 반영되며 외부적 스트레스는 정체상태, 실직, 범죄, 인구과잉, 지역사회와 이웃환경을 포함하는 환경요인을 말한다. 중간수준의 위험요인은 관계요인으로 폭력의 전이, 역할전환, 피해노인과 가해자와의 관계의 역사들이다. 미시수준 즉 개인적, 성격적 요인은 학대 노인자신과 가해자의 개인적 요인을 의미한다(이연호, 2005:39에서

재구성).

국내연구의 경우 90년대 중반이후부터 노인학대에 대한 개념화 작업과 관련된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 2000년대에는 노인학대의 위험요인과 관련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한은주(2006)의 연구결과에 따라 학대의 위험요인으로서 개인적 특성으로 성별과 의존성, 가족적 특성으로 비동거 자녀와의 접촉적 결속력, 자녀와의 관계만족도,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친척·이웃·친구로부터의 정서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 지역사회서비스의 이용도 등으로 나타났다. 자녀와의 관계만족도, 의존성 등의 순으로 전체 학대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변수들의 전체 학대경험에 대한 설명력이 48.1%에 머물렀다.

장은실(2005)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개인적 요인으로 학력이 낮은 그룹일수록 본인의 재정수준에 불만족하는 그룹일수록, 의존성이 높을수록 가족상황적 요인으로서는 부양자의 부양부담이 높을수록 가족결속력이 낮을수록 노부모 학대경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보선(2005)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신체적 의존과 자녀의 의존이 높을수록, 가족구성원들의 결속력이 약할수록, 사회적 차별경험이 많을수록 노인은 학대경험, 특히 언어·심리적 학대와 방임을 많이 당하였다 그리고 관련변수들의 전체 학대경험에 대한 설명력이 48%에 그쳤다.

최선화(1998)의 연구에서 학대피해 여성노인의 연령은 75~79세의 여성노인이 32%로 가장 높았고, 동거형태는 혼자 살고 있는 경우가 32%로 가장 높았다. 건강하지 못한 노인이 60%로 높게 나타났고 생활수준도 양호하지 못한 경우가 80%로 나타났다. 학대자는 아들, 며느리 순이었고, 학대유형은 방임이 53.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정신적 학대와 언어적 학대가 높게 나타났다. 여성노인의 학대요인으로는 가족관계의 불화, 무능력한 아들, 며느리와의 갈등 순으로 나타났다.

나용선(2005)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가해자로는 아들, 딸, 며느리 그리고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친인척이 있었으며 피해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피해자들은 후기고령의 노인들이 대부분이었으며 교육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가해자는 경제적으로 생계가 어려

위 부양에 대한 부담감이 높았으며, 피해노인과의 의사소통과정에서 피해노인의 행동통제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고, 이것이 학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고부갈등에서 아들의 역할이 방관자적 입장이거나 아내를 동조하여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학대가 일어났다. 피해노인이 젊은 시절 자녀의 양육과정에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자녀가 자립하는데 장애로 작용하였고, 이로 인한 결과가 노인학대로 이어지는 경향도 분석되었다.

이상으로 국내의 경우 선행연구의 결과들이 상반되는 특성들이 있지만, 노인학대에 대한 공통적인 주요 특성으로는 고령의 경제적·신체적·사회적으로 자립이 어려운 의존도가 높은 여성이 대부분이며, 이들은 교육수준이나 사회화의 경험이 더욱 낮아 고립을 갖기 쉽고, 성과 연령에 의해 이중차별을 받고 있는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서 학대위험 특히 언어·심리적 학대와 방임에 노출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노인상담서비스

노인상담서비스에 대한 한국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회구조적 상황 및 연구자의 학문적 시각에 따라 초점을 두고 있는 몇 가지 범주, 즉 노인복지서비스, 상담기능, 상담범위, 상담기술 및 노인의 특성, 전달체계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노인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박재간(2003), 정길홍(2006) 등 다수의 연구자들은 무엇보다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과 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적 개발과 노력을 중요시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선화와 박광준(2003)은 전반적으로 볼 때 현재의 한국노인복지는 고령화 사회에 대처하기에는 그 규모나 내용에 있어 매우 취약함으로 각 부문별로 해결해야 할 수 밖에 없고, 특히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강조하였다.

노인상담기능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상담자와 노인 내담자 간에 문제해결과 치료목적의 전통적인 의료모델이었는데 최근에는 노년기의 발달과정의 성취로 변모하였다. 예를 들어, 현외성 외(1998)의 연구에서 “오늘날 상담은 문제의 해결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적 모형에서 문제의 예

방과 전인적 발달과업의 성공적인 성취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 목적과 역할이 전환되었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상담의 범위도 노인 중심에서 가족 및 사회문화적 요인까지도 강조하는 연구들이 나타났다. 즉, 김태현 외(2000)의 연구를 비롯하여 이호선(2005)은 ‘노인상담은 노인을 비롯하여 부양하고 있는 가족원에 대한 지원과 지지까지 포함된다. 또한 노인에 대한 가족원의 이해를 도모하고, 호의적인 관계유지를 위해 가족원을 정서적으로 지지하여, 가족이 노인의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한다.’라고 언급했다. 이호선(2008)은 ‘노인들의 신체·심리·사회적인 특성은 물론 그들의 삶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문화적 측면에서 노인을 이해하고자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노인학대에 관심을 두는 연구결과물도 나오고 있다. 이장호외(2006)는 “상담자는 내담자가 안전함과 편안함을 느끼는 가운데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정서적 지지를 충분히 해 주어야 한다. 나아가 학대받는 노인뿐만 아니라 학대하는 가해자를 비롯한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 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한동희(2004)는 ‘노인학대 전문상담원은 노인과 관련된 다양한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어야 하며 가족의 역동성을 잘 이해하고 가족관계 회복 및 노인의 심신의 장애를 극복시킬 수 있는 인내와 기술을 터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노년기 특성과 상담기술 및 지침에 대해 논의한 연구물로서는 홍숙자(2003)와 김문영 외(2004)의 연구 등을 포함한 남기민(1998)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들 기술로서 ‘①노인상담원과 노인클라이언트 간의 긍정적 관계수립 ②문제의 정의 및 명료화 ③부분화 ④우선순위 확립 또는 문제의 중요성의 순서를 정함 ⑤효과적인 의사소통 ⑥요약’을 언급하였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노인상담서비스의 내용이나 질보다는 노인상담서비스의 전달체계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논문으로 김태식(2007), 김진희(2007), 홍봉수(2004)의 논문을 들 수 있는데, 김태식(2007)은 ‘상담의 필요성과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상담이 활성화 되

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상담서비스가 제공하는 자원의 한계도 있겠으나, 그 보다는 상담서비스를 전달하는 서비스전달체계가 미흡한 데에 더 큰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3. 선행연구의 시사점

기존의 연구결과들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

첫째, 외국의 선행사례를 통해 볼 때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성별이나 결혼상태, 개인적 요인인 의존성, 사회문화적 특성인 고립감 등 상당수의 변수들이 학대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확실히 규명이 안 되어 있고, 상황에 따라 위험요인들이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연구들의 결과들도 불일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연구자들의 연구방법이나 이론적 접근 등의 차이에 상당부분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여성)노인학대와 관련한 국내연구에 있어서 방법론적이나 이론적이거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연구지침의 수립되어 연구결과들 간의 비교도 가능하고 축적된 지적 자산으로서 사회복지적 상담서비스 제공에 유용한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둘째, 국내선행연구의 결과를 볼 때, 학대피해자들의 대부분이 의존성이 높은 후기고령의 여성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래의 연구는 남성을 포함한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보다는 여성노인, 그 중에서도 특히 고령의 여성노인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들이 많이 나와야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외국과 달리 학대유형으로 언어 · 심리적 학대와 방임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신체적 학대를 동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노인의 경우 성학대나 심한 경제적 착취, 신체적 폭력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반해, 이들 학대에 대해서는 부양자녀들이 부양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여사로 여기고 비교적 관대하다. 이런 점에

서 상담서비스의 실천적 방안 강구 및 개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한은주(2000)나 고보선(2005)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의 설명력이 50% 미만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추가적인 변인들을 탐색, 개발하여 그 중 가능성 있어 보이는 변인들을 연구모형에 도입함으로써 연구모형에 대한 관련요인들의 설명력을 보다 높힐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 노인상담서비스에 관한 연구

첫째, 지금까지는 노인상담서비스가 제공하는 급여나 서비스에 치중을 해 온 경향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보다는 노년기의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여가 및 자원봉사 활동, 노년기 인생재설계, 평생교육 및 학습활동 등의 프로그램들을 더욱 개발하고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을 둘러싼 사회구조의 급속한 변화 등으로 인해 점점 다변인화 및 복합화 되고 있는 노인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노인을 중심으로 한 단일축면의 상담서비스에서 이제부터는 가족 및 문화차원까지 동시에 고려하는 다면적이고 다차원적인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여성노인학대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상대적인 심각성을 감안할 때 현재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서비스에서 분리하여 여성노인에게 특화된 여성노인상담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하기 위한 관계자들의 노력과 의지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넷째, 노인상담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는 서비스의 양과 질 못지않게 서비스를 제대로 전달 할 수 있는 행정적 전달체계의 정립에도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노인상담이 단순히 전문상담원으로부터 일시적 정보제공이나 조언, 정서적 위안 등 전통적인 상담기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노인이 직면하고 있는 욕구와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방안 강구 및 실천적 개입차원에서의 지원을 의미하고, 노인이 해결하고 싶은 상담영역은 사회구조의 급변과 복잡성에 따라 보다 다양해지고 복잡적이 돼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노인상담을 통한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적(임상적), 실천적, 사회복지적 개입인 노인상담서비스의 중요성이 더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3) 노인학대와 노인상담서비스에 관한 연구

첫째, 노인학대의 위험요인을 분명히 파악하여 위험요인의 학대유발 효과를 예방 및 감소시키기 위한 노인상담서비스의 대응프로그램을 개발 및 활성화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발달과업의 성공적인 성취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상담서비스가 종래의 노인중심에서 가족 및 문화적인 차원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노인상담서비스의 조절효과를 개인적 차원, 가족적 차원, 사회문화적인 차원으로 분류하여 그 효과를 검증해보는 것의 의미 있고 유용한 연구가 될 것이다.

셋째, 의존적인 고령의 여성노인들이 주로 당하는 언어·심리적 학대와 방임을 예방 및 완화시키기 위하여 이들 학대에 대한 여성노인들의 학대에 대한 인식도와 대처방안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실시되어야 하며, 아울러 노년기 특성 및 발달과정, 학대의 개념 등 대국민홍보와 교육을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넷째, 학대피해노인의 의존성과 가해 부양자의 부양부담을 감소시키는 사회적 지원의 중대를 목적으로 기존 사회복지 노인상담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학대피해 노인과 가족에게 대처자원 및 서비스, 각종 전문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실천적인 상담서비스 방안이 요구된다.

제 3 장 연구의 설계

제 1 절 연구모형의 설계와 가설의 설정

1. 연구모형의 설계

본 연구는 60세 이상의 학대받는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개인적 요인(인구사회학적 특성, 의존성), 가족상황적 요인(부양부담, 가족결속력), 사회문화적 요인(사회적 고립, 사회적 차별) 등의 노인학대 위험요인이 여성노인학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첫 번째 가정에서 시작하였다. 이어서 동일한 수준의 개인적 요인과 가족상황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등이 학대(경험), 즉 신체적 학대, 언어·심리적 학대, 방임, 경제적 학대, 전체학대 등에 영향을 미칠 때 제공받는 노인상담서비스의 정도에 따라 학대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두 번째 가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모형은 앞서 언급한 노인학대의 원인을 통합적인 틀로 제시한 생태학적 이론으로 접근을 하여 노인학대 위험요인과 여성노인학대, 노인상담서비스 간의 관계를 체계화 및 모형화 시킨 ‘노인학대요인의 관련요인과 여성노인학대의 관계모형’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독립변수로서 위험요인, 조절변수로서 노인상담서비스, 종속변수로서 여성노인학대 간의 상호작용 및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모형을 설계하고, 본 연구의 의도에 맞추어 관련변수를 구성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우선 개인적 체계로서 개인적 요인과 노인학대 간의 관계에서 나용선(2005)은 노인학대 관련 요인에 있어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을 토대로 위험요인을 분석하였다. 한동희(1996)는 개인적인 요인으로 학대받는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고령노인일수록 학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수의 연구결과는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이 학대를 좀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수준은 다른 요인에 영향을 미쳐 학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연호, 2005:44에서 재구성). 이외에도 이연호(2002)는 종교, 결혼상태, 자녀와의 동거여부 등이 학대 위험요인과 관련되는 개인적 요인들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성

회·한은주(1998)는 노인의 의존성은 부양자로 하여금 학대를 경험하게 하는 가장 큰 잠재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하였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의 의존을 일차적으로 성인자녀에게 돌리기 때문에 과도한 의존성은 자녀로 하여금 부양스트레스를 일으키며, 나아가 정신적 학대나 방임 심지어 신체적 학대로까지 이어지게 만든다.(장은실, 2005:14)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개인적 요인을 노인의 인구사회적인 특성과 의존성으로 구분하여 이들 위험요인이 여성노인학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처음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그리고 미시체계로서 가족상황적 요인과 학대경험 간의 관계에서 Douglass(1980; 한동희, 1996, 재인용)는 학대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 중 의존적인 노인을 부양하는데 있어 부적절한 경제적 사정과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부양자 자신이 몸이 불편한 경우 등을 들고 있다(장은실, 2005:16). 또한 노인학대는 정신병리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학자들 중에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가족이라도 과도한 부양부담이 학대자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한은주(2000)의 연구결과에서는 노인은 자녀와 정서적 유대감이 낮고 관계만족도가 낮으며, 비동거 자녀와의 결속력이 낮은 경우 노인이 학대경험이 높게 나타났다(고보선, 2005:96). 노인과 동거 자녀와의 유대관계인 결속관계에 있어서도 결속관계가 높을 경우 부양에 따른 자녀의 스트레스가 현저히 낮아지게 되며 노인에게 있어서 방임과 정서적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역시 현저히 낮아지게 된다(장은실, 2005:17).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가족상황적요인을 부양부담과 가족결속력으로 구분하여 이들 위험요인과 여성노인학대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실증분석 역시 처음 시도하는 작업으로서 그 연구결과에 따라 사회복지상담서비스 개입의 실무적 지침이 될 수 있겠다.

또한 거시체계로서 사회문화적인 요인과 학대경험과의 관계에서 Kemp(1998)와 Abraham(2000)은 노인들은 사회의 노인차별로 인하여 소외되며 개인적으로 정신적·신체적 무능으로 인하여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된다. Wolf(1996)는 사회적 고립이 특히 재정적 학대, 방임과 강한 관련성

이 있음을 제시하였다(나용선, 2005:27). 장은실(2005)은 다른 사람들로 부터 고립된 노인은 특히 학대를 받을 확률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이웃, 친구, 그 외 친척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도움 또는 중재를 받기가 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동희(1996)는 부양자와 노인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학대의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회·문화적 수준에 따른 여러 가지 요소들 중 노인차별을 꼽았다. 그는 인종이나 성을 바탕으로 한 차별과 같이 능력의 직접적 평가가 아닌 노인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통상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이유로 사회의 많은 활동으로부터 노인을 이탈시킨다고 하였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사회적 고립과 사회적 (노인)차별로 분류하여 이들 위험요인이 학대경험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본 실증분석을 통하여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시도하였고, 이에 따른 분석결과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시사적인 정보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외적체계로서 노인상담서비스(프로그램)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상담서비스는 노인(학대)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향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김태현(1985)은 노인상담이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전문적 훈련을 받은 상담자와의 대면관계²²⁾를 통해 자신의 개인적·가족적·신체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함과 더불어 감정, 사고·행동측면의 인간적 성장을 통해 효과적으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돕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주장했고, McDonald(1996)는 노인상담은 노인이 직면한 심리사회적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치료적 기능뿐만 아니라 노인문제해결을 위한 다른 서비스나 원조의 매개체로서의 기능도 지니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연호(2004)는 노인학대의 개입과정에서 지속적 상담, 경제적 지원, 의료처치 및 법률상담, 가정봉사원 및 자원봉사자 파견 등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이는 곧 노인상담서비스 제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노인상담서비스는 노인의 개인적·가족적·심리사회적·신체·

22) 이는 내담자와 상담자가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는 면접상담 뿐만 아니라 전화 및 컴퓨터 통신을 통한 전화상담 및 사이버 상담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문제, 즉 노인학대의 위험요소인 개인적·가족상황적·사회문화적 요인들과 관련된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돕는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위험요인의 부정적인(혹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증가(혹은 감소)시켜 노인학대의 정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즉 상담서비스는 문제해결능력의 향상, 대처능력의 제고 등을 통해 위험요인이 학대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약화)할 수 있는 조절변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체계인 노인상담서비스를 독립변수가 아닌 조절변수로 채택한 이유는 첫째, 손 에스더(2001)의 ‘여성노인학대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노인상담서비스(프로그램)와 비슷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사회적 지지를 조절변수로 사용하였다는데 착안을 하였다. 즉 기능면에서 사회적 지지의 일부분으로서 노인상담서비스도 여성노인학대 경험과 관련하여 조절효과가 있다고 가정하고 본 연구모형을 구축하였고 둘째, 본 연구를 위해 노인복지기관과 경로당의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과정에서 별로 차이가 없는 학대위험요인의 수준 하에서 노인복지기관의 조사대상자는 상대적으로 상담서비스의 수준은 높으면서 노인학대의 정도가 낮은 반면, 경로당의 조사대상자는 상대적으로 노인상담서비스의 정도가 낮으면서 노인학대의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학대 위험요인과 학대경험과의 관계에 노인상담서비스가 관여하여 조절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갖게 되었고 셋째,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관점에서 외적체계로서 노인상담서비스가 개인적·가족상황적·사회문화적 요인들에게 영향을 미쳐 이들 위험요인과 학대경험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작용을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하에 앞서 도출된 본 연구의 이론적 실증적 관계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피해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학대의 위험요인이 학대경험, 즉 신체적 학대, 언어·심리적 학대, 방임, 경제적 학대, 전체학대의 각각에 영향을 미칠 때 노인상담서비스 활동의 수준이 조절변수로서 작용하게 되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모형은 크게 두 개의 실증분석으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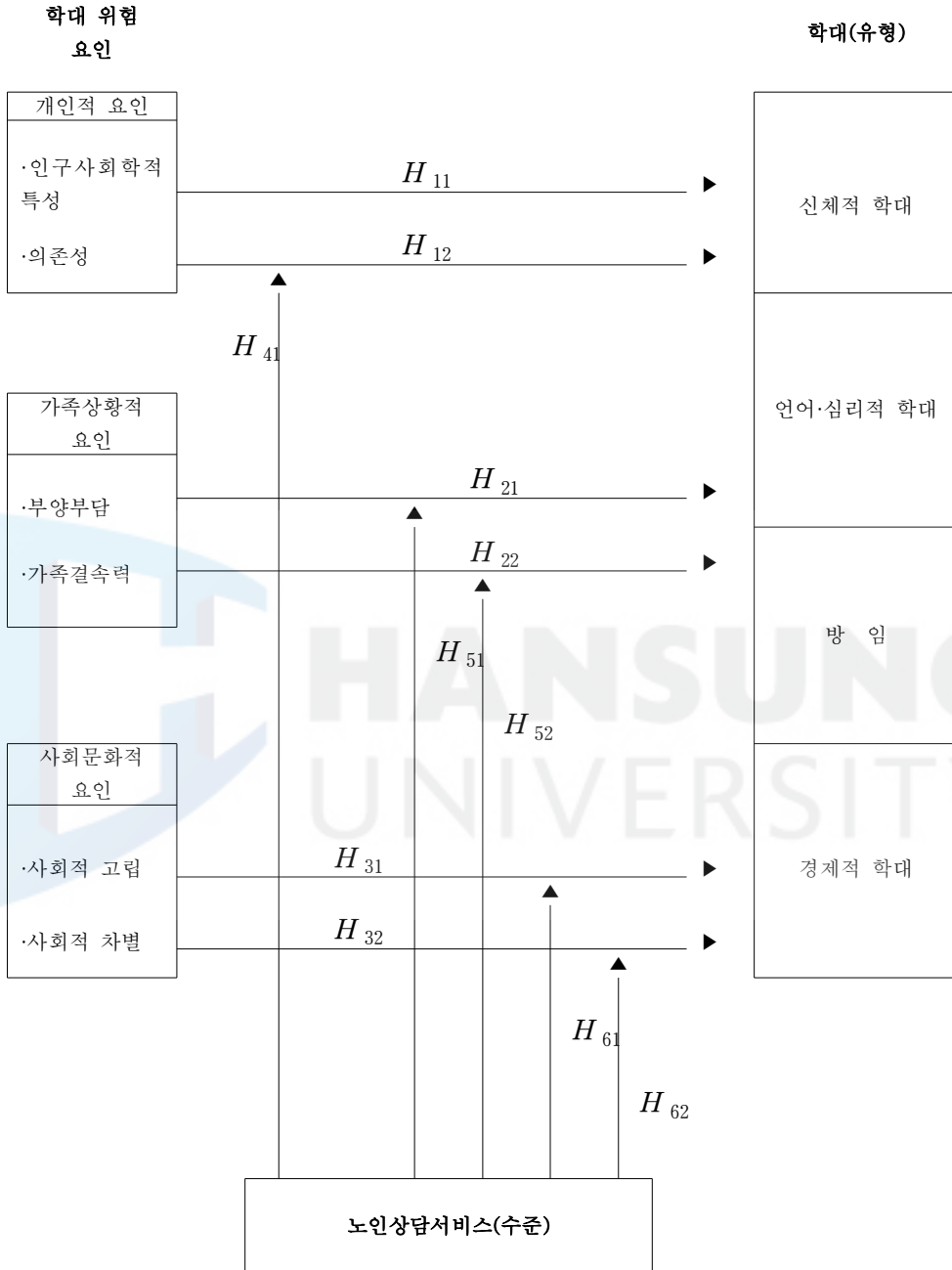
첫째는 개인적·가족상황적·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여성노인학대, 즉 신체적 학대, 언어·심리적 학대, 방임, 경제적 학대, 전체학대의 각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고, 둘째는 동일한 수준의 이들 요인이 존재하더라도 조절변수로서 상담기관들의 노인상담서비스제공의 수준에 따라 이들 요인이 학대경험, 즉 신체적 학대, 언어·심리적 학대, 방임, 경제적 학대, 전체학대의 각각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즉 학대경험이 악화되는 정도를 확인하고자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형은 개인적, 가족상황적,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직접적으로 혹은 노인상담서비스라는 조절변수의 관여(조절효과)에 의해 여성노인 학대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하고 논의를 하고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즉 개인적 요인이 학대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고, 이때 상담서비스가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가족상황적 요인이 학대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 이때 상담서비스가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요인이 학대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 이때 상담서비스가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본 연구모형에서 인구사회학적특성과 관련한 조절효과는 다루지 못 했다. 독립변수로서의 인구사회학적특성과 조절변수로서의 노인상담서비스와의 상호작용을 규명한 선행연구가 미비 되어 가설의 설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추후 이 부분에 대한 관계자들의 관심과 함께 후속연구가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여 보고자 하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나타낸 연구모형을 <그림 3-1>과 같이 구축하였다.

<그림 3-1> 연구의 모형



2. 연구가설의 설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사회가치관의 변화로 초래된 고령층 여성노인인구의 증가 및 가정의 부양기능의

악화, 이로 인한 노인학대의 증대에 따른 대안을 모색해야 할 현시점에서 여성노인 부양문제를 노인자녀와 가족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여성노인 학대의 관련요인의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이러한 요인들에 영향을 미쳐 학대경험의 정도를 낮출 수 있는 노인상담서비스 역할과 제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개인적·가족상황적·사회문화적 요인들의 구성요소들의 각각과 학대경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이때 상담서비스가 조절변수로서 관여하여 이들 요인들과 상호작용할 때 그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이 본 연구의 관심사로서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서 논의된 이론적 배경으로서의 선행연구와 ‘노인 학대 관련요인과 여성노인학대의 관계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설계된 연구 모형의 상호작용과 인과관계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총 11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1) 여성노인의 개인적 요인과 학대경험과의 가설

가설1(H_1) : 여성노인의 개인적요인은 학대경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여성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학대경험과의 가설

본 연구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을 제외한 연령, 교육수준(최종 학력), 결혼상태, 종교, 가족(동거)현황, 경제수준 등을 말한다.

먼저, 연령과 관련하여, 노인학대 선행연구는 보편적으로 고령의 노인이 보다 학대가 발생할 상황에 처할 위험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한다(Kosberg, 1988; Lachs, 1994; Kemp, 2000; 이연호, 2005:43-44에서 재인용). 교육수준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중의 하나이다. Shiferaw et.al.(1994)을 비롯한 다수의 연구결과는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이 학대를 좀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제시하며 교육수준이 다른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이외에도 노인의 종교, 결혼상태, 자녀와의 동거여부 등이 자주 학대요인과 관련되어 거론되는 요인들이다(이연호,

2005:44). Choi외(1999)는 노인의 자녀에게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는 경제적 상황이 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임을 밝혔으며, 이연호도 개인적 요인으로서 노인의 경제상태가 노인학대의 요인임을 연구하였다(이은희, 2007:39에서 재구성). 결혼상태는 보건복지가족부외(2007)의 조사결과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학대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동거)현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1999)에서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6.7%,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는 10.0%가 학대를 경험하여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가 학대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여성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학대경험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1(H_{11}) : 여성노인의 인구사회학적특성에 따라 학대경험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여성노인의 의존성과 학대경험과의 가설

노인학대 피해상황에 놓인 노인들은 경제적·신체적으로 의존적인 경우가 많았다. Rathbone-McCuan(1978)은 사례분석을 통해, 피해노인들 대부분은 부적절한 자원들과 기능적 제약으로 인해 의존적이었다고 밝혔다. 다른 초기 연구자들에 의하면, 학대받은 노인들의 적어도 3/4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손상되었다(Lau and Kosberg, 1979; Block and Sinnott, 1979; O'Malley et.al., 1979; Steur and Austin, 1980). 게다가 Douglass 등(1979)과 Chen 등(1981)은 실천가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기능적인 의존과 취약성은 노인학대에 대한 중요한 설명변수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적 의존성을 위험요인으로 강도 높게 제시하고 있다(윤진, 1994; 한동희, 1996; 이선이, 1998; 한은주, 2000). 노인의 의존성이 높아질 경우 부양가족에게 문제를 야기시키며 사회적 지원체계가 확실하지 못한 우리나라 상황상 학대를 유발하기 쉽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나용선, 2005:21-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여성노인의 의존성을 학대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2(H_{12}) : 여성노인의 의존성은 학대경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여성노인의 가족상황적 요인과 학대경험과의 가설

가설2(H_2) : 여성노인의 가족상황적 요인은 학대경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부양자의 부양부담과 학대경험과의 가설

Chen과 그의 동료학자들(1981)은 주부양자의 과중한 부양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족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주부양자는 물론 가족 전체가 노인학대를 하게하는 요인임을 밝혀 노인학대의 가정 내에서의 학대현상을 지적하였다. 또한 Beck and Ferguson(1981)는 성인자녀가 노인을 부양하는 데서 오는 강력한 부양부담 스트레스와 부양경비부담을 학대요인으로 보았다(이은희, 2007:51). 노인학대는 가족의 정신병리의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정신적으로 건강한 가족이라도 과도한 부양부담으로 인해 학대적으로 될 수 있다. 특히 노령이나 질병부담으로 인한 노인의 성격변화는 돌보는 가족들을 지치게 하고 의료비용의 과중한 부담 또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다(이해영, 1996:p.3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부양자의 부양부담을 학대경험에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2-1(H_{21}) : 부양자의 부양부담은 학대경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여성노인의 가족결속력과 학대경험과의 가설

고보선(2005)의 실증적 연구에서 가족결속력은 전체 학대경험 정도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가족구성원들의 결속력이 약할수록 노인은 학대경험을 많이 하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때, 가족결속력은 노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가정환경 자원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장은실(2005)의 실증적 연구에서 자녀와 부모와의 결속에 있어서

전길양·송현애(1998), 한은주(2000)의 연구결과와 같이 노인과 가족원의 관계가 불만족스러울수록 학대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Kim(1997)의 소수민족 노인학대 연구에서는 학대 노인가족 결속력이 위험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노인을 포함한 혹은 노인을 제외한 가족결속력이 영향을 미친다. 가족구조와 기능이 변화하고 핵가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결속력은 학대에 영향을 미치며 노인의 심리적 복지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이연호, 2005:47)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여성노인의 가족결속력을 학대경험에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2(H_{22}) : 여성노인의 가족결속력은 학대경험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여성노인의 사회문화적 요인과 학대경험과의 가설

가설3(H_3) : 여성노인의 사회문화적 요인은 학대경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여성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학대경험과의 가설

사회적 고립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인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며 다른 위험요인들과 관련된다. 노인들은 사회의 노인차별주의로 인하여 소외되며 개인적으로는 정신적, 신체적 무능으로 인하여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된다(Kemp, 1998; Abraham, 2000). Wolf(1996)는 사회적 고립이 특히 재정적 확대, 방임과 강한 관련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즉, 재정적 확대와 관련되는 사회적 고립은 노인 행동통제 수단으로 사용되며 노인을 원치 않는 장소로 이주시키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가해자는 다른 구성원, 친구·친지들을 의도적, 간접적으로 노인주변에서 제거한다. 노인의 양호한 사회적 관계망은 학대의 노출을 우려하는 가해자에게 학대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므로 보호요인이 된다(Brandt, 2000). 그러나 Gilliland & Jimenez(1996)의 미국학대 피해노인의 사회적 고립에 비해 소수민족인 코스타리카의 노인의 사회적 고립정도가 낮다는 연구결과는 사회적 고립이 반드시 위험요인은 아니며, 문화적 차이가 반영됨을 설명하고 있다(한은

주, 2000; 나용선, 2005:28에서 재인용).

한국에서의 위험요인으로서 노인의 고립은 고립(김태현, 한은주, 1997), 가족과의 접촉빈도, 자녀와의 접촉빈도 정도(전길양, 송현애, 1998), 사회적 고립, 친인척 접촉정도(한은주, 2000), 사회적 지지의 부족 등 다양한 용어로 제시된다. 한국 상황에서 일차적 지원망인 가족과의 접촉의 정도가 노인의 사회적 관련정도를 시사하며 이는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연호, 2005:49).

이상을 종합하면,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학대경험과의 관계는 기존의 연구들이 반드시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대체로 노인의 고립은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대다수의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여성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학대경험에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3-1(H_{31}) : 여성노인의 사회적 고립은 학대경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여성노인의 사회적 차별과 학대경험과의 가설

Troll 등(1976)은 미국사회는 이러한 노인차별주의로 노인이 고통 받는다고 지적하고 노인을 ‘노쇠하고, 외롭고, 쓸모없는 신체, 변변치 못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높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인종이나 성을 바탕으로 한 차별과 같이 능력의 직접적 평가가 아닌 노인에 대한 선입감 때문에 통용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이유로 사회의 많은 활동으로부터 노인을 이탈시키는 것이다. 노인차별주의는 이처럼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설명되는 선례, 선입감, 전형적 사고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한동희, 1996:20에서 재구성). 예를 들어, 노인에 관한 농담의 63%가 부정적이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TV광고들 역시 노인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성장하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고 하였다(Pagelow, 1984; 한은주, 2006:61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의 김한곤(1998)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학대의 원인이 가해자나 사회에 있기보다는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으나, 조사대상

자의 약 1/5이 사회풍조를 노인학대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사회에 만연해 있는 노인차별주의(ageism)가 노인학대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논의를 뒷받침해 줄 수 있다(한은주, 2006:61). 여성노인은 연령에 의한 차별요인보다 성에 의한 차별요인으로 인한 취약성을 더 많이 안고 있다(조흥식외, 2000:371).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여성노인의 사회적 차별을 학대경험에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2(H_{32}) : 여성노인의 사회적 차별은 학대경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여성노인의 개인적 요인과 학대경험간 노인상담서비스에 의한 조절효과에 관한 가설

가설4(H_4) : 여성노인의 개인적 요인과 학대경험과의 관계에서 노인상담서비스가 개인적 요인에 영향을 미쳐 학대경험을 조절할 것이다.

(1) 여성노인의 의존성과 학대경험 간의 조절효과에 관한가설

여성노인의 부양자에 대한 의존성은 주로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문제 등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남자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성노인은 신체적으로 출산, 가사 및 자녀양육 등으로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배우자와 사별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하며, 혼자 남게 되고 주부나 어머니로서의 역할도 상실하게 되어 소외되고 고독하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서비스(프로그램)는 우선 신체적·정서적인 면에서 혼자활동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노인들에게 가정봉사원을 파견해 식사, 목욕, 청소, 세탁, 외출, 생필품 구매 등을 도와주고, 말벗이 되어 주고 위로해 주어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 공적부조제도로써 노인을 비롯한 저소득층, 실업자 등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매달 정부로부터 일정금액이 지급되는 경로연금 또는 노령수당, 지하철, 고궁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로우대제도, 그밖에 노인고용

혜택, 생업지원 등을 통하여 여성노인의 의존성의 정도를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노인상담서비스의 수준이 높을수록 의존성의 정도가 낮아질 것이다’라는 노인상담서비스와 의존성과의 이론적 관련성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련성이 받아들여진다면 의존성의 정도는 노인상담서비스의 제공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선행연구로는 한은주(2006)는 신체적·인지적·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는 노인이 재정적인 학대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며, 이것 역시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 갈등의 소지가 적거나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이루어질 때 상쇄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특히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교환기회를 갖는 자원이 더욱 부족하다. 여성노인들은 교육을 받지 못해 단순논리적 사고에 익숙해있고, 자체적인 재산이나 수입이 없으며, 신체적으로 노쇠하고 병약한 상태에 놓여있고, 현대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순발력이 떨어지며 의존적이다. 결국 그들은 교환가치 있는 자원을 거의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지위의 약자로 위치하게 된다(유공순, 2004:165).

이상을 근거로 노인상담서비스는 여성노인의 의존성의 정도에 영향을 주어 학대경험을 조절하는 것으로 제안한다.

즉, 노인상담서비스의(제공)수준이 높다면 여성노인의 의존성의 정도가 낮아져 학대경험의 정도가 낮아질 것이고, 이와 반대로 낮다면 학대경험의 정도가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노인의 의존성은 노인상담서비스의 수준에 따라 학대경험 정도의 증가나 감소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4-1(H_{41}) : 노인상담서비스 수준이 높을수록 의존성이 학대경험에 미치는 정(+)의 영향이 낮아질 것이다.

5) 여성노인의 가족상황적 요인과 학대경험간 노인상담서비스에 의한 조절효과에 관한 가설

가설5(H_5) : 여성노인의 가족상황적 요인과 학대경험과의 관계에서 노인상담서비스가 가족상황적요인에 영향을 미쳐 학대경험을 조절 할 것이다.

(1) 부양자의 부양부담과 학대경험 간의 조절효과에 관한 가설

부양부담에는 부모의 의존성에 의한 경제적 부담(특히 의료비부담)과 수발부담, 직장에서의 능률저하, 사생활의 제약, 부부생활 및 자녀양육의 제문제점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중 경제적 부담과 수발부담이 가장 심각하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서비스(프로그램)는 의료비를 비롯한 경제적 부담측면에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 저소득 국민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의료문제 해결을 돕는 의료급여제도, 노인건강진단 사업, 방문간호사업 등 과 함께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에게 제공하는 주택상속세 공제 등 각종 세제혜택과 아파트 분양 시 혜택부여 등, 수발부담측면에서 가정 봉사원 파견서비스(노인 돌보미 바우처(Voucher)), 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등을 통하여 부양자의 부양부담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노인상담서비스의 수준이 높을수록 부양부담의 정도가 낮아질 것이다’라는 노인상담서비스와 부양부담과의 이론적 관련성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련성이 받아들여진다면 부양부담의 정도는 노인상담서비스의 제공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선행연구로는 의존적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은 급증하고 있는 가족구성원에 의한 학대를 예방하고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연호, 2005:175-176). 수발부담이 큰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에게는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나 방문간호서비스 등과 같은 재가복지 서비스를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부모부양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가정에게는 노인가족수당 지급, 부양자에게 취업기회 우선 제공과 같은 경제적 지원책을 주어 부양부담을 덜어 주어야 할 것이다(장은실, 2005:59).

이상을 근거로 노인상담서비스는 부양자의 부양부담의 정도에 영향을

주어 학대경험을 조절하는 것으로 제안한다. 즉, 노인상담서비스의 (제공) 수준이 높다면 부양자의 부양부담의 정도가 낮아져 학대경험의 정도가 낮아질 것이고, 이와 반대로 낮다면 학대경험의 정도가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양자의 부양부담은 노인상담서비스의 수준에 따라 학대경험 정도의 증가나 감소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5-1(H_{51}) : 노인상담서비스 수준이 높을수록 부양자의 부양부담이 학대경험에 미치는 정(+)의 영향이 낮아질 것이다.

(2) 여성노인의 가족결속력과 학대경험 간의 조절효과에 관한 가설

많은 연구결과에 의하면, 주부양자들은 노인을 부양한 이후로 노인과의 관계 및 가족성원과의 관계가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등 가족관계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부양자와 피부양자사이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요인이나 힘의 갈등은 노인학대의 원인이 된다. 예를 들어, 이들 상호관계가 생활을 같이 하면서 직면하는 어려운 상황에 의해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고, 여성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딸 혹은 며느리는 가사일, 자녀 양육방식 등에 있어 노인과 갈등이 생길 수 있으며, 세대간 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상호간의 이해력 부족 및 의사소통의 단절이 일어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서비스는 노인을 부양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역기능적 가족 상호작용의 연쇄과정을 파악하여 이를 변화시킴으로서 전체 가족의 변화를 일으키는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서비스,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성원들이 서로가 경험하는 부양부담을 공유하고 상호지지 함으로써 노인에게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와 함께 노인과 효과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교육 및 자조집단프로그램, 그리고 여성노인의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의식 및 자아 존중감을 제고할 수 있는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개인상담 등을 통하여 여성노인의 가족결속력을 어느 정도 높힐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노인상담서비스의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결속력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노인상담서비스와 가족결속력과의 이론적 관련성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련성이 받아들여진다면 가족결속력

은 노인상담서비스의 제공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선행연구로는 고보선(2005)의 연구에서 노인과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가 약할수록 노인은 학대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서 볼 때, 이들 간의 관계 개선을 통한 세대간 긍정적 교류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가족 및 세대통합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조선일보사에서 개최한 노인문제관련 전문가좌담회에서 황진수(2008)는 “1·3세대를 아우르는 복지관 건립 등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또 노인과 다른 세대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한은주(2006)는 일반적인 노인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의존성 자체가 노인을 학대위기에 처하게 한다고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유지해 온 자녀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가 노인의 학대경험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강하지 못한 노모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나 의존적인 노인을 위한 노인시설 및 재가노인 복지기관의 확충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과 더불어, 세대간의 갈등을 줄이고, 관계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사회적, 복지적 및 예방적 교육의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을 근거로 상담서비스는 여성노인의 가족결속력에 영향을 주어 학대경험을 조절하는 것으로 제안한다. 즉, 노인상담서비스의 (제공)수준이 높다면 가족결속력이 높아져 학대경험의 정도가 더욱 낮아질 것이고, 이와 반대로 낮다면 학대경험의 정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노인의 가족결속력은 노인상담서비스의 수준에 따라 학대경험정도의 증가나 감소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5-2(H_{52}) : 노인상담서비스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결속력이 학대경험에 미치는 부(-)의 영향이 높아질 것이다.

6) 여성노인의 사회문화적 요인과 학대경험간 노인상담서비스에 의한 조절효과에 관한 가설

가설6(H_6) : 여성노인의 사회문화적 요인과 학대경험과의 관계에서 노인상담서비스가 사회문화적 요인에 영향을 미쳐 학대경험을 조절할 것이다.

(1) 여성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학대경험 간의 조절효과에 관한 가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학대를 받을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이웃, 친구, 그 외 친척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도움 또는 중재를 받기가 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노인은 사회적 지원망이 남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남편과 일찍 사별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더더욱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다. 따라서 여성노인은 교육수준이나 사회와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낮아 세대간의 갈등과 마찰로 인해 고립되기 쉬우므로 학습프로그램이나 자원봉사활동 등을 실시하여 세대간의 통합이 절실하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상담서비스는 상담과정을 통해 여성노인의 개인적·가족적·신체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함과 더불어 여성노인의 발달과정을 지지하고 격려하여 효과적으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돕는 여가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 학습활동 등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여성노인의 사회적 고립의 정도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노인상담서비스의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고립의 정도가 낮아질 것이다’라는 노인상담서비스와 사회적 고립과의 이론적 관련성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련성이 받아들여진다면 사회적 고립의 정도는 노인상담서비스의 제공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선행연구로는 한은주(2006)의 연구에서 노인학대를 예방 및 감소시키기 위해 여성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에게 알맞은 직종이나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교육시키는 등 여성노인이 사회적으로 위축되지 않는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황진수(2008)는 “노인들이 하루 13명씩 자살하고 있다. 빈곤과 질병, 가족과의 갈등이 원인이다. 노인들은 사회와 가정에 대해 분노와 서운함, 소외감을 갖고 있다. 노인이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사회적 지원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김태식(2007)의

연구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노인 자신도 사회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감을 회복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접촉함으로써 현실감각도 생기고 무엇보다도 역할 상실로부터 오는 소외감 및 고독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을 근거로 상담서비스는 여성노인의 사회적 고립의 정도에 영향을 주어 학대경험을 조절하는 것으로 제안한다. 즉, 노인상담서비스의 수준이 높다면 여성노인의 사회적 고립이 정도가 낮아져 학대경험의 정도가 낮아질 것이고, 이와 반대로 낮다면 학대경험의 정도가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노인의 사회적 고립은 상담서비스의 수준에 따라 학대경험 정도의 증가나 감소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6-1(H_{61}) : 노인상담서비스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고립이 학대경험에 미치는 정(+)의 영향이 낮아질 것이다.

(2) 여성노인의 사회적 차별과 학대경험 간의 조절효과에 관한 가설

노인들은 통상적으로 인종이나 성을 바탕으로 한 차별과 마찬가지로 능력의 직접적 평가가 아닌 노인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무능력하고 쓸모없다는 이유로 사회의 많은 활동에서 차별 내지 배제되고 있다 더군다나 여성들은 성차별이라는 이중차별까지 겪고 있다. 예를 들면 노동시장에서도 단순노동, 임시직 등 매우 열악한 직종 및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고 고용과 승진, 배치면에서의 차별도 받고 있다. 이는 여성노인 역시 자신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고 결국 이러한 자아존중에 대한 감퇴는 부양자에게서 무시당하게 되어 여성노인과 부양자의 결속력은 더욱 낮아져 학대의 경향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상담서비스는 개인상담 과정을 통해 자아 존중감의 증진, 문제해결능력의 향상, 상실에 대한 대처 능력 등을 제고시킬 수 있고, 아직 미흡하지만 취업알선 및 공동작업 설치, 직업훈련, 노인복지기관 및 노인정, 노인교실²³⁾운영 등 여성 노인들에게 여가선용 및 소득을 올릴

23) 노인교실이란 노인교육전담기관, 대학, 사회 및 종교단체, 개인 등이 설립 운영하는 노인교육 시설을 말한다. 이 노인교실은 대개 교육이나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겸해서 실시하고 있다(황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자원봉사자와의 정기적 접촉을 통해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어 사회적 소외감과 피해의식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제공 등을 통하여 여성노인의 사회적 차별의 정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노인상담서비스의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차별(경험)의 정도가 낮아질 것이다’라는 노인상담서비스와 사회적 차별과의 이론적 관련성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련성이 받아들여진다면 사회적 차별(경험)의 정도는 노인상담서비스의 (제공)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선행연구로는 황진수(2008)는 조선일보 노인문제관련 좌담회에서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일본은 기업들에 전체 직원의 6%를 노인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의 고령자고용촉진법은 2~6% 고용을 ‘권고’하는 수준이다. 향후 법적인 강제조항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명선영(2001)은 여성은 ‘인간으로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전통적인 가부장제의 남성우월주위로 의해서 생애 동안 차별을 받아왔고, 따라서 여성노인의 문제를 단순히 남성노인과 동일한 노년기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여성노인이 갖고 있는 특유의 문제로 파악하고 여성복지적 차원에서 접근이 보다 필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상을 근거로 노인상담서비스는 여성노인의 사회적 차별(경험)의 정도에 영향을 주어 학대경험을 조절하는 것으로 제안한다.

즉, 상담서비스의 수준이 높다면 여성노인의 사회적 차별의 정도가 낮아져 학대경험의 정도가 낮아질 것이고, 이와 반대로 낮다면 학대경험의 정도가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노인의 사회적 차별은 노인상담서비스의 수준에 따라 학대경험 정도의 증가나 감소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6-2(H_{62}) : 노인상담서비스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차별이 학대경험에 미치는 정(+)의 영향이 낮아질 것이다.

진수, 2005:109).

제 2 절 연구설계와 실증분석방법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언급되고 있는 개인적 요인(인구사회학적 특성, 의존성), 가족상황적 요인(부양부담, 가족결속력), 사회문화적 요인(사회적 고립, 사회적 차별) 등의 연구변수들은 연구자의 처한 상황과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거나 해석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 연구변수를 측정하고 검증하기 위해서는 각 변수들마다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최호(2004)는 조작적 정의란 ‘개념적 정의(conceptual definition)를 실제로 관찰 가능한 현상과 연결시켜 구체화시킨 진술로서, 개념을 측정 가능한 언어로 재구성하여 측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송길례,2007:7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노인학대(경험)과 노인학대 위험요인인 개인적 요인, 가족상황적 요인 및 사회문화적 요인, 그리고 조절변수인 노인상담 서비스 요인 등의 연구변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작적 정의를 부여하였다.

1) 독립변수

(1) 개인적 요인

여성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요인으로서 다양한 요소들을 들 수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인구사회적 특성과 의존성으로 구분하여 조작적 정의를 하고 측정하고자 하였다.

① 인구사회학적 특성

한국의 선행연구에서는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포함하는 개인적 특질이 강도 높게 위험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우선 고령의 여성노인이 학대의 주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전길양, 송현애, 1998;한동희, 1996;한동희, 2000;한은주, 2000), 이외에도 노인의 종교, 결혼상태, 교육수준,

가족현황 등이 자주 학대 위험요인과 관련되어 거론되는 요인들이다(이연호, 2005:p.44) 여기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란 ‘성별, 연령, 종교, 결혼상태, 교육수준, 가족현황, 경제수준 등 인구사회학적인 관점에서의 개인적 특성’이라고 정의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측정항목으로는 김창진(2008)이 사용한 9개 척도 중에서 6개척도(예: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종교, 가족현황, 경제수준)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단, 성별척도는 본 연구가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제외됐다.

설문문항은 김창진(2008)의 문항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문항을 작성하였다.

측정항목(척도)	내 용
1. 어르신의 연령은?	①60~64세 ②65~69세 ③70~74세 ④75세~79세 ⑤80세 이상
2. 어르신의 최종학력은?	①무학, 한글해독 ②초등 졸 ③중등 졸 ④고등 졸 ⑤전문대, 대졸 ⑥대학원 이상
3. 어르신의 결혼 상태는?	①미혼 ②기혼 ③별거 ④이혼 ⑤사별 ⑥재혼 ⑦기타
4. 어르신의 종교는?	①불교 ②기독교 ③천주교 ④없음 ⑤기타
5. 어르신의 가족현황은?	①부부만 ②부부+자녀부부 ③부부+미혼자녀 ④ 혼자거주 ⑤시설거주
6. 어르신의 실질적 경제수준은?	①상층 ②중상 ③중층 ④중하 ⑤하층

변 수	조작적 정의	관련연구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 령	김창진(2008)
	교육수준(최종학력)	
	결혼상태	
	종 교	
	가족현황	
	경제수준	

② 의존성

선행연구 고찰 결과 노인의 의존성은 부양자녀의 노부모 학대경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술한 바와 같이 Blenkner(1969)에 따르면 건전한 상태가 아닌 상태, 늙게 되는 상태가 의존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Blenkner의 의존성은 4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첫째, 경제적 의존성(economic dependency) 둘째, 신체적 의존성(physical dependency) 셋째, 정신적 의존성(mental dependency) 넷째, 사회적 의존성(social dependency)으로 나누었다(한동희, 1996:50). 의존도의 측정항목으로는 한동희에 의해 인용된 Blenkner(1969)의 연구와 함께 권중돈(1994)과 Poulshock와 Deimling(1984)가 제시하고 이연호(2000)의 연구를 기반으로 한 고보선(2005)이 사용한 4개 척도(예: 신체 의존, 경제 의존, 정서 의존, 정신 의존)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노인의 사회참여적 문제의 관점에 입각하여 Blenkner의 네 번째 유형(사회적 의존성)을 기초로 1개 척도를 새롭게 작성하였다.

설문문항은 4개 척도에 대해서는 고보선(2005)의 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고, 1개 척도에 대해서는 새롭게 작성하여 다음과 같은 5개 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5)로 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1. 혼자서 식사나 화장실 사용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

2. 혼자서 생활비나 용돈, 치료비를 마련할 수 없다.
3. 부양자녀 등 (부양자)에게 마음을 의지하고 위안을 받는다.
4. 최근의 일을 기억하거나 내 의견을 전달·표현하는데 부양자녀 등의 도움을 받는다.
5. 사회(단체)활동에 참여하거나 친구 등을 방문하는데 부양자녀 등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변수	조작적 정의	관련 연구
의존도	신체 의존	Blenkner(1969)
	경제 의존	한동희(1996)
	정서 의존	권중돈(1994)
	정신 의존	Poulshock와 Deimling(1984)
	사회참여적 의존	이연호(2000) 고보선(2006)

(2) 가족상황적 요인

가족상황적 요인은 부양자와 노인사이의 관계에서 모든 부정적 요인들은 노인학대의 원인이 된다. 이들 중에서도 특히 선행연구에서 관련요인으로 나타난 부양부담과 가족결속력이 노인학대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① 부양부담

노인학대는 가족의 정신병리의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정신적으로 건강한 가족이라도 과도한 부양부담으로 인해 학대적으로 될 수 있다. 특히 노령이나 질병부담으로 인한 노인의 성격변화는 돌보는 가족들을 지치게 하고 의료비용의 과중한 부담 또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다(이해영, 1996:p.306). 전술한 바와 같이 Douglass(1980)는 노인과 부양자 사이의 상호관계에 있어 학대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즉, 첫째 부적절한 경제사정(경제문제), 둘째 부양자 자신의 몸이 불편

한 경우, 셋째 노부모와 부양자 모두 알코올 중독자인 경우, 넷째 적절하지 못한 주거문제, 다섯째 노부모와 성인자녀관계가 적개심으로 가득 찬 경우, 여섯째 노부모를 집에서 부양하는데 도움이 되는 원천이 없거나, 그러한 정보가 없는 경우(나용선, 2005:26) 또한 Steinmetz(1978)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부양자의 자녀들이 진학하는 시기와 그들의 개인적 발전과 경력을 위해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할 때라 하였다(나용선, 2005:27).

본 연구에서는 황진수외(2000)의 연구를 기초로 부양부담이란 ‘주수발자가 노인의 경제적·정서적·신체적 수발을 할 때 노인의 의존성과 인지력 부족으로 인해 받게 되는 스트레스’라고 정의하였다.

부양부담의 측정항목으로는 나용선(2005)에 의해 인용된 Douglass(1980)의 연구에서 언급된 4개 학대가능성(부적절한 경제사정, 부양자 자신의 몸이 불편한 경우, 적절하지 못한 주거문제, 노부모와 성인자녀관계가 적개심으로 가득 찬 경우, 노부모를 부양하는데 도움이 되는 원천이 없는 경우)를 활용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자구 수정하여 5개 척도를 만들었다. 또한 나용선(2005)에 의해 인용된 Steinmetz(1978)의 연구에서 언급된 1개 학대요소(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시기)를 1개 척도로 그대로 사용하였다.

설문문항은 장은실(2005)의 문항을 기준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6개 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5)로 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1. 나는 부양자에게 가정 형편상 경제적 부담이 된다고 생각한다.
2. 나는 몸이 불편한 부양자에게 신체적인 부담이 된다고 생각한다.
3. 나와 동거로 우리(부양자)의 집은 주거공간이 협소하고 복잡하다.
4. 나와 부양자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의 차이로 의견이 충돌된다.
5. 부양자녀는 나 때문에 아이들에게 정신적·신체적·물질적으로 소홀한 경우가 있다.
6. 부양자는 다른 가족원들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 때문에 어디 멀리(휴가나 방문) 다녀올 수가 없다.

변 수	조작적 정의	관련 연구
부양부담	부적절한 경제사정	Douglass(1980) steinmetz(1978) 나용선(2005)
	부양자의 불편한 신체상황	
	적절하지 못한 주거상황	
	세대간의 갈등	
	부양시기의 부적절성	
	가족지원의 부족	

② 가족결속력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모의 자녀에 대한 만족도 등이 노인학대의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노인과 자녀의 관계만족도는 특히 노년기 부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나용선, 2005:24).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결속력이란 ‘부모와 부양자녀 등의 관계, 부모의 부양자 등에 대한 만족도, 부모와 부양자녀 등의 관계만족도 등 부모·부양자관계의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가족 결속력의 측정항목으로는 나용선(2005)이 언급한 2개 위험요인(예: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모의 자녀에 대한 만족도)을 활용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자구수정을 하여 2개 척도를 만들었다. 피부양자 자신의 측면에서 1개 척도(예: 피부양자의 역할의식)을 새롭게 작성하였다.

설문문항은 나용선의 척도 등을 기준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작성하였으며 3개 문항을 전혀그렇지않다(1), 매우그렇다(5)하여 리커트 5점척도로 측정하였다.

1. 나는 부양자녀 등(부양자)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2. 부양자녀 등은 나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해 주는 편이다.
3. 나는 부모로서 내 자신의 역할에 만족한다.

변 수	조작적 정의	관련 연구
가족결속력	부양자와 피부양자간의 결속관계	나용선(2005)
	부양자의 존중의식	
	피부양자의 역할의식	

(3) 사회문화적 요인

선행연구에서 사회문화적 수준에 따라 노인학대의 위험요인으로서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노인의 사회적 차별’을 가장 꼽고 있다.

① 사회적 고립

Kemp(1998)와 Abraham(2000)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사회적 고립이란 ‘노인들의 사회의 노인차별주의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이웃, 친구, 그 외 친척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개인적으로는 정신적·신체적 무능으로 인하여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사회적 고립의 측정항목으로는 박지원(1985)의 사회적지지 척도를 기반으로 한 손에스더(2000)가 사용한 1개척도(예: 사회적 지지망의 크기)를 그대로 인용하였고,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하에 사회적 지지망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1개 척도(예: 여성 노인의 교류 및 사회활동 정도)는 본 연구자가 직접 작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손에스더(2001)의 문항과 장은실(2006)의 문항을 참조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2개 문항을 전혀 그렇지않다(1), 매우 그렇다(5)로 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1. 나는 어려울 때 도움 및 중재를 받을 수 있는 총 9개의 사회지지망(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손자녀, 친척, 친구, 이웃, 사회단체, 전문가 등)중에

서 과반수이상의 사회적 지지망을 갖고 있다.

2. 나는 상기의 사회적 지지망에서 활발하게 교류와 활동을 하는 편이다.

변 수	조작적 정의	관련 연구
사회적 고립	사회적 지지망의 크기	박지원(1985) 손에스더(2001)
	교류 및 사회활동 정도	장은실(2006)

② 사회적 차별

노인학대의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회문화적인 수준에 따라 인종이나 성을 바탕으로 한 차별과 같은 것이 있는데, 이는 바로 노인차별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노인의 사회적 차별이란 ‘능력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가 아닌 노인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노인이 무능력하다는 이유로 사회의 많은 활동으로부터 노인을 배제내지 이탈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노인 차별의 측정항목으로는 Palmore(2001)가 개발한 ‘The Ageism Survey’를 번역하여 사용한 김욱(2002)의 척도를 기반으로 한 고보선(2005)이 사용한 6가지 척도를 활용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본 연구자가 직접 작성하였다.

설문문항은 고보선(2005)의 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다음과 같은 6가지 문항을 전혀 그렇지않다(1), 매우 그렇다(5)로 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1. 노인(나)을 우롱(조롱)하는 농담을 꽤 듣는 편이다.
2. 나이로 인하여 자주 무시를 당하는 편이다.
3. 나이로 인하여 고용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다.

4. 나이로 인하여 돈을 빌리는데 자주 어려움을 당하는 편이다.
5. 나이로 인하여 집을 임차하는데 자주 거절 당하는 편이다.
6. 나이로 인하여 범죄의 대상(희생)이 되는 경우가 꽤 있다.

변 수	조작적 정의	관련 연구
노인차별	노인우롱(조롱)	Palmore(2001) 김 욱(2002) 고보선(2005)
	노인무시	
	노인고용 거절	
	노인 임차난	
	노인 자금유통난	
	노인의 범죄희생	

2) 종속변수

(1) 여성노인학대(경험)

여성노인학대를 정의하고 분류하는 기준은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라, 또는 국가나 민족마다 다르고, 학자와 전문가마다 각기 다양하게 정의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노인학대에 대한 정의나 유형은 보는 관점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여성노인학대란 ‘여성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부양자(성인자녀, 배우자, 사위 등)가 60세 이상의 여성노인에게 의도적·비의도적으로 신체적, 언어·심리(정서)적, 방임, 경제적 학대를 가해서 여성노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구체적인 여성노인학대의 유형은 1.신체적 학대 2.언어·심리(정서)적 학대 3.방임 4.경제적 학대 등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노인학대는 광범위한 세 개의 범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는 가정의 노인학대(Domestic Elder Abuse)와 시설 노인학대(Institutional Elder Abuse), 자기방임(학대)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학대에 대한 보호가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여, 가정 내에서 부양자(성인자녀, 배우자, 사위 등)에 의해 자행되는 가정 내 노인학대로 한정하였다.

이상으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여성노인학대의 유형별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① 신체적 학대 : 신체의 구속, 치기 밀기, 때리기, 상처나 멍, 탈구 등 노인에게 구타와 폭력 등에 의해 신체적 손상 또는 정신적 타격을 일으키는 것
- ② 언어·심리(정서)적 학대 : 자존심에 상처 입히기, 모멸감이나 수치심 주기, 의도적인 무시 및 소외, 위협주기, 고립시키기, 어린이 취급하기, 굴욕이나 멸시주기, 협박하기, 비난하기, 방해·간섭하기 등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 노인에게 정신적 또는 정서적 고통을 주는 것
- ③ 방임 : 의도적으로 보건·복지·의료서비스의 이용을 거부,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 안하기, 생활자원을 주지 않기, 존재조차 잊어버리기 등 부양자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노인들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나 수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것
- ④ 경제적 학대 : 부양자가 노인들의 재산 혹은 금전을 본인의 뜻에 관계없이 불법으로 악용 및 도용하거나 가로채거나 훔치는 것, 또는 용돈이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

여성노인학대 경험의 측정항목으로는 신체적 학대는 권중돈(2002) 및 고보선(2005)의 5개 척도(신체의 구속, 치기 밀기, 때리기, 상처나 멍, 머리채 잡아 뽑기)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언어·심리적 학대는 권중돈(2002) 및 한은주(2006), 손 에스더(2001)의 8개 척도(자존심에 상처 입히기, 모멸, 의도적인 무시 및 소외, 위협, 협박, 고립시키기, 어린이 취급하기, 굴욕이나 멸시)를 그대로 인용하였고, 2개 척도(비난하기, 방해·간섭하기)는 본 연구자가 직접 작성하였다. 방임은 권중돈(2002)의 4개 척도(의도적으로 필요한 보건·복지·의료서비스의 이용을 거부,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 안하기, 생활자원을 주지 않기, 존재조차 잊어버리기)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경제적 학대는 권중돈(2002) 및 황길현(2003)의 5개 척도(용돈이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 무단으로 사용, 금전이나 재산을 노인의 뜻에

관계없이 이전하는 것, 돈의 악용, 훔치기)를 본 연구의 맞게 자구수정을 하였다.

설문문항은 손에스더(2001)와 고보선(2005) 등의 문항을 기준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24개 문항을 전혀 없다(1), 항상 있다(5)로 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I. 신체적 학대

1. 나를 일정기간 방박으로 나오지 못하게 가두는 행위
2. 나를 밀어서 넘어뜨리는 행위
3. 손바닥으로 나의 뺨을 때리는 행위
4. 나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쳐서 상처를 입히는 행위
5. 나의 머리채를 잡거나 움켜잡아 뽑히는 경우

II. 언어·심리(정서)적 학대

1. 나를 부양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내 앞에서 노골적으로 말하는 행위
2. 자주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여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3. 가족모임이나 집안일에 대한 결정에서 고의로 나를 소외시키는 행위
4. 내가 보는 앞에서 자주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면서 화풀이를 하는 행위
5. 나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하는 행위
6. 나를 어린애 취급하는 행위
7. 내가 없어 주었으면 하는 느낌을 갖게 하는 행위
8. 나에게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9. 실금(실변, 요실금과 실변)등으로 인한 실수를 비난 하는 행위
10. 나의 일상적 사회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III. 방 입

1.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2. 나의 몸이나 옷 또는 주변 환경이 더러워도 불결하게 방치하거나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상황인데도 내버려 두는 행위

3.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보기, 보청기, 틀니 등 필수적인 보장구를 제대로 마련해 주지 않는 행위
4. 나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

IV. 경제적 학대

1. 생활하는데 필요한 용돈이나 생활비 등을 주지 않는 행위
2. 나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과 같은 재산권을 행사하는 행위
3. 현금이나 임대료 등 나의 소득을 가로채는 행위
4. 나에게서 빌린 목돈을 갚지 않는 행위
5. 보석 등 나의 값나가는 물건을 훔치는 행위

변 수	조작적 정의	관련 연구
신체적 학대	신체의 구속	권중돈 (2002)
	치기 밀기	
	때리기	
	상처나 멍	
	머리채 잡아 뽑기	
언어·심리(정서)적 학대	자존심에 상처 입히기	황길현 (2003)
	모멸감이나 수치심 주기	
	의도적인 무시 및 소외	
	위협주기	손에스더 (2001)
	고립시키기	
	어린이 취급하기	고 보 선 (2005)
	굴욕이나 멸시주기	
	협박하기	한은주 (2006)
	비난하기	
방임	방해·간섭하기	
	의도적으로 보건·복지·의료서비스의 이용을 거부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 안하기	
	생활자원을 주지 않기	
	존재조차 잊어버리기	

경제적 확대	생활비나 용돈 등을 주지 않기	
	재산 도용	
	재산 가로채기	
	재산 악용	
	훔치기	

3) 조절변수

(1) 노인상담서비스

노인 상담서비스는 노인이 직면한 심리·정서적 지지와 안정뿐만 아니라 노인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나 프로그램 제공 및 중재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김태식(2007)의 연구를 인용하여 노인상담서비스를 ‘노인에게 상담제공은 물론이고 이에 필요한 상담프로그램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앞서 언급된 노인상담서비스의 영역은 노인문제영역에 따라 ①경제적 문제관련상담(생계 및 취업상담(프로그램)) ②신체적 문제관련 상담(건강 및 의료상담(프로그램)) ③정서적 문제관련 상담(심리 및 가족상담(프로그램)) ④사회참여적 문제관련상담(봉사 및 여가활동 상담(프로그램)) ⑤정보적 문제관련상담(복지혜택 및 법률상담(프로그램)) 등의 5가지 영역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보편적으로 복지(상담)서비스는 인지도, 이용도 및 만족도 등의 측면에서 평가·분석되는데(김태식, 2007:50), 본 연구에서는 인지도가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인지도가 낮을 경우, 이는 곧 저조한 이용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의 인지도 의미가 더욱 크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편의상 상담서비스의 인지도는 제외시켰다. 이는 노인상담서비스의 이용도 및 만족도를 측정도구를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상담서비스수준의 측정항목으로는 김태식(2007) 및 김진희(2007)의 연구를 참조한 노인상담서비스의 영역을 기초로 위에서 언급한 이용도 및 만족도를 통합하여 10개 척도(생계 및 취업상담 이용도, 건강 및 의료상담 이용도, 심리 및 가족상담 이용도, 봉사 및 여가활동상담 이용도, 복지혜택 및 법률상담 이용도, 생계 및 취업상담 만족도, 건강 및 의료상담 만족도, 심리 및 가족상담 만족도, 봉사 및 여

가활동상담 만족도, 복지혜택 및 법률상담 만족도)를 본 연구자가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직접 작성하였다.

설문문항은 김태식(2007), 김진희(2007)의 문항을 기초로 본 연구자가 재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10개의 문장을 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5)로 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1. 나는 생계마련이나 취업알선, 부업알선 등에 대한 상담(프로그램)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2. 나는 건강유지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상담이나 질병치료 및 의료비 지원 상담(프로그램)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3. 나는 소외감 등에 관한 심리상담이나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에 관한 상담(프로그램)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4. 나는 사회봉사활동 등에 관한 상담이나 각종의 여가 활동에 관한 상담(프로그램)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5. 나는 각종 사회복지혜택이나 법률문제에 관한 상담(프로그램)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6. 생계마련을 위한 상담이나 취업알선, 부업알선 등에 대한 상담(프로그램)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었다.
7. 건강유지 및 질병예방을 위한 상담이나 질병 치료 및 의료비 지원 상담(프로그램)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었다.
8. 소외감 등에 관한 심리상담이나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에 관한 상담(프로그램)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었다.
9. 각종 사회봉사활동 등에 관한 상담이나 여가활동에 관한 상담(프로그램)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었다.
10. 각종 사회복지혜택이나 법률문제에 관한 상담(프로그램)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었다.

변 수	조작적 정의	관련 연구
노인상담서비스(수준)	생계 및 취업상담 이용도	김태식(2007)
	건강 및 의료상담 이용도	

	심리 및 가족상담 이용도	김진희(2007)
	봉사 및 여가활동상담 이용도	
	복지혜택 및 법률상담 이용도	
	생계 및 취업상담 만족도	
	건강 및 의료상담 만족도	
	심리 및 가족상담 만족도	
	봉사 및 여가활동상담 만족도	
	복지혜택 및 법률상담 만족도	

2.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이론적 배경하에 60세 이상의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이들 중 학대경험이 있는 여성노인들만 분석대상으로 하여 노인학대의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위험요인과 노인학대와의 관련성 및 이때 노인상담서비스가 조절변수로서 관여할 경우 그 관련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조사지역은 서울시를 지역간의 편차를 고려하여 서부(은평구), 북부(노원구), 중앙(종로구), 남부(영등포구), 동부(중랑구) 등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이들 권역에 소재하는 노인(종합)복지기관 5개와 관내 경로당 5개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자는 조사실시 전 3명의 아르바이트 학생으로 구성된 조사원들에게 조사내용 및 방법, 그리고 설문조사시 유의사항, 즉 여성노인들에게 무기명이라 비밀이 보장되고 이들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본 설문조사의 취지를 주지시키고, 노인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시각장애나 문맹의 노인인 경우 설문문항을 그대로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쉽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필요시 사례를 들어 이해시켜야 한다는 점 등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자와 조사원들이 여성노인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개별면담을 실시, 총300부(노인복지회관 200부, 경로당 1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94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학대경험이 없는 설문지를 제외한 142부(노인복지회관 79부, 경로당 63부)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와 관련,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을 선택한 이유는 이들 기관이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상담서비스 기관으로서 소정의 노인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다수의 노인을 접촉할 수 있으며, 특히 노인상담서비스의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표본 집단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 이용노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는 2008년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본 연구자와 조사원들이 해당기관에 설문조사에 대한 협조를 구한 후 이용여성노인들에게 설문지를 직접 배포하고 직접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3. 분석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SPSS WIN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표본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 및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가설 H_{11} 은 학대(유형), 즉 신체적 학대, 언어·심리적 학대, 방임, 경제적 학대, 전체학대의 각각이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t(F)검증 또는 분산분석(ANOVA)검증을 하였다. 분산분석 후 Duncan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가설 H_{12} 는 의존성이 여성노인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의존성을 독립변수로, 학대(유형)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연구가설 H_{21} 은 부양부담이 여성노인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부양부담을 독립변수로, 학대(유형)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

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연구가설 H_{22} 는 가족결속력이 여성노인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가족결속력을 독립변수로, 학대(유형)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곱째, 연구가설 H_{31} 는 사회적 고립이 여성노인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회적 고립을 독립변수로, 학대(유형)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덟째, 연구가설 H_{32} 는 사회적 차별이 노인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회적 차별을 독립변수로, 학대(유형)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홉째, 연구가설 H_{41} 는 여성노인의 의존성과 학대(유형), 즉 신체적 학대, 언어·심리적 학대, 방임, 경제적 학대, 전체학대의 각각과의 관계는 노인상담서비스의 수준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의존성을 독립변수, 그리고 상담서비스를 조절변수로 하고, 학대경험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열번째, 연구가설 H_{51} 는 여성노인의 부양부담과 학대(유형)와의 관계는 노인상담서비스의 수준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양부담을 독립변수, 그리고 상담서비스를 조절변수로 하고, 학대경험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열한번째, 연구가설 H_{52} 는 여성노인의 가족결속력과 학대(유형)와의 관계는 노인상담서비스의 수준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가족결속력을 독립변수로, 상담서비스를 조절변수로 하고, 학대경험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열두번째, 연구가설 H_{61} 은 여성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학대(유형)와의 관계는 노인상담서비스의 수준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회적 고립을 독립변수, 그리고 상담서비스를 조절변수로 하고, 학대 경험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열세번째, 연구가설 H_{62} 은 여성노인의 사회적 차별과 학대(유형)와의 관계는 노인상담서비스의 수준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회적 차별을 독립변수, 그리고 상담서비스를 조절변수로 하고, 학대 경험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제 4 장 실증분석결과 논의

제 1 절 실증조사자료의 분석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일반적 특성은 <표 4-1>과 같다.

먼저 연령은 70~74세 이하가 40명으로 28.2%, 75~79세 이하가 33명으로 23.2%, 65~69세 이하가 32명으로 22.5%, 80세 이상이 29명으로 20.4%, 60~64세 이하가 8명 5.6%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초등 졸이 58명으로 41.4%, 무학이 32명으로 22.9%, 고등 졸이상이 26명으로 18.6%, 중등 졸이 24명으로 17.1%의 순이었다.

결혼상태의 경우 사별이 73명으로 52.9%, 기혼이 61명으로 44.2%, 기타가 4명으로 2.9%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불교가 44명으로 31.7%, 다음으로 무교가 37명으로 26.6%, 천주교 31명으로 22.3%, 기독교 27명으로 19.4%로 나타났다.

가족(동거)현황을 보면 부부+자녀부부가 47명으로 33.6%, 혼자 생활한다가 42명으로 30.0%, 부부만 생활하다가 39명으로 27.9%, 부부+미혼자녀가 12명으로 8.6%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의 경우 중하가 57명으로 41.0%, 중충이 37명 26.6%, 하가 32명 23.0%, 중상이상이 13명으로 9.4%로 나타났다.

<표 4-1>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구분	내용	표본수	비율(%)
연령	60~64세이하	8	5.6
	65~69세이하	32	22.5
	70~74세이하	40	28.2
	75~79세이하	33	23.2
	80세이상	29	20.4
	합계	142	100.0
교육수준	무학	32	22.9
	초등졸	58	41.4
	중등졸	24	17.1
	고졸이상	26	18.6
	합계	140	100.0
결혼상태	기혼	61	44.2
	사별	73	52.9
	기타	4	2.9
	합계	138	100.0
종교	불교	44	31.7
	기독교	27	19.4
	천주교	31	22.3
	무교	37	26.6
	합계	139	100.0
가족(동거)현황	부부만 생활	39	27.9
	부부+ 자녀부부	47	33.6
	부부+ 미혼자녀	12	8.6
	혼자거주	42	30.0
	합계	140	100.0
경제수준	중상이상	13	9.4
	중층	37	26.6
	중하	57	41.0
	하	32	23.0
	합계	139	100.0

* 무응답으로 사례수가 다를 수 있음

2. 여성노인학대 실태

전체 조사대상자 여성노인 294명 중 학대를 경험한 여성노인은 142명으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48%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표 4-2참조). 이는 여성노인의 거의 반수가 학대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으로 학대경험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 여성노인학대 문제가 더 이상 간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노인복지기관의 이용 여성노인들은 노인학대 경험 비율이 ‘없음’ 40.0%와 ‘있음’ 27.0%로 ‘없음’이 ‘있음’보다 훨씬 많은 반면, 경로당의 이용여성노인들은 ‘없음’ 12.0%와 ‘있음’ 21.0%로 ‘있음’이 ‘없음’의 약 2배 정도로 경로당 이용여성노인들의 학대경험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여성노인이 노인복지기관 이용여성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존도가 높은 고령의 여성이 많다는 점에도 부분적으로 기인할 수 있겠지만, 경로당의 상담 서비스의 기능과 수준이 노인복지관에 비해 매우 떨어진다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도 있겠다.

<표 4-2> 표본의 학대경험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

구분			빈도	%
학 대 경 험	노인복지기관	없음	116	40.0
	경로당		36	12.0
	소계		152	52.0
	노인복지기관	있음	79	27.0
	경로당		63	21.0
	소계		142	48.0
	총계		294	100.0

3. 표본과 관련된 체계변인 및 학대경험의 일반적 경향

1) 체계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조사대상자들이 지각하고 있는 개인적체계(의존성), 미시체계(부양부담, 가족결속력), 외체계(노인상담서비스), 거시체계(사회적 고립, 사회적 차별)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표 4-3>와 같다.

먼저 개인적 체계변인인 의존성을 보면 2.84점(5점 만점)으로 ‘보통이다(3점)’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을 보여 여성노인의 의존성이 약간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한은주(2006)의 연구에서의 평균 1.96점 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는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의존성이 높은 고령의 여성노인이 많이 증가한 한국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시체계변인인 부양부담은 2.40점(5점 만점)으로 중간치 이하의 수준을 보여 부양자의 부양부담의 정도는 다소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노인의 의존성(2.84)에 비해 부양부담(2.40)은 다소 낮게 인식하는 주관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결속력은 3.19점(5점 만점)으로 ‘보통이다(3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이연호(2005)의 연구에서의 평균 2.81점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때 학대에 노출된 노인에게 있어서 가족구성원들 간의 결속력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임을 예측할 수 있다.

외체계 변인인 노인상담서비스수준은 2.02점(5점 만점)으로 중간치 이하의 수준을 보여 여성노인의 상담서비스 수준에 대한 인식이 다소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노인상담서비스수준이 품질이나 전달체계 면에서 아직 미흡하고 개선할 여지가 많은데다가 노인상담기관들 중 특히 경로당의 현주소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거시체계변인인 사회적 고립인 2.60점(5점 만점)으로 중간치에 다소 못미치는 수준을 보여 여성노인의 고립성이 다소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자를 노인복지기관이나 노인정을 이용하는 여성노인들로 한정해 본 조사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차별은 2.23점(5점 만점)으로 중간치에 상당히 하회하는 수준을 보여 여성노인의 사회적 차별이 꽤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은주(2006)의 연구에서의 평균 3.71점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차이 역시 아파트단지 내 경로당이나 파고다공원 등에 있는 일반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은주(2006)의 조사와 달리 조사대상자 전원을 노인상담서비스를 이용하는 여성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본 조사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표 4-3> 조사대상자들과 관련된 체계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변인		M	SD
개인적 체계 (개인적 요인)	의존성	2.84	.77
미시체계 (가족상황적 요인)	부양부담	2.40	.70
	가족결속력	3.19	.78
외체계 (노인상담서비스 요인)	전체 상담서비스 수준	2.02	.91
거시체계 (사회문화적 요인)	사회적 고립	2.60	.92
	사회적 차별	2.23	.72

2) 조사대상자들의 학대경험의 일반적 경향

조사대상자들의 학대경험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4>와 같다. 방임이 1.62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언어·심리적 학대 1.41(5점 만점), 경제적 학대 1.29점(5점 만점), 신체적 학대(1.06점)의 순이며, 전체학대경험수준은 1.33점(5점 만점)으로 전반적으로 조사대상자들의 학대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겉으로는 아직까지 가정 내 학대가 심각하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전체 학대경험수준이 낮은 이유를 추론해 본다면 우리나라의 ‘효’를 중심으로 한 전통윤리사상과 사회문화적인 특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가정 내 학대가 사회적 노출이 어려우며, 은폐 시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여성노인들이 집안일로 치부하는 학대에 대한 인식부족과 함께 우리의 전통문화인 경로효친사상에서 비롯된 수치심과 자존심 그리고 가족주의 등으로 인해 외부노출을 꺼려하고, 또 부양자로부터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등 학대경험의 실상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해경(1993)은 노인학대가 신체적이나 정서적으로 손상된 노인이 가해자와 함께 살고 있거나 가해자에게 의존된 상황에서 발생하기 쉽다는 연구결과가 증명하듯이, 노인학대 문제는 외부로 쉽게 노출될 수 없는 근

본적인 제약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학대가 방임, 언어·심리적 학대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동거)현황에서 방임과 관련이 높은 독거노인의 비율이 30.0%로 매우 높은데다가 다수의 국내 기존연구에서 학대유형 중에서 언어·심리적 학대와 함께 방임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신체적 학대경험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신체적 학대가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다수의 서구의 연구결과와는 판이한 다수의 국내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하나, 이러한 결과가 사실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학대를 탐색하고, 보고하는데 서구에 비해 좀 덜 체계화된 소극적인 태도 때문인지, 경로효친사상을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 때문에 실제로 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은 후속연구의 몫이다. 어느 집단을 대상으로 포함했느냐에 따라서 연구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대개 학대는 한 가지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의 대상노인들이 신체적 학대경험의 정도가 낮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실제로 노인학대 상담전화 1588-9222를 통한 노인학대상담센터의 상담사례를 보면, 대체로 노인학대의 유형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인 방임이 결국 신체적 학대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는 것은 노인학대 유형 중 신체적 학대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4> 조사대상자들의 학대경험의 일반적 경향

변인	M	SD
신체적 학대	1.06	.27
언어·심리적 학대	1.41	.50
방임	1.62	.68
경제적 학대	1.29	.50
전체학대경험	1.33	.36

4. 연구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1) 의존도의 신뢰성 검증 및 타당성 검증

<표 4-5>는 의존도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을 검증한 분석결과이다. 분석결과 의존도요인은 4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아이겐 값은 1.729로 나타났으며, 신뢰도 계수는 0.536로 나타났다. 또한 누적분산비율이 61.733으로 나타나 전체의 61.7%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존도에서 1번 문항은 삭제하고 분석하였다.

<표 4-5> 의존도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결과

항목	요인적재치	아이겐값	% 분산	% 분산(누적)	신뢰도 계수
의존도2	.516	1.729	43.231	61.733	.536
의존도3	.511				
의존도4	.794				
의존도5	.776				

2) 부양부담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표 4-6>는 부양부담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을 검증한 분석결과이다. 분석결과 아이겐 값은 2.713로 나타났으며, 신뢰도 계수는 0.756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누적 분산 비율이 68.492로 나타나 전체의 68.5%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양부담에서 모든 문항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표 4-6> 부양부담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결과

항목	요인적재치	아이겐값	%분산	% 분산(누적)	신뢰도 계수
부양부담1	.735	2.713	45.516	68.492	.756
부양부담2	.605				
부양부담3	.713				
부양부담4	.641				
부양부담5	.662				
부양부담6	.684				

3) 가족결속력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표 4-7>는 가족결속력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을 검증한 분석결과이다. 분석결과 아이겐 값은 2.035로 나타났으며, 신뢰도 계수는 0.763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누적 분산 비율이 67.849로 나타나 전체의 67.8%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결속력에서 모든 문항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표 4-7> 가족결속력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결과

항목	요인적재치	아이겐값	% 분산	% 분산(누적)	신뢰도 계수
가족결속력1	.851	2.035	67.849	67.849	.763
가족결속력2	.891				
가족결속력3	.719				

4) 사회적 고립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표 4-8>는 사회적 고립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을 검증한 분석결과이다. 분석결과 아이겐값은 1.656로 나타났으며, 신뢰도 계수는 0.792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누적 분산 비율이 82.794로 나타나 전체의 82.8%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고립에서 모든 문항을 포

함하여 분석 하였다.

<표 4-8> 사회적 고립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결과

항목	요인적재치	아이겐값	% 분산	% 분산(누적)	신뢰도 계수
사회적 고립1	.910	1.656	82.794	82.794	.792
사회적고립2	.910				

5) 사회적 차별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표 4-9>는 사회적 차별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을 검증한 분석결과이다. 분석결과 아이겐 값은 2.971로 나타났으며, 신뢰도 계수는 0.786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누적 분산 비율이 45.509로 나타나 전체의 45.5%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차별에서 모든 문항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표 4-9> 노인차별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결과

항목	요인적재치	아이겐값	% 분산	% 분산(누적)	신뢰도 계수
사회적차별1	.545	2.971	45.509	45.509	.786
사회적차별2	.723				
사회적차별3	.774				
사회적차별4	.845				
사회적차별5	.646				
사회적차별6	.648				

5) 노인상담서비스 수준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표 4-10>는 노인상담서비스수준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을 검증한 분석결과이다. 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완성된 노인상담서비스수준요인은 상

답서비스 1번 문항을 삭제한 후 구성되었다. 이 요인의 아이겐값은 5.901으로 나타났으며, 신뢰도 계수는 0.93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누적 분산 비율이 65.569로 나타나 전체의 65.6%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노인상담서비스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결과

항목	요인적재치	아이겐값	% 분산	% 분산(누적)	신뢰도 계수
상담서비스2	.729	5.901	65.569	65.569	.934
상담서비스3	.697				
상담서비스4	.832				
상담서비스5	.813				
상담서비스6	.715				
상담서비스7	.890				
상담서비스8	.863				
상담서비스9	.898				
상담서비스10	.823				

6) 학대경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표 4-11>는 학대경험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을 검증한 분석결과이다. 분석결과 학대경험은 4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문항개발 절차에 의해 최종적 완성된 각 영역별로 문항 구성은 신체학대 5문항, 언어·심리학대는 5,6,9,10번 문항을 삭제하고 6문항, 방임은 4번 문항을 삭제하고 3문항, 경제적 학대는 1번 문항을 제외하고 4문항으로 분석되었다. 각각의 추출된 요인의 아이겐 값과 신뢰도 계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체학대는 5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아이겐 값은 6.901로 나타났으며, 신뢰도 계수는 0.836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언어학대는 6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아이겐 값은 2.496로 나타났으며, 신뢰도 계수는 0.80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방임은 3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아이겐 값은 1.659로 나타났으며, 신뢰도 계수는 0.705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학대는 4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아이겐 값은 1.123로 나타났으며, 신뢰도 계수는 0.763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학대경험의 신뢰도 계수는 .86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4-11> 학대경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결과

항목	요인적재치	아이겐값	% 분산	% 분산(누적)	신뢰도 계수	전체신뢰도 계수
신체학대1	.724	6.901	33.337	33.255	.836	.861
신체학대2	.782					
신체학대3	.772					
신체학대4	.789					
신체학대5	.501					
언어학대1	-.250	2.496	13.868	52.206	.804	
언어학대2	-.305					
언어학대3	-.134					
언어학대4	-.294					
언어학대7	-.145					
언어학대8	-.242					
방임1	.259	1.659	9.219	61.425	.705	
방임2	.274					
방임3	.328					
경제적학대2	-.124	1.123	6.240	67.665	.763	
경제적학대3	-.421					
경제적학대4	-.326					
경제적학대5	-.178					

제 2 절 가설의 검증

1. 가설 1검증

H_1 : 여성노인의 개인적 요인은 학대경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가설 1-1 검증

H_{11} :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학대경험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1은 여성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학대경험이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학대경험을 종속변수로 하여 t(F)검증, 사후검증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12>에 제시되었다.

먼저 연령의 경우 언어·심리적 학대, 방임, 경제적 학대, 전체학대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언어·심리적 학대의 경우 80세 이상인 집단이 나머지 다른 연령 대 집단의 여성노인보다 언어·심리적 학대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방임에서는 60~64세 집단과 80세 이상인 집단이 다른 연령 대 집단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경제적 학대에서는 80세 이상인 집단이 다른 연령 대 집단보다 학대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학대정도에서도 80대 이상인 집단이 다른 연령 대 집단보다 학대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한편, 교육수준의 경우 언어·심리적 학대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학과 초등 졸 집단이 중등 졸, 고등 졸 이상인 집단보다 언어·심리적 학대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결혼상태의 경우에서도 언어·심리적 학대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기타집단(이혼 및 별거)이 기혼과 사별인 집단보다 학대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그 외 종교, 가족(동거)현황, 경제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1-1은 일부 채택되었다.

<표 4-1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학대정도의 차이

변인	신체적학대			언어심리적학대			방임			경제적학대			전체학대		
	M(±SD)	F	D	M(±SD)	F	D	M(±SD)	F	D	M(±SD)	F	D	M(±SD)	F	D
연령															
60~64세	1.00(.00)			1.13(.32)		A	2.00(.21)		B	1.13(.56)		A	1.31(.47)		A
65~69세	1.10(.39)			1.29(.37)	5.65***	A	1.49(.51)	3.47**	A	1.35(.57)	7.01***	A	1.30(.34)	4.98**	A
70~74세	1.11(.36)	1.01		1.29(.27)		A	1.40(.41)		A	1.19(.42)		A	1.22(.26)		A
75~79세	1.02(.06)			1.44(.43)		A	1.52(.45)		A	1.14(.25)		A	1.28(.24)		A
80세이상	1.01(.05)			1.84(.67)		B	2.12(.62)		B	1.54(.57)		B	1.58(.57)		B
교육수준															
무학	1.01(.15)			1.55(.55)		A	1.75(.34)			1.34(.65)			1.39(.20)		
초등졸	1.06(.34)	1.07		1.45(.54)	2.96*	A	1.63(.43)	.53		1.30(.32)	1.28		1.34(.37)	1.51	
중등졸	1.10(.49)			1.32(.49)		B	1.63(.67)			1.25(.32)			1.33(.44)		
고등졸이상	1.28(.56)			1.20(.32)		B	1.41(.86)			1.28(.39)			1.20(.28)		
결혼상태															
기혼	1.06(.28)			1.27(.39)		A	1.49(.86)			1.22(.65)			1.26(.36)		
사별	1.03(.08)	.49		1.50(.51)	4.64*	A	1.69(.77)	.56		1.31(.44)	1.85		1.37(.39)	2.10	
기타 (이혼, 별거)	1.00(.00)			1.67(.25)		B	1.83(.23)			1.31(.76)			1.45(.23)		
종교															
불교	1.18(.44)			1.42(.34)			1.62(.67)			1.31(.38)			1.35(.44)		
기독교	1.03(.16)	1.75		1.41(.37)	.29		1.58(.33)	.35		1.19(.23)	.68		1.29(.24)	.55	
천주교	1.01(.07)			1.34(.39)			1.49(.67)			1.21(.54)			1.26(.24)		
무교	1.03(.10)			1.45(.65)			1.63(.39)			1.33(.59)			1.35(.34)		
가족현황															
부부만															
부부 + 자녀 부	1.16(.48)			1.30(.36)			1.51(.73)			1.32(.53)			1.30(.46)		
부	1.10(.05)	1.75		1.46(.55)	.95		1.65(.54)	.66		1.24(.44)	.46		1.45(.34)	.34	
부부 + 미혼자	1.00(.00)			1.46(.24)			1.56(.59)			1.25(.43)			1.27(.46)		
녀	1.03(.09)			1.45(.53)			1.71(.33)			1.22(.41)			1.36(.47)		
혼자거주															
경제수준															
중상이상	1.17(.45)			1.21(.43)			1.59(.83)			1.33(.70)			1.33(.51)		
중층	1.05(.33)	1.04		1.47(.49)	1.67		1.57(.64)	.22		1.31(.47)	.16		1.36(.43)	.23	
중하	1.06(.25)			1.48(.53)			1.66(.56)			1.31(.49)			1.34(.34)		
하	1.01(.05)			1.36(.38)			1.63(.68)			1.23(.51)			1.29(.24)		

* p<.05, **p<.01, ***p<.001

2) 가설 1-2 검증

H_{12} : 의존성은 학대경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는 여성노인의 의존성이 학대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정(+)의 관계에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의존성을 독립변수로, 학대정도(신체적, 언어·심리적, 방임, 경제적, 전체학대)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13>에 나타나 있다.

분석결과 의존성과 전체학대와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의 전체를 설명력을 의미하는 R^2 가 0.05로 나타나 전체의 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분석에 의한 F 통계량이 6.88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유의확률은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전체학대에 의존성 요인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0.10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2인 의존성은 학대경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2는 채택되었다.

의존성이 학대유형의 하위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신체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0.01, 언어·심리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은 0.18, 방임은 0.24, 경제적 학대는 0.13로 나타났는데, 이 중 신체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4-13> 의존성과 학대경험수준의 단순회귀분석 결과

변수 유형	신체적학대		언어심리적학대		방임		경제적학대		전체학대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의존성	-.01	-.03	.18	.27**	.24	.27**	.13	.20*	.10	.22**
상수	1.09		.91		.95		1.07		1.04	
R^2	.00		.08		.08		.01		.05	
Adjusted R^2	-.01		.07		.07		.01		.04	
F값	.16		11.06**		10.68**		5.67*		6.88**	
D-W	1.41		1.53		1.65		1.93		1.56	

* $p < .05$, ** $p < .01$, *** $p < .001$

2. 가설2 검증

H_2 : 여성노인의 가족상황적 요인은 학대경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가설 2-1 검증

H_{21} : 부양부담은 학대경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는 부양부담이 학대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정(+)의 관계에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부양부담을 독립변수로, 학대정도(신체적, 언어·심리적, 방임, 경제적, 전체학대)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14>에 나타나 있다.

분석결과 부양부담과 전체학대와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의 전체를 설명력을 의미하는 R^2 가 0.08로 나타나 전체의 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분석에 의한 F 통계량이 5.53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유의확률은 0.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전체학대에 부양부담 요인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0.11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1인 부양부담은 학대경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1는 채택되었다.

부양부담이 학대유형의 하위 영역인 신체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0.03, 언어·심리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은 0.19, 방임은 0.15, 경제적 학대는 0.16로 나타났는데, 이 중 신체적 학대와 방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4-14> 부양부담과 학대경험수준의 단순회귀분석 결과

변수 유형	신체적학대		언어심리적학대		방임		경제적학대		전체학대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부양부담	.03	.88	.19	.27**	.15	.16	.16	.22**	.11	.22**
상수	.98		.96		1.57		.90		1.08	
R ²	.01		.07		.03		.05		.08	
Adjusted R ²	-.00		.06		.02		.04		.07	
F값	1.03		10.06**		3.46		6.77**		5.53**	
D-W	1.41		1.61		1.62		1.99		1.86	

*p<.05, **p<.01, ***p<.001

2) 가설 2-2 검증

H_{22} : 가족결속력은 학대경험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는 가족결속력이 학대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부(-)의 관계에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가족결속력을 독립변수로, 학대정도(신체적, 언어·심리적, 방임, 경제적, 전체학대)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15>에 나타나 있다.

분석결과 가족결속력과 전체학대와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의 전체를 설명력을 의미하는 R²가 0.03로 나타나 전체의 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분석에 의한 F 통계량이 1.15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2-2인 가족결속력은 학대경험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2는 기각되었다.

가족결속력이 학대유형의 하위 영역인 신체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0.05, 언어·심리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은 -0.19, 방임은 -0.13, 경제적 학대는 -0.10으로 나타났다.

<표 4-15> 가족결속력과 학대경험수준의 단순회귀분석 결과

변수 유형	신체적학대		언어심리적학대		방임		경제적학대		전체학대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가족결속력	-.05	-.16	-.19	-.29	-.13	-.15	-.10	-.15	-.07	-.14
상수	1.23		2.01		2.05		1.60		1.58	
R ²	.02		.08		.02		.03		.03	
Adjusted R ²	.02		.07		.01		.02		.02	
F값	3.43		12.08**		3.33		3.35		1.15	
D-W	1.45		1.62		1.56		1.99		1.82	

*p<.05, **p<.01, ***p<.001

3. 가설 3검증

H_3 : 여성노인의 사회문화적 요인은 학대경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가설 3-1 검증

H_{31} : 사회적 고립은 학대경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는 사회적 고립이 학대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정(+)의 관계에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회적 고립을 독립변수로, 학대정도(신체적, 언어·심리적, 방임, 경제적, 전체학대)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16>에 나타나 있다.

분석결과 사회적 고립과 전체학대와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의 전체를 설명력을 의미하는 R²가 0.02로 나타나 전체의 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분석에 의한 F 통계량이 1.33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3-1인 사회적 고립은 학대경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 가설 3-1는 기각되었다.

사회적 고립이 학대유형의 하위 영역인 신체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0.02, 언어·심리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은 -0.10, 방임은 -0.10, 경제적 학대는 0.01로 나타났는데, 이 중 언어·심리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4-16> 사회적 고립과 학대경험수준의 단순회귀분석 결과

변수 유형	신체적학대		언어심리적학대		방임		경제적학대		전체학대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사회적고립	.02	.07	-.10	-.19*	-.10	-.14	.01	.01	-.04	-.10
상수	1.01		1.67		1.89		1.23		1.43	
R ²	.01		.04		.02		.01		.02	
Adjusted R ²	.00		.03		.01		-.01		.01	
F값	.64		4.80*		2.67		1.03		1.33	
D-W	1.41		1.63		1.59		1.95		1.84	

*p<.05, **p<.01, ***p<.001

2) 가설 3-2 검증

H_{32} : 사회적 차별은 학대경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는 사회적 차별이 학대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정(+)의 관계에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회적 차별을 독립변수로, 학대정도(신체적, 언어·심리적, 방임, 경제적, 전체학대)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17>에 나타나 있다.

분석결과 사회적 차별과 전체학대와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의 전체를 설명력을 의미하는 R^2 가 0.10로 나타나 전체의 1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분석에 의한 F 통계량이 12.59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유의확률은 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전체학대에 사회적 차별 요인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0.15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2인 사회적 차별은 학대경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2는 채택되었다.

사회적 차별이 학대유형의 하위 영역인 신체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0.05, 언어·심리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은 0.13, 방임은 0.32, 경제적 학대는 0.17로 나타났는데, 이 중 신체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표 4-17> 사회적 차별과 학대경험수준의 단순회귀분석 결과

변수 유형	신체적학대		언어심리적학대		방임		경제적학대		전체학대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사회적 차별	.05	.13	.13	.19**	.32	.34***	.17	.23***	.15	.30***
상수	.95		1.13		.92		.91		.99	
R ²	.02		.04		.12		.05		.10	
Adjusted R ²	.01		.03		.10		.05		.08	
F값	2.28		4.92*		17.54***		7.53**		12.59***	
D-W	1.35		1.45		1.55		1.98		1.68	

*p<.05, **p<.01, ***p<.001

4. 가설4 검증

H_4 : 여성노인의 개인적 요인과 학대경험과의 관계에서 노인상담서비스가 개인적 요인에 영향을 미쳐 학대경험을 조절 할 것이다.

1) 가설 4-1 검증

H_{41} : 노인상담서비스 수준이 높을수록 의존성이 학대경험에 미치는 정(+)의 영향이 낮아질 것이다.

<가설 4-1>인 여성노인의 의존성이 학대경험에 영향을 미칠 때 상담서비스 제공수준이 조절변수로 작용하게 되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표 4-18>는 의존성, 상담서비스, 학대경험 간의 다중회귀분석결과이다. 분석결과 상호작용 항인 의존성*상담서비스 변수가 유의수준 0.05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존성과 학대경험 간의 조절변수인 상담서비스는 유의수준 0.05이하에서 의존성과 상호작용하여 학대경험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효과는 $\beta = -0.08$ 이다. 회귀분석 전체설명력을 의미하는 R^2 는 0.10로서 전체의 10%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분석에 의한 F통계량은 3.55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유의확률은 0.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존성은 상담서비스 수준이 높을수록 학대경험에 더 작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 4는 채택되었다. 의존성*상담서비스와 학대유형의 하위영역과의 관계는 먼저 의존성*상담서비스가 신체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0.02, 언어·심리적 학대는 -0.08, 방임은 -0.15, 경제적 학대는 -0.11로 나타났는데, 이 중 경제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4-18> 의존성*상담서비스수준과 학대경험수준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수	신체적학대		언어심리적학대		방임		경제적학대		전체학대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의존성	-.04	-.12	.34	.14*	.57	.63**	.30	.46**	.27	.57*
상담서비스	-.03	-.09	.17	.32	.43	.60	.27	.52*	-.19	.50
의존성*상담서비스	.02	.17	-.08	-.54	-.15	-.71	-.11	-.66*	-.08	-.66*
상수	1.15		.72		.31		.47		.63	
R ²	.01		.12		.09		.04		.10	
Adjusted R ²	-.02		.10		.07		.02		.08	
F값	.29		5.77**		4.45**		3.25*		3.55*	
D-W	1.40		1.66		1.68		1.93		1.86	

*p<.05, **p<.01, ***p<.001

5. 가설 5검증

H_5 : 여성노인의 가족상황적 요인과 학대경험과의 관계에서 노인상담서비스가 가족상황적 요인에 영향을 미쳐 학대경험을 조절할 것이다.

1) 가설 5-1 검증

H_{51} : 노인상담서비스 수준이 높을수록 부양부담이 학대경험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낮아질 것이다.

<가설 5-1>인 여성노인의 부양부담이 학대경험에 영향을 미칠 때 상담서비스 제공수준이 조절변수로 작용하게 되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표 4-19>는 부양부담, 상담서비스, 학대경험 간의 다중회귀분석결과이다. 분석결과 상호작용 항인 부양부담*상담서비스 변수가 유의수준 0.01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부양부담과 학대경험 간의 조절변수인 상담서비스는 유의수준 0.01이하에서 부양부담과 상호작용하여 학대경험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효과는 $\beta = -0.14$ 이다. 회귀분석 전체설명력을 의미하는 R^2 는 0.12로서 전체의 12%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분석에 의한 F통계량은 5.57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유의확률은 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양부담은 상담서비스수준이 높을수록 학대경험에 더 작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 5-1는 채택되었다. 부양부담*상담서비스와 학대 유형의 하위영역과의 관계를 보면 먼저 부양부담*상담서비스가 신체학대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0.01, 언어·심리적 학대는 -0.18, 방임은 -0.29, 경제적 학대는 -0.11로 나타났는데, 신체적 학대와 경제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4-19> 부양부담*상담서비스수준과 학대경험수준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수	신체적학대		언어심리적학대		방임		경제적학대		전체학대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부양부담	.03	.07	.61	.85***	.84	.87**	.43	.59**	.45	.86**
상담서비스	.01	.04	.34	.66*	.67	.94**	.25	.48*	.31	.80*
부양부담*상담서비스	.01	.05	-.18	-.99**	-.29	-1.19**	-.11	-.63	-.14	-1.07**
상수	.95		.21		.35		.29		.32	
R^2	.01		.16		.11		.07		.12	
Adjusted R^2	-.01		.14		.10		.06		.10	
F값	.58		8.10***		5.59**		3.49*		5.57**	
D-W	1.40		1.71		1.81		1.97		1.89	

* $p < .05$, ** $p < .01$, *** $p < .001$

2) 가설 5-2 검증

H_{52} : 노인상담서비스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결속력이 학대경험에 미치는 부(-)의 영향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5-2>인 여성노인의 가족결속력이 학대경험에 영향을 미칠 때 상담서비스 제공수준이 조절변수로 작용하게 되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표 4-20>는 가족결속력, 상담서비스, 학대경험 간의 다중회귀분석결과이다. 분석결과 조절변수인 상담서비스가 가족결속력과 상호작용하여 학대경험수준을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가설 5-2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기각되었다.

가족결속력*상담서비스와 학대유형의 하위영역과의 관계에서 가족결속력*상담서비스가 언어·심리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만 0.2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4-20> 가족결속력*상담서비스수준과 학대경험수준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수	신체적학대		언어심리적학대		방임		경제적학대		전체학대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가족결속력	.06	.17	-.61	-.93**	-.37	-.42	-.08	-.13	-.22	-.46
상담서비스	.19	.69	-.76	-1.46**	-.40	-.57	-.03	-.05	-.25	-.66
가족결속력* 상담서비스	-.05	-.73	.20	1.51*	.11	.61	-.00	--.03	.06	.65
상수	.82		3.59		2.91		1.64		2.13	
R2	.04		.18		.04		.03		.05	
Adjusted	.02		.15		.02		.01		.03	
R2	2.09		9.19**		1.69		1.33		2.45	
F값	1.45		1.86		1.64		1.91		1.95	
D-W										

*p<.05, **p<.01, ***p<.001

6. 가설6 검증

H_6 : 여성노인의 사회문화적 요인과 학대경험과의 관계에서 노인상담 서비스가 사회문화적 요인에 영향을 미쳐 학대경험을 조절 할 것이다.

2) 가설 6-1 검증

H_{61} : 노인상담서비스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고립이 학대경험에 미치는 정(+)의 영향이 낮아질 것이다.

<가설6-1>인 여성노인의 사회적 고립이 학대경험에 영향을 미칠 때 상담서비스 제공수준이 조절변수로 작용하게 되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표 4-21>는 사회적 고립, 상담서비스, 학대경험 간의 다중회귀분석결과이다. 분석결과 조절변수인 상담서비스가 가족결속력과 상호작용하여 학대경험수준을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가설 6-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기각되었다.

<표 4-21> 사회적 고립*상담서비스수준과 학대경험수준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수	신체적학대		언어심리적학대		방임		경제적학대		전체학대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사회적고립	.04	.13	-.09	-.19	-.04	-.06	-.02	-.04	-.03	-.08
상담서비스	.04	.14	-.11	-.21	-.03	-.05	-.11	-.20	-.05	-.12
사회적고립* 상담서비스	-.01	-.14	.01	.08	-.02	-.12	.02	.16	.00	-.02
상수	.93		1.95		1.80		1.46		1.50	
R2	.01		.06		.02		.01		.02	
Adjusted R2	-.01		.04		.01		-.01		.00	
F값	.35		2.66		1.87		.46		.86	
D-W	1.40		1.75		1.60		1.98		1.91	

*p<.05, **p<.01, ***p<.001

2) 가설 6-2 검증

H_{62} : 노인상담서비스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차별이 학대경험에 미치는 정(+)의 영향이 낮아질 것이다.

<가설6-2>인 여성노인의 사회적 차별이 학대경험에 영향을 미칠 때 상담서비스 제공수준이 조절변수로 작용하게 되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표 4-22>는 사회적 차별, 상담서비스, 학대경험 간의 다중회귀분석결과이다. 분석결과 상호작용 항인 사회적 차별*상담서비스 변수가 유의수준 0.05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차별과 학대경험 간의 조절변수인 상담서비스는 유의수준 0.05이하에서 부양부담과 상호작용하여 학대경험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효과는 $\beta = -0.06$ 이다. 회귀분석 전체설명력을 의미하는 R^2 는 0.14로서 전체의 14%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분석에 의한 F통계량은 6.49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유의확률은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차별은 상담서비스수준이 높을수록 학대경험에 더 작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 6-2는 채택되었다. 사회적 차별*상담서비스와 학대유형의 하위영역과의 관계를 보면 먼저 사회적 차별*상담서비스가 신체학대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0.01, 언어·심리적 학대는 -0.05, 방임은 -0.04, 경제적 학대는 -0.19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경제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만 -0.1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4-22> 노인차별*상담서비스수준과 학대경험수준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수	신체적학대		언어심리적학대		방임		경제적학대		전체학대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사회적차별	.03	.08	.27	.39	.43	.46	.57	.81**	.29	.58**
상담서비스	-.01	-.02	-.02	-.03	-.02	-.02	.40	.75*	.07	.18
사회적차별* 상담서비스	.01	.08	-.05	-.30	-.04	-.17	-.19	-1.14*	-.06	-.48*
상수	.98		1.11		.95		.07		.84	
R2	.02		.10		.14		.11		.14	
Adjusted	-.00		.09		.12		.09		.12	
R2	.84		4.47*		7.08**		5.32**		6.49**	
F값	1.35		1.61		1.55		1.98		1.81	
D-W										

*p<.05, **p<.01, ***p<.001

이상의 실증분석에서 행한 가설의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표 4-23>과 같다.

<표 4-23> 연구가설의 검증결과 요약

가설	검증결과	채택여부
가설 1-1	인구사회적 특성과 학대(경험)과의 관계에 있어서, 종교, 가족(동거)현황, 경제수준 등을 제외한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등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일부 채택
가설 1-2	의존성은 학대(경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채택
가설 2-1	부양부담은 학대(경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채택
가설 2-2	가족결속력은 학대(경험)에 부(-)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기각
가설 3-1	사회적 고립은 학대(경험)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기각
가설 3-2	사회적 차별은 학대(경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채택
가설 4-1	노인상담서비스 수준이 높을수록 의존성이 학대(경험)에 미치는 정(+)의 영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채택
가설 5-1	노인상담서비스수준이 높을수록 부양부담이 학대(경험)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채택
가설 5-2	노인상담서비스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결속력이 학대(경험)에 미치는 부(-)의 영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음	기각
가설 6-1	노인상담서비스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고립이 학대(경험)에 미치는 정(+)의 영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음	기각
가설 6-2	노인상담서비스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차별이 학대(경험)에 미치는 정(+)의 영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채택

제 3 절 실증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1. 조사대상자 빈도분석의 주요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5개구(은평구, 노원구, 종로구, 영등포구, 중랑구)에 소재하는 노인(종합)복지기관 5개와 관내 경로당 5개 등 상담서비스기관을 이용하는 60세 이상의 여성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기관은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되었고, 조사내용과 방법을 교육받은 조사원들에 의한 개별면담을 실시, 응답률은 총 300부(노인복지회관 200부, 경로당 100부) 중 294부를 회수하여 98.0%를 기록하였으나, 그 중 학대경험이 없는 설문지를 제외한 142부(노인복지회관 79부, 경로당 63부)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연령은 70~74세 이하가 40명(28.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75~79세 이하가 33명(23.2%), 65~69세 이하가 32명(22.5%) 등의 순으로 나타나 70대의 연령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은 초등 졸 58명(41.4%), 무학 32명(22.9%) 등의 순으로 교육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금의 여성노인들이 대부분 일제시대에 가난하게 태어나 해방 후 혼란기, 6.25전쟁을 겪으면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동시대의 실상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결혼상태의 경우 사별이 73명(52.9%)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노인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훨씬 길어서 남편사별 후 홀로 남게 되는 여성노인이 많다는 사실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종교는 불교가 44명(31.7%)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지금의 여성노인이 기독교나 천주교가 널리 보급이 안 된 시대에 태어나고 성장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통종교인 불교를 자연스럽게 많이 접하고 믿게 된 것으로 보인다.

가족(동거)현황을 보면, 부부+자녀부부가 47명(33.6%), 혼자 생활한다가 42명(30.0%), 부부만 생활한다가 39명(2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자녀와 분가해서 혼자만, 부부만 생활한다가 57.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노부모와 성인자녀들이 가능하면 분가해서 서로 편하게 따로 생활하고자 하는 현재의 시대적 경향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는 만큼 그 이면에는 노부모에 대한 방임 및 방치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수준은 중하가 57명(41.0%), 중층 37명(2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담기관을 이용하는 여성노인들의 경제수준이 대체로 중간층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연구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변수, 즉 의존도, 부양부담, 가족 결속력, 사회적 고립, 사회적 차별, 노인상담서비스, 학대경험 등에 대하여 각각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의존도는 신체의존, 경제의존, 정서의존, 정신의존, 사회참여의존 등의 5개 항목으로 신체의존 1개 항목을 제외하고 모두 제거되지 않고 구성되었으며, 신뢰도 계수는 0.536으로 나타났다.

부양부담은 부적절한 경제사정, 부양자의 불편한 신체상황, 적절하지 못한 주거상황, 세대간의 갈등, 부양시기의 부적절성, 가족지원의 부족 등의 6개 항목으로 모두 제거되지 않고 구성되었으며, 신뢰도 계수는 0.756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기의 6개 항목으로 설명한 Douglass(1980)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가족결속력은 부양자와 피부양자간의 결속관계, 부양자의 존중의식, 피부양자의 역할의식 등의 3개 항목으로 모두 제거되지 않고 구성되었으며, 신뢰도 계수는 0.763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나용선(2005)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 지지망의 크기, 교류 및 사회활동 정도 등의 2개 항목으로 모두 제거되지 않고 구성되었으며, 신뢰도 계수는 0.792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차별은 노인 우롱(조롱), 노인무시, 노인고용거절, 노인 임차난, 노인 자금유통난, 노인의 범죄희생 등의 6개 항목으로 모두 제거되지 않고 구성되었으며, 신뢰도 계수는 0.786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기의 6개 항목으로 설명한 Palmore(20001)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노인상담서비스는 생계 및 취업상담 이용도, 건강 및 의료상담 이용도, 심리 및 가족상담 이용도, 봉사 및 여가활동상담 이용도, 복지혜택 및 법률상담 이용도, 생계 및 취업상담 만족도, 건강 및 의료상담 만족도, 심리 및 가족상담 만족도, 봉사 및 여가활동상담 만족도, 복지혜택 및 법률상담 만족도 등의 10개 항목으로 생계 및 취업상담 이용도 1개 항목을 제외하고 모두 제거되지 않고 구성되었으며, 신뢰도 계수는 0.93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학대경험은 24개 항목으로 기대했던 대로 신체적 학대, 언어·심리(정서)적 학대, 방임, 경제적 학대 등의 4개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신체학대 5개 문항, 언어·심리학대에는 5, 6, 9, 10번 문항을 삭제하고 6개 문항, 방임은 4번 문항을 삭제하고 3개 문항, 경제적 학대는 1번 문항을 제외한 4개 문항으로 분석되었다. 신뢰도 계수는 각각 0.836, 0.804, 0.705, 0.763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이미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척도 중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잘 부합되는 척도를 선정,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제시된 연구변수들은 전반적으로 신뢰도와 타당성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실증되었다.

3. 여성노인의 개인적 요인과 학대경험과의 가설

가설 1-1은 여성노인의 인구 사회적 특성에 따라 학대경험이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종교, 가족(동거)현황, 경제수준 등을 제외한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학대경험은 일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연령의 경우 언어·심리적 학대, 방임, 경제적 학대, 전체학대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80세 이상인 집단이 언어·심리적 학대, 방임, 경제적 학대, 전체학대를 다른 연령 대 집단에 비해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령의 노인이 보다 학대가 발생할 상황에 처할 위험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는 선행연구(Kosberg, 1988; Lachs, 1994; Kemp, 2000; 이연호, 2005)의 결과와 일치한다.

교육수준의 경우 언어·심리적 학대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무학과 초등 졸 집단이 중등 졸, 고등 졸 이상인 집단보다 언어·심리적 학대를 더 많이 경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이 학대를 좀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제시하며 다른 요인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Shiferaw et. al.,(1994)을 비롯한 다수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학대유형 중 언어·심리적 학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노인들이 지식과 인지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여성노인이 가해자인 부양자녀 등의 언어·심리적 압박에 대하여 스스로 대응할 수 심리적 대처차원과 자아존중감이 부족한데서 오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여성노인들이 언어·심리적 학대 경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여가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통하여 심리적인 대처자원 확보 및 심리적인 위안을 얻도록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결혼상태의 경우에서도 언어·심리적 학대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기타집단(이혼 및 별거)이 기혼과 사별인 집단보다 학대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별노인이 더 많이 학대를 받는다는 손에스더(2001)의 연구결과와 불일치한다. 이와 관련, 본 연구에서는 그 근거와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며, 이를 밝히는 작업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 영역으로 보인다.

가설 1-2는 여성노인의 의존성이 학대경험에 미치는 영향은 정(+)의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회귀분석의 전체 설명력을 의미하는 R^2 가 0.05로 나타나 전체의 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분석에 의한 F통계량이 6.88로 나타났고, 이에 따른 유의확률은 0.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의존성이 학대경험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대유형별로는 언어·심리적 학대와 방임, 경제적 학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의존성이 클수록 학대경험 특히 언어·심리적 학대와 방임, 경제적 학대가 많아진다는 것과 의존성이 학대경험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요인임을 말한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여성노인은 대체로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노년기를 보내는 경우가 많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 참여적으로 자립이 어려워 사회복지체계는 미흡한 상황에서 자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어 결국 학대에 노출되게 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여성노인이 개인적인 실패라기

보다는 연령차별과 함께 우리나라의 유교사상 및 가부장제도하의 성차별의 결과물로서 여성노인은 신체적·경제적·지식적 차원의 자원과 정보의 결핍으로 인해 자식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 학대에 노출되게 된다는 선행연구(명선영, 2001; 한동희, 2001; 최선화외, 1998; 유공순, 2004)의 결과와 일치한다.

경제적 학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이유는 여성노인들이 전업주부로서 출산, 육아와 가사노동에 전념하면서 대부분의 자원을 오로지 자식과 가정에 투자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과 함께 소득 및 재산을 챙길 기회와 능력을 갖지 못한데서 오는 경제적 의존도로 인한 자립능력의 결여로 경제적 학대에 더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인지적 장애에 따른 의존성이 높은 노인일수록 어떤 것이 이득이 있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적 학대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한은주, 2006:108).

또한 언어·심리적 학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이유는 여성노인들이 대부분 일제시대를 거쳐 혼란기를 겪으면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심리적 대처자원과 자아존중감이 부족한데다가 노인의 경제적 의존성은 가정 내에서의 통제나 자아존중감을 잃게 만들어 노인 스스로도 심리적인 위축감을 갖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더욱 정서적인 학대경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한은주, 2006:87에서 재구성).

이와 함께 방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이유는 교환이론의 관점에서 여성노인들이 사회구조적인 요인으로 자녀의 정서적 지지와 수발 등과 교환할 수 있는 자원과 정보를 갖추지 못한 늙고 쓸모없고 무기력한 자연인으로서의 여성노인에 대한 부양자녀의 무관심 및 방치가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추측을 해본다.

따라서 여성노인의 의존도는 학대경험을 유발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학대경험을 방지 및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사회복지 상담서비스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4. 여성노인의 가족상황적 요인과 학대경험 간의 가설

가설 2-1은 여성노인의 부양부담이 학대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정(+)의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분석결과를 보면, 회귀분석의 전체설명력을 의미하는 R^2 가 0.08로 나타나 전체의 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분석에 의한 F통계량이 5.58로 나타났고, 이에 따른 유의확률은 0.05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다. 즉, 부양부담이 학대경험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대유형별로는 언어·심리적 학대와 경제적 학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부양부담이 클수록 학대경험, 특히 언어·심리적 학대와 경제적 학대가 많아진다는 것과 부양부담이 학대경험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요인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먼저 경제적인 면에서 특히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료비 부담 등), 수발면에서 주로 노부모를 모시는 중년 여성들의 취업증가에 따른 수발부담, 정서적 면에서 세대간의 가치관 차이에 따른 의견충돌 및 갈등, 그리고 힘의 견제, 사생활의 제약, 심지어 치매에 따른 정서적 부담 등으로 인해 부양자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학대적으로 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부양경비, 수발 및 정서적 부담 등의 과중한 부양부담으로 인해 정상적인 가족이라도 학대적으로 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Chen외, 1981; Beck&Ferguson, 1981; 이해영, 1996)의 결과와 부합한다.

특히 언어·심리적 학대와 경제적 학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이유는 우선 언어·심리적 학대의 경우 세대간의 차이 및 성격변화, 특히 여성노인일수록 발생률이 높은 심리적 부적응, 우울증 등의 정신병리 등에 따른 과중한 정서적 부담으로 인해 부양자가 정서적으로 메마르고 지치게 되어 의견충돌과 함께 노부모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노부모의 친구나 친지 등의 방문이 귀찮아 지게 되는 것 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경제적 학대의 경우 특히 최근의 경제난 하에서 노령이나 질병 등에 따른 과중한 경제적 부담(특히 의료비)으로 인해 노모에게 필요한 용돈이나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심지어 노모가 받는 노령소득이나 연금 등 여성노인의 소득을 가로챌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데 그 근거의 일부를 찾아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부양자의 부양부담은 학대경험을 유발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학대경험을 방지 및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부양부담을 보다 완화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 상담서비스 방안이 모색되어 여성노인을 포함한 가족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즉, 여성노인들 스스로 신체적·정서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립정신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연금제도 등 남성위주로 되어있는 각종 제도를 바꾸는 등 이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 하겠다.

가설 2-2는 여성노인의 가족결속력이 학대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부(-)의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분석결과를 보면 회귀분석의 전체설명력을 의미하는 R^2 가 0.03로 나타나 전체의 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분석에 의한 F통계량이 1.15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검증결과 예상과 달리 가족결속력은 학대경험에 부(-)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가족원의 관계가 (불)만족할수록 학대경험이 (높)낮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고보선, 2005; 전길양·송현애(1998)L 정재욱, 2001; 장은실, 2005; 이연호, 2005)의 결과, 특히 가족결속력이 의존도보다 학대경험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한은주(2006)의 연구결과와 불일치한다.

이와 관련, 본 연구에서는 그 근거와 이유를 확인할 수 없지만 이를 규명하는 작업은 후속연구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가능한 점으로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는 지금의 여성노인은 경로효친사상 등 ‘효’를 중심으로 가정의 화합을 중시하는 우리의 전통윤리의 영향으로 설문조사문항에 현재 학대를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대부분 가족결속력은 좋은 편(평균 3.19)으로 응답하는 이들 노인들의 부정적성에 기인한다고 추론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결속력이 학대경험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볼 때 학대경험을 방지 및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가족결속력은 여성노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거나 지지해 줄 수 있는 가정 상황적 자원으로 볼 수 있기에 가족결속력을 보다 높힐 수 있는 사회복지 상담서비스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

이다.

5. 여성노인의 사회문화적 요인과 학대경험과의 가설

가설 3-1은 여성노인의 사회적 고립이 학대경험에 미치는 정(+)의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분석결과를 보면 회귀분석의 전체설명력을 의미하는 R^2 가 0.02로 나타나 전체의 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분석에 의한 F통계량이 1.33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본 연구에서는 검증결과 예상과 달리 사회적 고립은 학대경험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노인의 고립은 노인학대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대다수의 선행연구들(Kemp, 1998; Abraham, 2000; Wolf, 1996; Brandi, 2000; 감태현·한은주, 1997; 김미경, 1998; 이연호, 2005)의 결과와는 불일치 하나, 사회적 고립이 반드시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코스타리카의 노인과 미국의 노인을 비교한 연구(Gilliland&Jimenez, 1996)와 생태학적 관점에서 사회적 고립이 위험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 한은주(2006)의 연구의 시사적 결과에서 이를 밝힐 수 있는 후속연구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찾을 수 있겠다. 이와 관련 본 연구의 ‘사회적 고립’에 관한 설문문항에서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는 사회적 지지망의 정도를 비교적 엄격하게 규정한 「과반수 이상의 사회적 지지망을 갖고 있다.」 표현의 정도를 다소 완화하여 조사하는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그에 따른 결과물이 기대된다.

일반적으로 여성노인들은 결혼이나 취업, 학업 등의 이유로 자녀가 가정을 떠나게 되고, 또한 배우자의 상실로 인한 경제적 빈곤이나 사회망의 축소로 여성노인들의 사회적 고립감은 심화되며, 이로 인해 가족내에서 지위가 약화되며 이웃과의 교류도 감소하며 우울증, 무기력 증 등 인지장애가 일어나게 되어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나, 친척, 이웃, 친구,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필요한 도움이나 중재를 받을 수 없게 되어 학대에 쉽게 노출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이 학대경험에 정(+)의 영향을 미치

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학대경험을 방지 및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여성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완화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 상담서비스 방안이 모색되어 비공식적 지지망의 강화 및 공식적 지지망의 개입을 통해 도움 또는 중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가설 3-2는 여성노인의 사회적 차별이 학대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정(+)의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회귀분석의 전체설명력을 의미하는 R^2 가 0.10로 나타나 전체의 1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분석에 의한 F통계량이 12.59로 나타났고, 이에 따른 유의 확률은 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학대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를 제외한 여타 학대, 즉 언어·심리적 학대, 방임, 경제적 학대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사회적 차별이 학대경험, 즉 언어·심리적 학대, 방임, 경제적 학대 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여성노인의 경우 연령차별과 성차별의 이중적인 차별에 의해 경제적 빈곤 및 만성질환, 고독과 소외감 등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전락하게 되고, 이러한 저가치화는 사회적 지위를 낮게 하고 학대를 받기가 좀 더 쉽게 만드는 각종 차별적 제도와 관행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가부장제하에서 여성노인은 전 생애에 걸쳐 교육 및 취업, 사회참여 등의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고 사회적으로 소외당하였다.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서 특히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 여성노인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정상적인 노동시장에 편입되지 못하고 일용고용의 상태로 더 힘들고 저임금의 소득을 원천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성차별과 함께 연령차별의 결과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모욕적인 TV광고, 부정적인 농담 등 사회에 만연해 있는 여성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 그리고 여성노인의 저가치화로 인한 낮은 사회적 지위는 결국 학대에 노출되기 쉬운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언어·심리적 학대 및 방임, 경제적 학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이유는 우선 언어·심리적 학대의 경우 여성노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선입관,

부정적 태도 등, 다음으로 방임의 경우 여성노인의 저가치화 및 낮은 지위로 인해 이들에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으며 무관심과 방치 등, 마지막으로 재정적 학대의 경우 여성노인이 사회구조적인 요인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했다는 점 등에서 그 단초를 찾아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사회적 차별은 학대경험을 유발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학대경험을 방지 및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차별, 특히 성차별을 완화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 상담서비스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6. 개인적 요인과 학대경험 간의 조절효과에 관한 가설

가설 4-1은 여성노인의 의존성이 학대경험에 영향을 미칠 때 노인 상담서비스의 제공수준이 조절변수로 작용하게 되면 어떻게 변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검증결과 조절변수인 상담서비스는 0.05이하 수준에서 -0.08로 부(-)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 학대경험을 조절(약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대유형별로는 경제적 학대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여성노인은 남자에 비해 유배우자율이 낮아 경제적 빈곤, 신체적 질병, 고독과 소외감으로 더욱 의존적이며, 이는 고령자일수록 더욱 심각해진다. 여성노인의 경우 상담서비스가 의존성에 영향을 미쳐, 즉 주로 경제적·신체적·정서적 차원의 자원과 정보의 결핍에 따라 발생한 동일한 수준의 의존도에서 상담기관을 통한 가정봉사원 파견, 국민기초생활보장, 경로연금이나 노령수당, 경로우대제도, 노인고용혜택, 자원봉사자 연계, 노인학대관계 법·제도²⁴⁾ 등 교육 및 홍보 등의 각종 사회복지적 자원과 정보, 프로그램의 제공으로 인해 소정의 대처자원과 정보 등의 확보에 따라 여성노인의 의존도가 어느 정도 낮아지게 된다.

이는 여성노인의 가정내 지위 및 자아 존중감 제고, 사회적 지지망의 확보에 따른 잠재적인 학대가능성에 적극적 대처 등으로 연결되어 학대경험의 정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의존성과 학대경험의 관계에서 노인상담서비스가 조절효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타나났는데, 이는

24) 노인학대 관계 법·제도 등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노인복지법', '노인학대예방센터', '1398국번 없는 핫라인' 등이 있다.

동일한 의존도 수준에서 경제적·신체적·정서적 지원이 이루어져 학대경험의 정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대유형 중에서 특히 경제적 학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경로연금이나 노령수당, 경로우대제도 등의 혜택을 입으면서 상당부분 부양자에게 용돈이나 생활비를 덜 요구하게 되면서 경제적 학대에 덜 노출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인상담서비스가 의존도를 줄여 학대경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영향요인으로서 여성노인에게 경제적·신체적·정서적 자원과 정보, 프로그램 등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도를 제고시켜 여성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노년기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7. 가족상황적요인과 학대경험 간의 조절효과에 관한 가설

가설 5-1은 부양자의 부양부담이 학대경험에 영향을 미칠 때 노인상담서비스의 제공수준이 조절변수로 작용하게 되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검증결과 조절변수인 상담서비스는 0.01이하 수준에서 -0.14로 부(-)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 학대경험을 조절(약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대유형별로는 언어·심리적 학대와 방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는 노인에 대한 부양을 가족에게만 전담시킬 것이 아니라 그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가족전체를 단위로 하는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유대를 강화시키고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노인을 함께 부양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부양 정책의 시행은 가장 취약계층인 노인은 가족관계의 지속적인 역기능의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양자의 경우 상담서비스가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쳐, 즉 주로 경제적 부담 및 수발부담, 정서적 부담 등의 측면에서 비롯된 동일한 수준의 부양부담에서 의료급여제도, 노인건강진단 사업, 세제혜택, 아파트 분양시 혜택 부여 등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함께 노인 돌보미 바우처(Voucher), 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자원봉사자와의 정기적인 접촉 등 수발부담을 경감시킨다. 노인의

성격변화, 우울증 등 여성노인의 심리적인 특성, 의사소통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또한 치매 등 위기상황에서의 대처프로그램 제공, 부양자를 위한 지지적 프로그램, 곧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과 자아 존중감 프로그램, 분노조절프로그램 등의 개인상담 제공 및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가족상담 제공을 통하여 정서적 부담을 경감시킴에 따라 부양자의 부양부담은 어느 정도 낮아지게 된다. 이는 부양자의 부양부담경감에 따른 스트레스 완화 및 노모에 대한 이해도 제고, 그리고 위기 대처 능력의 증진과 책임의 현실적 한계 설정 등으로 연결되어 학대 경험의 정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부양부담과 학대경험의 관계에서 노인상담서비스가 조절효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동일한 부양부담의 수준에서 부양부담이 경감되고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정서적으로 지지되어 학대경험의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대유형 중에서 언어·심리적 학대와 방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언어·심리적 학대의 경우 부양자에게 여성노인의 심리적인 특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위기상황에서의 대처프로그램이 제시되어 여성노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방임의 경우는 노인 돌보미 바우처 제도나 자원봉사자와 정기적 접촉 등의 프로그램들이 학대경험을 상쇄내지 약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론을 해본다. 따라서 노인상담서비스가 부양부담을 줄여 학대경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영향요인으로서 가족의 유대 강화, 가족의 대처자원 확보 및 노인에 대한 정보제공, 부양자를 위한 지지적 개인상담 및 가족상담 제공을 통하여 부양자가 부양부담이 경감되고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가족단위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가설 5-2는 가족결속력이 학대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상담서비스 정도가 조절변수로 작용하게 되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검증결과 조절변수인 상담서비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족결속력과 상호작용하여 학대경험을 조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와는 달리 대다수의 연구에서 가족결속력이 학대경험의 위험요인인 것으로 확인된 것을 볼 때에 부양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

족 기능 내지 가족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상담서비스(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즉, 부양에 따른 가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개인상담 뿐만 아니라 전체 가족의 변화를 일으키는 가족치료서비스,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성원들이 서로가 경험하는 부양부담을 공유하고 상호지지하며 지역사회의 서비스정보를 상호 교류하는 자조집단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가족갈등을 해소하고 가족결속력을 강화시켜 여성노인의 부양에 따른 가족의 문제를 극소화시킴으로써 학대경험을 예방하고 경감시켜야 할 것이다.

가족결속력과 학대경험과의 관계에서 상담서비스가 조절효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설명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효’와 가정의 화합을 중시하는 우리의 전통윤리사상에 따라 설문조사 문항에는 어느 정도 학대를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한 여성노인들의 대부분이 가족결속력은 좋은 편으로 응답한 데에서 발생한 설문조사의 부정직성에 기인한다고 추론할 수도 있겠다. 따라서 상담서비스의 조절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성노인의 학대 인식도 제고, 정직한 응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교한 상담기법개발 등의 노력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족결속력을 높힐 수 있는 개인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등 각종 상담과 자조집단 프로그램이 실시 및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8. 사회문화적 요인과 학대경험 간의 조절효과에 관한 가설

가설 6-1은 사회적 고립이 학대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상담서비스 정도가 조절변수로 작용하게 되면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검증결과 조절변수인 상담서비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사회적 고립과 상호작용하여 학대경험을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Gilliland&Jimenez(1996)와 한은주(2006)의 연구결과들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고립과 학대경험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일반적으로 피부양자가 고립되면 공식적·비공식적인 기관에 도움 및 중재를 요청할 수 없어 부양자의 시간적·정서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없으므로 학대경험에 더욱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고립이 관련성이 있다고 추론된다. 특히 여성노인은

교육수준이 낮고 사회성이 떨어져서 대화의 기술이나 고립에 의하여 학대경험이 쉽게 발생됨으로 여성노인의 사회성 향상을 높일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하겠다.

사회적 고립과 학대경험과의 관계에서 상담서비스가 조절효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지만, 상대적으로 고립되고 교육수준이나 사회성이 떨어지는 여성노인들은 학대를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 고립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상담서비스의 조절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성노인의 가족과 친구로 이루어진 비공식적 지지망을 강화시키고 여성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적합한 직종이나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여성노인에게 실효성 있는 사회복지적 지지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여 학대경험을 예방 및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즉, 여성노인들에게 개인적망기법²⁵⁾, 자원봉사자연계개입기법²⁶⁾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가설 6-2는 여성노인의 사회적 차별이 학대경험에 영향을 미칠 때 노인상담서비스의 제공수준이 조절변수로 작용하게 되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검증결과 조절변수인 상담서비스가 0.05이하 수준에서 -0.06로 부(-)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 학대경험을 조절(약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대유형별로는 경제적 학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여성노인의 경우 이들의 경제적 빈곤이나 만성질환, 사회관계망의 협소 등은 개인적인 실패나 노령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일생동안 지속되어 온 사회활동에서의 여성배제와 우리사회 곳곳에 녹아있는 성차별적인 제도적 장치에 상당히 기인한 것이라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여성노인의 자원에 대한 통제권이 부족하고 사회활동에서 소외된 삶을 치유하

25) 이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충족이나 문제해결과정에 개인적 망을 동원하고자 하는 접근법으로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되는 기존의 사회적 유대를 강화시키는 한편, 필요시 소원해진 관계를 활성화시키거나 새로운 유대를 맺도록 돕는 기법이다(이원숙, 1992; 손에스더, 2001, 79에서 재인용)

26) 또한 비공식적 지원망 자체가 부족한 여성노인에게는 자원봉사자연계개입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위기를 경험하거나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적응문제로 인해 지지와 옹호를 필요로 하는 개인에게 조언, 지지,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비공식적 도움제공자를 연계시켜주는 기법이다. 이러한 자원봉사자의 연계는 클라이언트에 정서적지지, 환류, 지도, 실제적 보조 및 사회화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고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성차별적인 문제와 연령차별적인 문제를 결부시켜 각종 제도적·관행적 장치에서 남성에게 비해 불리한 여성노인들을 위해 사회복지적 배려와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하겠다. 여성노인의 경우 상담서비스가 사회적 차별에 영향을 미쳐, 즉 연령차별과 성차별에서 비롯된 동일한 수준의 사회적 차별(경험)에서 여성노인의 개인상담을 통해 자아 존중감의 증진 및 자립정신의 함양, 법적 대응방안 교육, 노령연금 지급, 취업알선 및 공동작업 설치, 직업훈련, 사회봉사 및 여가활동 참여, 자원봉사자와의 정기적 접촉, 의료혜택, 노인수발에 대한 지원, 여성노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등의 사회복지적 상담서비스 개입을 통하여 여성노인의 사회차별은 어느 정도 낮아지게 된다.

이는 여성노인의 심리적·물질적 대처자원 확보 및 자아 존중감 회복, 사회관계망 확충, 여성의 지위 상승 등으로 연결되어 학대경험의 정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차별과 학대경험과의 관계에서 노인상담서비스가 조절효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동일한 사회적 차별의 수준에서 여성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고, 여성노인의 사회적 위치가 상승되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게 되어 학대경험의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대유형 중에서 특히 경제적 학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개인상담, 사회봉사 및 자기개발 활동 등 상담프로그램을 통하여 여성노인의 자립정신이 강화되고 경로우대제도 및 노령연금, 공동작업장 설치 및 취업알선 등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도 부여되어 용돈 및 생활비 면에서 이전에 비해 재정적 자립이 제고되어 경제적 학대를 덜 받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노인상담서비스가 여성노인의 사회적 차별을 감소시켜 학대경험을 약화시킬 수 있는 영향요인으로서 개인상담을 통한 자아 존중감 증진, 취업알선 및 사회활동참여 등 자립도 제고, 여성의 기본권 및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등의 프로그램 제공과 함께 성차별의 피해자인 지금의 여성노인을 배려하고 특화하는 차원에서 현재 남녀 공히 통합되어 있는 노인상담서비스 제공보다는 여성노인에게 특화된 상담서비스 제공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겠다.

제 5 장 결 론

최근 고령화·저출산화로 인한 노인인구, 특히 여성노인의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정의 부양기능은 약화되어 노인부양문제가 가족성원들과의 갈등을 야기하여 노인문제에서 가장 황폐한 결과인 노인학대를 낳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고유의 사회문화적인 요인으로 연령차별과 성차별의 이중차별을 받아 온 여성노인은 부양자에 의한 학대에 더욱 노출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이 문제를 완화 및 해결하는 차원에서 관련법 개정 등 사회와 국가의 사회복지적 개입이 요청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생태론적인 관점에서 학대위험요인이 학대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하고, 아울러 위험요인과 학대경험과의 관계에 환경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노인상담서비스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는 노인학대 관련 연구에서 처음 시도하는 작업으로서 관련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학대경험을 예방 및 감소시키기 위한 실천적이고 다면적인 사회복지적 상담서비스 개입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먼저,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학대경험은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교, 가족(동거)현황, 경제수준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연령의 경우, 80세 이상의 집단이 언어·심리적 학대, 방임, 경제적 학대, 전체학대를 다른 연령 대 집단에 비해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의 경우 무학과 초등 졸 집단이 중등 졸, 고등 졸 이상인 집단보다 언어·심리적 학대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상태의 경우 기타집단(이혼 및 별거)이 기혼과 사별된 집단보다 학대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노인의 의존성이 학대경험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학

대유형 중에서는 경제적 학대와 언어·심리적 학대, 방임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경제적 학대의 경우 여성노인들의 경제적 의존도로 인한 자립능력의 결여와 낮은 교육수준에 따른 재정적 관리능력의 부족으로, 언어·심리적 학대의 경우 여성노인의 자기변호 및 옹호 등 심리적 대처자원 부족과 법률적 대응 곤란과 함께 경제적 의존성으로 인한 자아존중감 상실 및 심리적인 위축 등으로, 방임의 경우 교환론적 관점에서 쓸모없는 여성노인에 대한 부양자의 무관심과 방치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학대 경험을 방지 및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여성노인의 대처자원 및 정보제공 등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상담서비스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부양자의 부양부담이 학대경험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학대 유형 중에서는 언어·심리적 학대와 경제적 학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언어·심리적 학대의 경우 세대간의 차이 및 여성노인의 심리적 부적응, 우울증 등 과중한 정서적 부담으로, 경제적 학대의 경우 부양자의 부양부담 중에서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만큼 그에 따른 경제적 학대가 일어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학대경험을 방지 및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부양자 및 가족부양정책 고려 등 부양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상담서비스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가족결속력이 학대경험에 부(-)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가족원의 관계가 (불)만족할수록 학대경험이 (높)낮게 나타난다는 고보선(2005) 및 한은주(2006) 등 선행연구의 결과와 불일치한다. 이와 관련, 본 연구에서는 그 근거와 이유를 확인할 수 없지만, 한 가지 가능한 이유는 학대피해 여성노인들이 대부분 가정의 화합을 중시하는 우리의 전통사상의 영향으로 설문조사 시 가족결속력이 높은 편으로 응답을 한 부정직한 행위에 기인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가족결속력은 여성노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거나 지지해 줄 수 있는 가족상황적 자원으로 볼 수 있기에 가족결속력을 제고될 수 있는 상담서비스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회적 고립이 학대경험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고립이 노인학대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불일치하나 사회적 고립이 반드시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Gilliland&Jimenez(1996)와 한은주(2006)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한다. 이와 관련 본 연구에서는 그 근거와 이유를 찾을 수 없지만, 고립의 설문문항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그 결과가 기대된다. 다수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학대경험 방지 및 감소를 위해서는 사회봉사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실시, 자원봉사자와의 정기적 접촉 등 사회적 지지 망 제공을 통한 상담서비스 개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사회적 차별이 학대경험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언어·심리적 학대 및 방임, 경제적 학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언어·심리적 학대의 경우 여성노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선입감, 부정적 태도 등에, 방임의 경우 여성노인의 저가치화 및 낮은 지위로 인한 부양자의 무관심과 방치 등에, 경제적 학대의 경우 경제적 자립 결여로 비롯된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사회적 차별은 학대경험을 유발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으며, 사회적 차별, 특히 성차별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복지 상담서비스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의존성과 학대경험과의 관계에서 상담서비스가 의존성에 영향을 미쳐 학대경험을 조절하는 변수로 나타나, 학대경험은 동일한 의존도 수준에서 가정봉사원 파견, 경로연금, 자원봉사자 연계, 법적·제도적 대응능력교육 등 상담서비스에 의해 의존도가 낮아져 학대경험이 완화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대유형 중에서 경제적 학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 노령수당 등의 혜택을 입으면서 부양자에게 용돈이나 생활비를 덜 요구하게 되면서 경제적 학대에 덜 노출되는 현상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성노인에게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자원과 프로그램 등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 노인들의 의존도를 낮추고 대처능력을 제고시켜 학대를 방지하고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 부양부담과 학대경험과의 관계에서 상담서비스가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쳐 학대경험을 조절하는 변수로 나타나, 학대경험은 동일한 부

양부담 수준에서 의료급여제도, 세제혜택, 노인 돌보미 바우처, 위기시의 대처프로그램, 부양자 및 가족을 위한 지지적 상담 등 상담서비스에 의해 부양 부담이 낮아져 학대 정도가 완화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대 유형 중에서 언어·심리적 학대와 방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이유는 언어·심리적 학대의 경우 부양자에게 여성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정보와 위기상황에서의 대처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여성노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고, 방임의 경우 가정봉사원 파견이나 자원봉사자와의 정기적 접촉 등의 상담프로그램이 방임의 학대경험을 상쇄내지 약화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부양자에게 가족의 유대강화, 가족의 대처자원 확보 및 여성노인 특성에 대한 정보제공, 부양자를 위한 지지적 프로그램 등 가족단위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양자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고 정서적으로 지지를 하여 학대를 방지하고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아홉째, 가족결속력은 학대경험의 위험요인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상담서비스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학대경험을 방지 및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상담, 가족치료서비스, 자조집단프로그램 등 상담서비스의 개입을 통해 가족결속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설문 조사 시 여성노인의 정직한 응답을 유도할 수 있는 정교한 상담기법의 개발 및 터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열 번째, 사회적 고립이 학대경험의 위험요인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상담서비스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학대경험을 예방 및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여성노인에 대해 개인적 망 기법 및 자원봉사자 연계개입기법 등 사회적 향상을 높힐 교육프로그램과 사회적 지지 망 제공 등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와 관련한 설문문항을 조정 한 후속연구의 출현과 결과가 기대된다.

열한 번째, 사회적 차별과 학대경험의 관계에서 상담서비스가 사회적 차별에 영향을 미쳐 학대경험을 조절하는 변수로 나타나, 학대경험은 동일한 사회적 차별 수준에서 여성노인의 개인 상담을 통한 자아 존중감 증진, 취업알선, 직업훈련, 자원봉사자 연계 등 상담서비스에 의해 사회적 차별이 낮아져 학대정도가 완화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대유형

중에서 특히 경제적 학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이유는 개인상담, 사회봉사 및 여가활동 등 상담프로그램을 통하여 여성노인의 자립정신이 강화되고 경로우대제도, 노령연금 및 공동작업 설치 등 소득창출 기회도 부여되어 용돈 및 생활비 등 이전에 비해 재정적 자립이 제고되어 경제적 학대를 덜 받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여성노인에게 자아 존중감 및 자립심 증진, 고용 및 사회활동 참여, 노년기의 긍정적 이미지와 노인학대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대국민교육 및 홍보 등의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적 지위를 제고시키고 사회적 차별을 낮추어서 학대경험을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대피해 여성노인만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연구가 거의 전무한 학대경험의 위험요인과 학대경험 간의 실증분석을 통해 이들 간의 직접적 관련성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가족결속력과 사회적 고립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설문조사 시 여성노인들이 정직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상담기법 개발과 설문문항의 조정 등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실증분석 결과, 여성노인 개인의 의존성, 부양자 및 가족의 부양부담, 사회적 차별이 학대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들 위험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담서비스 방안을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가정적 및 사회적 차원까지 모색해야 할 타당성과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여성노인의 학대경험을 예방하고 완화하는데 있어 특히 노인상담서비스가 조절변수로서 전반적으로 여성노인과 가족의 대처자원 및 정보, 프로그램 확보, 사회관계망의 확충을 가능하게 하고 노모와 부양자녀 등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노년기의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성취시켜줄 수 있는 핵심역량으로 나타나 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학대피해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학대경험 예방 및 완화를 위해 노인상담서비스의 조절효과 분석을 최초로 시도하였는데, 이는 배우자 학대나 아동학대 등 다른 연구에서도 사회복지 상담서비스를 조절

변수로 하는 본 연구의 모형을 적용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단일 측면의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생태학적 관점에서 개인발달을 둘러싼 환경체계의 분류에 따라 여성노인 자신의 개인적 요인 뿐 만 아니라 가족상황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특히 상담서비스 요인까지 모두 고려하여 보다 다각적이고 상호작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상담서비스는 단일측면이나 이합집산적이 아닌 보다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강구되고 실천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여섯째, 본 연구결과를 통해 학대유형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상담서비스 제공도 이에 맞추어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외에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상담서비스 제공 시 단순히 노인학적 관점뿐 만 아니라 성차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여성학적 관점에서도 배려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일곱째, 노인상담서비스가 의존도, 부양부담, 사회적 차별이 학대경험에 미치는 정(+)의 영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학대를 예방 및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복지 적 개입 시 실무적인 방향과 지침을 제공해 주며, 노인학대와 관련 노인상담서비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관계자들의 인식변화를 요구함을 시사하고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 볼 때, 노인상담서비스가 여성 노인 학대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개입하여 노인학대를 예방 및 완화하기 위해서는 상담서비스가 학대위험요인의 특성에 따라 혹은 학대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가족단위로 기획되고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상담서비스가 조절변수로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담기관이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사회의 활용 대처자원 및 정보, 프로그램을 많이 확보하여 노인학대 피해자, 가해자를 모두 지지할 수 있는 자원과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

및 제도적 장치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정부예산과 전문 인력을 크게 늘려 노인상담서비스의 품질을 보다 개선하고 수혜대상폭도 보다 확대하며, 전달체계도 합리화하여 현재의 상부 하달 식 전달체계가 아닌 지역 여성노인의 다양한 욕구와 특수성에 맞고 지역사회 자원 및 서비스를 통합, 조정 및 연계해 줄 수 있는 수평적이고 지방분권적인 전달체계로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치매나 와상노인, 독거노인을 돌보는 부양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 도우미 바우처 제도를 확대실시하고 아울러 저소득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하고 실비위주의 노인전문병원 및 요양원의 확충이 시급하므로 사회와 국가의 정책적 의지와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넷째, 노인의 의존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노인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피해 여성노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즉, 기존 상담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확대피해 노인과 가족에게 특화된 전문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상담서비스 방안 강구와 개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여성 노인 학대 발생시 방문상담, 관련자 상담, 가족상담을 진행하고, 이들 상담을 통하여 파악된 학대원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연계를 신속히 실시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노인학대에 대한 접근방법은 사후적인 치료보다 사전적인 예방접근이 중요하고, 예방 전략은 사전교육과 체계적인 홍보체계 구축이다. 2004년 1월 노인복지법 개정²⁷⁾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노인학대 예방센터²⁷⁾ 및 1398국번 없는 핫라인²⁸⁾을 구축한 노인학대 신고전화를 활성화 하여 이들 시스템을 중심으로 여성노인은 물론이고 일반시민에게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노인학대의 후유증 및 피해의 심각성과 노인학대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적극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며, 나아가 언어·심리적 학대 및 방임 등에 대한 관용적인 사회적인 인식변화를 도모할 필요성

27) 2004년 1월 노인복지법 개정²⁷⁾에 따라 설치된 노인학대의 예방, 발견, 보호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다.

28) 2004년 1월 노인복지법 개정²⁸⁾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노인학대를 신고할 수 있도록 긴급한 전화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국번 없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1398)로 운영된다.

이 있다.

여섯째, 양성 평등적 측면에서 앞으로 여성노인을 위하여 퇴직 후 연금 제도 개선, 소득보장, 의료혜택,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보장, 여성노인에 대한 가부장적 인식 개선 및 인권보호,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모욕적인 TV광고 금지 등의 사회복지 상담서비스 방안 마련과 개입이 요구된다.

일곱째, 노인상담서비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여성노인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고, 가족관계 회복 및 학대피해 노인의 재활을 도울 수 있는 인내와 상담기법을 터득하고 노인과 가족의 대처자원과 정보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로서의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하고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민간자격증으로서 유명무실한 노인 복지사 자격증을 이론 및 실무 면에서 심화 및 강화 등 국가차원에서 활성화하여 앞으로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노인상담 및 복지에 특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여덟째, 경로당은 노인들에게 보다 창조적이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최소단위의 노인시설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의 시설 및 상담프로그램이 매우 취약하므로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과 ‘노인의 자기개발 프로그램’, ‘전문적인 노인문제 상담서비스 창구 설치’ 등의 상담서비스 방안을 강구 및 개입하여 경로당 이용노인의 성공적인 노후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참고 문헌

<국내문헌>

고보선(2005), 노인학대 위험요인이 학대 심각성 인지 및 학대경험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지」, (29).

국가인권위원회(2002), 「지역사회노인학대 실태조사」, 한국노인의 전화.

국민일보(2008.10.2), 「65세이상 노인인구 10% 돌파」

권중돈(1994), 한국 치매노인 가족의 부양부담 사정에 관한 연구, 박사 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_____ (2002), 「노인학대의 이해와 예방」, 전국노인복지 시설직원연수회: 연수 자료

김동배·권중돈(1998), 『인간행동이론과 사회복지실천』, 학지사.

김문영외(2004), 인지·행동적 집단상담과 지지적 집단상담이 노인의 우울과 고독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3), pp367-382

김옥(2003), 노인차별의 실태 및 관련요인에 관한 탐색적 조사 연구, 「한국노년학」, 23(2), 21-35.

김정옥(1987), 도시부부의 폭력행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구.

김진희(2007), 한국노인복지 전달체계의 운용기준과 효과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

김창진(2008), 노인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서울.

김태식(2007), 노인상담 서비스전달체계 인식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서울.

김태현(1985), 노인상담의 기초적 연구, 「한국노년학」 5:14-26.

김태현외(2000), 가족상담서비스의 현황과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1), pp.161-186.

김태현·한은주(1997), 노인학대 측정과 개입을 위한 문헌적 고찰, 「한국노년학」, 17(1), 한국노년학회.

김한곤(1998), 노인학대의 인지도와 노인학대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8(1).

나용선(2005), 노인학대 개입 프로그램을 위한 노인학대 가해 및 피해상황관련요인 분석, 박사학위 논문, 서울여자대학교, 서울.

남기민(1999), 노인상담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8, pp.141-157

명선영(2001), 여성노인문제에 관한 여성주의적 일 고찰, 한국복지행정학회: 「복지행정논총」, 11(2)

박봉길(2001), 노인학대인식도 분석을 통한 사회사업원조전략,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부산.

박제간(2003), 『고령화 사회와 노인복지의 과제』, 서울: 아시아미디어리서치

박지원(1985), 사회적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보건복지가족부외(2007), 「전국노인학대상담사업 현황보고서」

서윤(2000),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지와 목격실태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7. 한국노인복지학회.

신민철(2008), 『사회연구방법의 기초』, 서울: 창민사, pp.79-80

손에스더(2001), 여성노인학대 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송길례(2007), 금융서비스에서 CRM시스템통합이 CRM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시장지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서울.

송영민(2002), 여성노인의 의존성과 학대경험에 관한 일 고찰,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서울.

유공순(2005), 한국 여성노인의 문제와 그 쟁점, 「사회과학논총」, 26(3)

이성희·한은주(1998), 부양자의 노인학대 경험과 관련요인, 「한국노년학」, 18(3), 123-141.

이연호(2002), 노인학대 위험요인과 피해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_____ (2004), 한국노인학대 개입의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인간관계학보」, 9(1), pp.237-260

_____ (2005), 『노인학대, 위험요인과 피해』, 파주시:한국학술정보(주)

이영숙(1997), 고부관계에서 발생한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
학회」, 35(2).

이은희(2007), 『노인학대연구』, 파주시: 한국학술정보(주)

이영자(1999), 단독가구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사회적 지지의 완충
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성신여자대학교, 서울

이원숙(1992), 사회적 망, 사회적 지지와 임상적 개입의 이론 연구, 박
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이호선(2005), 『노인상담』, 서울: 학지사, p.64

이호선(2008), 『노인상담과 연구』, 서울: 신정, p.37

이혜영(1996), 새로운 복지문제로서의 노인학대에 관한 고찰, 「노인복
지정책연구」, 3, p.306

이장호·김영경(2006), 『노인상담』, 서울: 시그마프레스, p.128

우성근(2004), 호텔고객의 (불)만족과 구매후 행동 간의 패러독스에 관
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서울

윤진(1994), 폭력없는 가족;아내구타와 노부모학대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44, pp.107-122

장은실(2005), 부양자녀의 노부모 학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목포시

전길양·송현애(1997),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학대와 방임에 대한 인식 및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상담교육단체협의회 학술대회 「가정폭력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 32-96.

조선일보(2008.11.5), 「노인이길 거부한다」

조애저·김승권·김유경(1999), 「노부모학대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흥식외(2000), 『여성복지학』, 서울: 학지사, p.371.

최선화·공미혜·한동희(1998), 학대받는 여성노인의 상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4(4).

최선화·박광준(2003),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서울: 양서원, pp.401-423

최일성 외(1995),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사.

최호(2004), 구전커뮤니케이션 특성이 구전정보 수용도 및 구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의료서비스 구매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서울.

최해경(1993), 노인학대에 관한 인식과 원조요청 태도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논문집」, 22, pp.273-286

통계청(2007), 「2007장래인구추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5), 「노인의 범죄 및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한동희(1996),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효성가톨릭대
학교, 대구.

_____ (2000), 「학대받는 여성노인의 상황에 관한 연구」, 노인생활과학
연구소.

_____ (2004), 노인학대 상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방안
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9(2).

_____, 김정옥(1995), 노년기 특성에 관련된 노인학대 연구, 「가정학회
지」, 7.

한은주(2000), 노인학대의 원인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서울.

_____ (2006), 『노인학대에 원인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 과주시: 한국학
술정보(주)

황길현(2003), 노인의 학대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 방안에 관한 연
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서울.

황진수(2005), 『노인복지 정책론』, 서울: 한성대학교출판부, p.109.

황진수 외(2000), 『노년학의 이해』, 서울: 대영문화사

현외성 외(1998), 『노인상담:이론과 실제』, 유풍출판사, 서울

허정무(2001),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종교기관의 노인교육활동 참여,
「한국노년학회」, 21(2), pp.16-52.

홍숙자(2003), 노인의 사회심리적 특성 및 노년기 상담, 「농촌생활과학」,
24(1), 통권93호



<외국문헌>

Abraham, M.(2000). "Isolation as a Form of Marital Violence : The South Asian Immigrant Experience", *Journal of Social Distress and the Homeless*, July, 9(3), 221-236.

Atchley, R.C.(1976). "The Sociology of Retirement", New York:Schenkman

Anetzberger, G.J.(2000). "Caregiving: Primary cause of Elder Abuse?", *Generation*, Summer, 24(2), pp.46-51

Bahr, Stepen(1989). "Family Interaction", New York: Macmillan.

Bond, John B., Jr., et. al.(1999). "Elder Abuse : Feminist and Ageist Perspectives", *Journal of Elder Abuse and Neglect* 10(3/4). pp.121-123.

Baines, E.(1984). "Caregiver stress in the elder adult", *Journal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 pp.257-263.

Baker, A.(1975). "Granny Battering", *Modern Geriatrics*, 5(8), pp.20-24.

Bandura, A.(1973). "Aggression : A social learning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Beck, C.M., and Ferguson, D.(1981). "Aged Abuse",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7(6).

Belsky,J,(1993). "Etiology of child maltreatment : A

developmental-ecological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4(3). 413-434.

Bennett,G., & Kingston,P.(1993). *"Elder Abuse Concept, Theories, and Interventions"*, London : Chapman&Hall.

Blenkner, M.(1969). "The normal dependencies of aging", in Richard Kalishced, *The Dependencies of Old People*, Ann Arbor : University of Michigan Insitute of *Gerontology*.

Block, M.R., & Sinnott, J.D.(Eds.).(1979). *"The Battered elder syndrome : An exploratory study"*, College Park, MD : University of Maryland Center on Aging.

Bouter,Lex M., Comijs Hannie C., Smit Johannes H.,Pot, Anne M., and Johnker Ceees.(1998). "Risk indicators of Elder Mistreatment in the Community", *Journal of Elder Abuse and Neglect*, 9(4).

Bronfenbrenner, urie,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Bronfenbrenner, urie, (1992).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이영 역, 서울:교육과학사

Brandi, B.(2000). "Power and Control : Understanding Domestic Abuse in Later Life", *Generations*, Sum, 24(2), pp.39-45.

Burlingame, V.S.(1995). *"Gerocounseling elders and their families"*, New York : Springer.

Cantor, M.H.(1983). "Strain among caregivers : A study of experience in the United States", *The Gerontologist*, 23, pp.597-604.

Caplan, G.(1983). "Support system and community mental health : Lectures on concept developmet", New York : Behavioral Publication.

Chen,P.N., Bel, S.L., Dolinsky D.L., Doyle, J. & Dunn, M.(1981). "Elderly abuse in domestic settings : A pilot study",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4(1), pp.3-17.

Choi, Haekyung.(1993). "Cultural and Noncultural Factors as Determinants of Caregiver Burden for the Impaired Elderly in South Korea", *The Gerontologist*, 33., 1993.

Choi, Namkee G.,Deborah B. Kulick and James Mayer.(1999). "Financial Exploitation of Elders: Analysis of Risk Factors Base on County Adult Protective Services Data", *Journal of Elder Abuse and Neglect*, 10(3/4).

Cox.H.G.(1996). "*Later life-The realities of aging-*", Fourth Edition, pub. Prentice Hall, Inc.

Dillemer,A., & Finkelhor,D.,(1988). "The Prevalence of Elder Abuse : A Random Sample Survey", *The Gerontologist*, 28(1), pp.51-57.

Douglass, R.L., Hickey, T. & Noel, C.(1980). "A Study of Maltreatment of The Eldery and Other Vulnerable Adults", *The Institute of Gerontology*, University of Michigan.

_____, R.L.(1983). "Domestic Neglect and Abuse of the Elderly : Implication for Research and Service", *Family Relations*, 32, 1983.

_____, R.L.(1989). "Domestic mistreatment of elderly-Towards prevention", prepared for the America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AARP), Pub. Fourth printing.

Eggert, G., Granger, C., Morris, R. & Pendleton, S.(1978). "Caring for the patient with long-term disability", *Geriatrics*, 22, pp.102-114.

Fulmer, T.(1998). "Elder abuse", In Straus, M. B.(eds), *Abuse and victimization* across the life span(pp.188-222),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Gelles, R.J. & Straus, M.A.(1979). "Determinants of violence in the family: Toward a theories about the family", New York: Free Press, pp.549-581.

Germain, C.B(1991).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An Ecological View", Columbia University Press.

Gilliland, N., & Jimenez, S.R.(1996). "Elder abuse in developed and developing societies : the US and Costa Rica", *Journal of Developing Societies*, 12(1), pp.88-103.

Giordano,H. & Giordano,A.(1984). "Elder abuse : A Review of the literature", *Social Work*, 29(3), pp.232-236.

Godkin, M.A., Wolf, R.S., and Pillemer, K.A. (1989). "Case Comparison analysis of Elder abuse and Neglect",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28.

Haviland, S, O'Brien, J. (1989). "Physical abuse and neglect of the Elderly assessment and intervention", *Orthopaedic Nurse*.

Henton, J., (1984) *The Dependent Elderly: Targets for Abuse*

Hickey, T., & Douglass, R.L. (1981). "Neglect and abuse of older family members : Professionals' perspectives and case experiences", *The Gerontologist*, 21(2), pp.171-176.

Hotaling, G. T., Finkelhor, D., Kirkpatrick, J.T., & Straus, M.A. (1988). "Family abuse and its consequences-New directions in research-", SAGE Pub.

Hwalek, M., Sengstock, M. (1986). "Assessing the probability of abuse of the elderly : Toward development of clinical screening instrument",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5, pp.153-173.

_____, M. A., Neale, A.V., Goodrich, C. S., & Quinn, K. (1996). "The association of elder abuse and substance abuse in the Illinois elder abuse system", *The Gerontologist*, 36(5), pp.694-700

Johnson, I. (1995). "Family members' perception of and attitudes toward elder abuse", *Family in society*, 76(4). pp.220-229.

Kemp,A.(1998). "Abuse in the family : An introduction", Brooks/ Cole pub.

Kim, L.(1997). "Mistreatment of Vietnamese Elderly by Their Familie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9(2), pp.51-62.

Kimsey,R.L.,Tarbox,A.R. & Bragg,D.F.(1981)."The Caretakers and the Hidden Agenda I. The Caretakers and the Categories of Abuse",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29.

King,N.R.(1983). "Exploitation and abuse of older family members : An overview of the problem, In J.J. Costa ed., *Abuse of the Elderly : A Guide to Resources and Services*.

_____,N.R.(1986). "Exploitation and Abuse of Older Family Member", *Abuse of the elderly*

Korbin, J., Anetzberger, G., & Eckert, K.J.(1989). "Elder abuse and child abuse : A consideration of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intergenerational family violence," *Journal of Elder Abuse and Neglect*, 1, pp.1-14.

Kosberg, J.I.(1988), "Preventing elder abuse: Identification of high Risk Factors prior to placement decisions", *The Gerontologist*, Geron Soc America, 28(1), 43-50.

Kosberg, J.I.(1998). "Preventing elder abuse : Identification of high risk factors prior to Placement Decisions", *The Gerontologist*, 28(1), 43-50.

Lachs, M.S., & Pillemer, K.(1995). "Abuse and neglect of elderly persons",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32(7), pp.437-443.

_____, M.S., Williams, C., O'Brien, S., Hurst, L., & Horwitz, R.(1997). "Risk factors for reported elder abuse and neglect: A nine-year observational cohort study", *The Gerontologist*, 37(4), pp.469-474.

Lau, E., & Kosberg, J.(1979). "Abuse of the Elderly by Informal Care Providers : Practice and Research Issues," *Aging*, 299, pp.10-15.

Lin, N., Simenon, R.S., Ensel, W.M. & Kuo, W.(1979). "Social support, stressful life events and illness : A model and empirical tes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0. pp.108-119.

McDonald, L.(1996), "Abuse and neglect of elders, James E. Birren(Editor-in-Chief), *Encyclopedia of Gerontology*, Vol.1, Academic Press.

Milner, J.S.(1990). "Elder abuse and neglect", in Kerraro, K.F.(Eds), *Gerontology : Perspectives and issues*(pp.316-332), New York : Springer pub.

NCEA(National Center on Elder Abuse). (1994). 「Elder Abuse Information Series」 (<http://www.elderabusecenter.org>)

Neale, A.V., Hwalek, M.A., Goodrich, C.S., & Quinn, K.M.(1996). "The

Illinois elder abuse system : Program description and administrative findings", *The Gerontologist*, 36(4), pp.501-511.

O'Malley, C, Segars. H, Perez, R, Mitchell, V, &Knuepfel, G.,(1979). "Elder Abuse in Massachusetts : A survey of professionals and paraprofessionals", Unpublished manuscript, Legal Research and Services for the Elderly. Mass : Boston.

O'Malley T.A., Everitt D.E., O'Malley H.C. and Campion E.W.(1983). "Identifying family-mediated abuse and neglect of elderly persons", *Annals of Internal Medicine*, 98, pp.998-1005.

Ory, M.G.(1985). "The burden of care : A familial perspective", *Generation*, 10(1), pp.14-18.

Pagelow, M.D.(1984). "*Family violence*", PRAEGER Pub.

Palmore, E.(1976). "Total chance of institutionalization among the aged", *The Gerontologist*, 16, pp.504-507.

Palmore, E.(2001). "The Ageism Survey: first findings", *The Gerontologist*, 41:572

Paveza,G.J., Cohen,D., Eisdorfer, C., Freels, S., Pharm, T.S., Ashford, J.W., Gorelick, P. Hirschman, R., Luchins, D.,&Levy, P.(1992). "Severe family violence and alzheimer's disease : Prevalence and risk factors", *The Gerontologist*, 32(4), pp.493-497.

Pedrick-Cornell, C.(1987). "Elder abuse : The status of current knowledge", In Gelles, R. J.(eds)", *Family violence(pp.168-182)*, SAGE pub.

Phillips, R.(1983). "Abuse and Neglect of the Frail Elderly at Home : An Exploration of Theoretical Concepts", *Journal Advanced Nursing*, 8, pp.379-392

Pillemer, K. A.(1985). "The dangers of dependency : New findings on domestic violence against the elderly",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D.C., August.

_____, K. A. & Wolf, R. S.(1986). "Elder abuse : Conflict in the Family", New York, Auburn House.

_____, A. & Finkelhor, D.(1988). "The prevalence of elder abuse : a random sample survey", *The Gerontologist*, 28(1), pp.51-57.

_____, K. A. & Sutor, J.J.(1992). "Violence and violent feelings : What causes them among family caregivers?", *Journal of Gerontology*, 47(4), S165-S172.

_____, K. A.&Wolf, R. S.(1994). "What's new in elder abuse programming? : programming? : For bright ideas", *The Gerontologist*, 34(1), pp.126-129

Poulshock, S.W. & Deimling, G.T.,(1984). "Families caring for elders in residence Issues in the measurement of burden", *Journal of Gerontology*, 39, pp.230-239.

Quinn, J., & Tomita,K.(1997). "Elder Abuse and Neglect : Causes, Diagnosis, Intervention Strategies(2nd ed)", New York : Springer Publishing Company, Inc.

Quinn, M.J., & Tomita,S.K.(1986). "Elder abuse and neglect : Causes, diagnosis, and intervention strategies", New York : Springer Pub.

Rathbone-McCuan,E.(1978). "Intergenerational family violence and neglect : The aged as victims of reactivated and reverse neglect", *Paper as presented at the XIth International Congress of Gerontology*, Tokyo.

Reece, D.,Waltz, T. & Hageboeck, H.(1983). "Intergenerational care providers of non-institutionalized frail elderly : Characteristic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5, pp.21-34.

Rosenblatt,D.(1997). "*Geriatric Gems*", The Geriatrics Center, University of Michigan.

Schiamberg, L.B.&Gans,D.(1999). "An ecological Framework for Contextual Risk Factors in Elder Abuse by Adult children", *Journal of Elder Abuse&Neglect*, 11(3), pp.79-103.

Shiferaw, B., Mittelmark, M.B., Wofford, J.L., Anderson, R.T., Walls, P.,&Rohrer, B.(1994). "The investigation and outcome of reported cases of elder abuse : the Forsyth County Aging study", *The Gerontologist*, 34(1), pp.123-125.

Simos, B.G.(1973). "Adult children and their aging parents", *Social Work*, 18, pp.23-25.

Sodei,T.(1999). "How to prevent elder abuse caused by the heavy burden of family caregiving", 서울국제노년학대회 특별후원 심포지엄 「21세기 노인부양과 여성노인의 문제」.

Steinmetz, S.K.(1978). "The Politics of Aging, Battered Parents", *Society*, 15, pp.54-55

Steinmetz, S.K.(1987). "The elderly : Victims and deviants", (Pub.) Ohio University Press.

_____, S.K.(1988). "Duty bound elder abuse and family care", Newbury Park, CA : Sage Pub.

_____, S.K.(1990). "Elder Abuse: Myth or Reality, Family Relationship in later life", Beverly Hills, CA : Sage Pub.

Steur, J & Austin, E.(1980). "Family abuse of the elderly", *Journal of the Geriatrics society*, 28, pp.372-375.

Troll, L.E. & Nowak, C.(1976). "How old are you? The Question of age bias in counseling adult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6, pp.41-43.

Thorman, G.(1995). "Counseling Older Persons", A Professional Handbook, Illinois : Charles C. Thomas Publisher.

Walker, Alexis J., Pratt, Clara C., Oppy, Nancy C. (1992).
"Perceived Reciprocity in Family Caregiving", *Family Relations*, 41(1), pp.82-85

Wolf, R.(1996). "Elder Abuse and Family Violence: Testimony Presented before The U.S.Senate Specail Committee on Aging",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8(1), pp.81-96.



부 록

설 문 지

여성노인학대 위험요인이 학대경험정도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복지 원조 서비스 방안 관한 연구

조사 일시: _____

관리 번호: _____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성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으로 어르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여성노인학대 대상 어르신들이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자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순수하게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무기명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므로 비밀이 보장되오니 한 문장도 빠뜨리지 마시고 사실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는 여성학대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쓰여 질 것입니다.

어르신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 받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정에 행복이 깃들시기를 기원합니다.

2008년 월 일

연구자 : 한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문정애

지도교수 :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황진수

연락처 : 016-785-8509

I. 다음 내용은 어르신에 개인적 요인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

1) 어르신의 연령은?

- ①60~64세 ②65~69세 ③70~74세 ④75~79세 ⑤80세 이상

2) 어르신의 최종학력은?

- ①무학, 한글해독 ②초등 졸 ③중등 졸 ④고등 졸
⑤전문대, 대졸 ⑥대학원 이상

3) 어르신의 결혼 상태는?

- ①미혼 ②기혼 ③별거 ④이혼 ⑤사별 ⑥재혼 ⑦기타

4) 어르신의 종교는?

- ①불교 ②기독교 ③천주교 ④없음 ⑤기타

5) 어르신의 가족현황은?

- ①부부만 생활 ②부부+자녀부부 ③부부+미혼자녀 ④혼자거주
⑤시설거주

6) 어르신의 실질적 경제수준은?

- ①상층 ②중상 ③중층 ④중하 ⑤하층

2. 의존성(도)

NO.	항 목	전 혀 그 렇 지 않 다	별 로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대 체 로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혼자서 식사나 화장실 사용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					
2	혼자서 생활비나 용돈, 치료비를 마련할 수 없다.					
3	부양자녀(부양자) 등에게 마음을 의지하고 위안을 받는다.					
4	최근의 일을 기억하거나 내 의견을 전달·표현하는데 부양자녀 등의 도움을 받는다.					
5	사회(단체)활동에 참여하거나 친구 등을 방문하는데 부양자녀 등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II. 다음 내용은 어르신의 가족상황적 요인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부양부담

NO.	항 목	전 혀 그 렇 지 않 다	별 로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대 체 로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부양자에게 가정 형편상 경제적 부담이 된다고 생각한다.					

2	나는 몸이 불편한 부양자에게 신체적인 부담이 된다고 생각한다.				
3	나와의 동거로 우리(부양자)의 집은 주거공간이 협소하고 복잡하다.				
4	나와 부양자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의 차이로 의견이 충돌된다.				
5	부양자녀는 나 때문에 아이들에게 정신적·신체적·물질적으로 소홀한 경우가 있다.				
6	부양자는 다른 가족원들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 때문에 어디 멀리(휴가나 방문)다녀올 수가 없다.				

2. 가족결속력

NO.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부양자녀 등(부양자)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2	부양자녀 등은 나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해주는 편이다.					
3	나는 부모로서 내 자신의 역할에 만족한다.					

Ⅲ. 다음은 어르신의 사회문화적 요인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적 고립

NO.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어려울 때 도움 및 중재를 받을 수 있는 총 9개의 사회지지망(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손자녀, 친척, 친구, 이웃, 사회단체, 전문가 등)중에서 과반수이상의 사회적 지지망을 갖고 있다.					
2	나는 상기의 사회적 지지망에서 활발하게 교류와 활동을 하는 편이다.					

2. 사회적차별

NO.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노인(나)을 우롱(조롱)하는 농담을 꽤 듣는 편이다.					
2	나으로 인하여 자주 무시를 당하는 편이다.					
3	나으로 인하여 고용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다.					
4	나으로 인하여 돈을 빌리는데 자주 어려움을					

	당하는 편이다.					
5	나으로 인하여 집을 임차하는데 자주 거절 당하는 편이다.					
6	나으로 인하여 범죄의 대상(희생)이 되는 경우가 꽤 있다.					

IV. 다음은 어르신의 학대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NO.	항 목	전 혀 없 다	가 끔 있 다	보 통 이 다	자 주 있 다	항 상 있 다
신 체 적 학 대	1	나를 일정기간 방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가두는 행위					
	2	나를 밀어서 넘어뜨리는 행위					
	3	손바닥으로 나의 뺨을 때리는 행위					
	4	나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쳐서 상처를 입히는 행위					
	5	나의 머리채를 잡거나 움켜잡아 뽑히는 경우					
언 어 · 심 리 (정 서)	1	나를 부양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내 앞에서 노골적으로 말하는 행위					
	2	자주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여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3	가족모임이나 집안일에 대한 결정에서 고의로 나를 소외시키는 행위					
	4	내가 보는 앞에서 자주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면서 화풀이를 하는 행위					
	5	나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적 학 대		싫어하는 행위					
	6	나를 어린애 취급하는 행위					
	7	내가 없어 주었으면 하는 느낌을 갖게 하는 행위					
	8	나에게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9	실금(실변, 요실금과 실변)등으로 인한 실수를 비난 하는 행위					
	10	나의 일상적 사회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NO.	항 목	전 혀 없 다	가 끔 있 다	보 통 이 다	자 주 있 다	항 상 있 다
방 임	1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2	나의 몸이나 옷 또는 주변환경이 더러워도 불결하게 방치하거나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상황인데도 내버려 두는 행위					
	3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 보기, 보청기, 틀니 등 필수적인 보장구를 제대로 마련해 주지 않는 행위					
	4	나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					
경 제 적 학	1	생활하는데 필요한 용돈이나 생활비 등을 주지 않는 행위					
	2	나의 허락없이 마음대로 부동산 소유권					

대		이전 등과 같은 재산권을 행사하는 행위					
	3	현금이나 임대료 등 나의 소득을 가로채는 행위					
	4	나에게서 빌린 목돈을 갚지 않는 행위					
	5	보석 등 나의 값나가는 물건을 훔치는 행위					

V. 다음은 어르신이 이용하는 노인복지회관의 상담서비스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NO.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노인 상담 서비스 (수준)	1	나는 생계마련이나 취업알선, 부업알선 등에 대한 상담(프로그램)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2	나는 건강유지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상담이나 질병치료 및 의료비 지원 상담(프로그램)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3	나는 소외감 등에 관한 심리상담이나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에 관한 상담(프로그램)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4	나는 사회봉사활동 등에 관한 상담이나 각종의 여가 활동에 관한 상담(프로그램)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5	나는 각종 사회복지혜택이나 법률문제에 관한 상담(프로그램)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6		생계마련을 위한 상담이나 취업알선, 취업알선 등에 대한 상담(프로그램)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					
7		건강유지 및 질병예방을 위한 상담이나 질병 치료 및 의료비 지원 상담(프로그램)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었다.					
8		소외감 등에 관한 심리상담이나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에 관한 상담(프로그램)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었다.					
9		각종 사회봉사활동 등에 관한 상담이나 여가 활동에 관한 상담(프로그램)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					
10		각종 사회복지혜택이나 법률문제에 관한 상담(프로그램)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었다.					

끝까지 성실히 답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 for the counselling the Aged on the Abuse of Old Females

Mun, Jeong-ae

Major in Public Administration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e old got to face economic · physical · emotional problems due to the reduced support function of a family according to increased population of the old caused by low childbirth · aging, nuclear family and changes of values and became dependent more on others. Such problems of the old and increased dependency caused discord between members of the old parents-supporting family, bringing about the worst result called 'abuse of the old' among family problems. Especially, as the ratio of old females among old people rapidly increased, most of the old is female and old female are the most weakest class open to the discrimination of age and sex, so that it is not much to say that 'problems of the old is those of old females'.

Accordingly, to prevent and relieve the elder abuse, the problems of old people, especially those of old females should not be entrusted to only a family. To essentially solve this problem, it is considered to be

required that the community and the government positively intervene, grasp the risk factors(causes) related to the elderly abuse, and the intervention focused on the factors be made from the social and welfare viewpoints.

For that, this study became interested in 'the Service for the counselling the Aged' becoming influential in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as one of social & welfare interventions, and was intended to closely examine whether or not the service for the counselling the aged can reduce ill-treatment of female old people when this service is intervened as an moderating variable in the relation between risk factor and the experience of elderly abuse.

Under consciousness of these problems, this study aims to look at the real situation of ill-treatment of female old people occurring in Korea, exactly analyze what risk factors of female old people are, and, on the basis of that, know the moderating effects of old-people consultation service between these factors and maltreatment experiences. As a study method, theoretical consideration and positive analysis were conducted for achieve the goal of this study. In theoretical consideration, the relation between study units was systematized and modeled by attempting consideration of prior studies and an ecological theoretical access as theoretical background, and, on the basis of that, a study model and assumption was formed. In positive analysis, a survey(300 copies) of female old people over 60 years old was carried out, and the formulated hypothesis was verified and discussed targeting on only female old people(142 copies) who experienced ill-treatment among those questioned, making political proposal by reference to implications.

The model of this study was largely composed of two positive analyses and, on the basis of that, 11 hypotheses was formulated.

First, it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elements such as individual factors(populational/sociological character, dependency), family situational factors(support burden, family unity), socio-cultural factors(social isolation, social discrimination) on abuse of old females, that is, each of physical abuse, verbal and psychological abuse, neglect, economic abuse, and total abuse, and second, it is to ascertain changes of the effects of these factors(except for populational/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n each of physical abuse, verbal and psychological abuse, neglect, economic abuse, and total abuse according to the level of providing the service for the counselling the aged as an moderating variable, even though the same level of these factors exist, that is, the degree in which abuse experiences are weakened.

First of all,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ere was some differences in abuse experiences according to populational/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f female old people. So to speak, there appear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remaining age, educational level, marriage status etc. excluding religion, family(an economic level, family(living together) status, an economic level).

In case of age, it was found that the group over 80 years old experience more verbal and psychological abuse, neglect, economic abuse, total abuse compared with the other age group. In case of an educational level, the group of illiteracy and elementary school graduation experiences more verbal and psychological abuse than the one of junior/senior high school graduation. In case of married status, other group(divorce and living separately) was found to experience more maltreatment than the one married and separated by death.

Second, it was found that dependency of female old people has an positive(+) effects on abuse experiences, and among abuse types,

economic abuse and verbal and psychological abuse, neglect, etc.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rd, it was found that the support burden of a supporter has positive(+) effects on maltreatment experiences, and among abuse types, verbal and psychological abuse and economic abus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ourth, it was found that family unity does not have negative(-) effects on abuse experience, which accords with the result of prior study(Go Bo-Seon, 2005; Han Eun-ju, 2006) that the more dissatisfied(satisfied) the relation between family members, the higher(lower) maltreatment experiences.

Fifth, it was found that social isolation does not have positive(+) effects on maltreatment experiences, which does not accord with most of prior studies stating that social isolation influences positively(+) maltreatment experiences but accords with the study results(Gilliland&Jimenez, 1996 and Han Eun-ju, 2006) that social isolation does not necessarily affect maltreatment.

Sixth, it was found that social discrimination has positive(+) effects on maltreatment experiences, and verbal and psychological abuse, noninterference and economic abus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Seventh, it was revealed that the service for the counselling the aged influenced dependency and played a role as a variable of moderating maltreatment experiences in relation dependency and maltreatment experiences, so that it can confirmed that the dependency of maltreatment experiences became low from the same dependency level by consultation service such as dispatch of helpers for a family, pension for the aged, linkage with volunteers, legal-institutional confrontation ability, etc. and thus was relieved. economic abus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mong abuse types.

Eighth, it was found that consultation service influences support

burden and played a role as a variable of moderating abuse experiences in relation between support burden and abuse experiences, so that it can be confirmed that abuse experiences became low from the same support burden level by consultation service such as medicare, tax benefits, the aged helper voucher, a program of coping with a crisis, supportive consultation for supporters and families, etc. and thus the degree of maltreatment was relieved. verbal and psychological abuse and neglec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mong abuse types.

Ninth, family unity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a risk factor of abuse experiences, so the moderating effect of consultation service was not indicated, but to prevent and reduce abuse experiences, it seems to be necessary to reinforce family unity through intervention of consultation service such as individual consultation, family treatment service, self-help group program, etc. In relation to this, it seems necessary to develop and obtain precise consultation technique which can induce a honest answer of female old people when carrying out a survey.

Tenth, moderating effects of consultation service was not indicated, as social isolation was not significant as a risk factor of abuse experiences, but to prevent and relieve maltreatment experiences, it seems necessary to reduce the social isolation of female old people through providing an educational program leading female old people to advanced social activities and social supportive networks such as volunteer linkage intervention technique, etc. The appearance and results of succeeding study which adjusted questioning items in relation to that are expected.

Eleventh, it was found that consultation service influenced social discrimination and appeared as a variable of moderating abuse experiences in relation between social discrimination and abuse experiences, so that it can be confirmed that abuse experiences became

low from the same social discrimination level by consultation service such as an increase of self-respect through individual consultation and employment mediation of female old people, volunteer linkage, etc. and the maltreatment degree can be relieved. Especially, economical abus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proposed as follows.

First, the study implies that because dependency of a female old woman, support burden of the supporter and family, and social discrimination appeared as a risk factor affecting abuse experiences, there is feasibility and necessity that the consultation service method to minimize such a risk factor should be sought from individual as well as family and social standpoints.

Second, the study implies that in preventing and relieving abuse experiences of female old people, consultation service for the aged was found to be an moderating variable enabling expansion of a social relation network as well as security of necessary resources and information of female old people and their families, recovery of the relation of a old mother to her supportive sons and daughters and successful achievements in her old age and such affairs should be focused.

Third, the study implies that to prevent and relieve ill-treatment of the aged through this study, to have an access from a single viewpoint is bound to be restrictive, so that multiple and mutual-active accesses should be made in consideration of not only a individual factor of the relevant female old woman herself but also family situational factor, a socio-cultural factor including a consultation service element according to classification of environmental system involving individual development from ecological viewpoints.

Fourth, this study first attempted moderating effects of consultation service for the aged, with female old people suffering maltreatment as the subjects, implying that the model of this study, in which social welfare consultation service is determined as an moderating factor, can be applied to other studies.

Fifth, in this study, the risk factor having an effect appears differently, so providing consulting service should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at. In addition to that, the study implies that when providing consultation service for old females, consideration should be made from just only gerontology viewpoints but also women's studies' viewpoints.

Sixth, it was found that consultation service for the aged reduced the positive(+) effects of dependency, support burden, and social discrimination on abuse experiences. This implies that the consultation service provides the practical direction and guideline when intervening from the standpoint of social welfare for reducing ill-treatment of the aged and the recognition of the relevant persons on the role and function of old people consultation service related to ill-treatment of the aged needs to be changed.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political proposals can be proposed as follows.

First, with implications of this study, for consultation service for the aged to be able to more effectively intervene problems of female old people maltreatment and to prevent and relieve ill-treatment of the aged, the consultation service should be planned and provided discriminatively in a unit of family according to features of abuse risk factors or abuse types.

Second, for consultation service for the aged to be able to have strong effects as an moderating factor, assistance system and

institutional devices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resources and service, etc. able to support all of old people suffering maltreatment and assaulters can be provided. For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largely increase the governmental budget and expert manpower so that the quality of consultation service for the aged can be more improved and more expand the scope of subjects subject to benefits, and that a delivery system should be restructured into a decentralized one suitable to the desire and specialty of female old people living in the community.

Third, it would be required that consultation service be devised and sought for providing the expert program and service specialized in the old suffering maltreatment and their families, utilizing existing consultation service systems.

Fourth, for security of specialty of consultation service for the aged, it is urgently necessary to understand diverse characteristics of female old people, obtain endurance and consultation technique contributable to recovery and revitalization of the old people suffering maltreatment, and train expert manpower having ability to secure many coping resources and information of the old and families.

Fifth, in order to reduce the supporters taking care of the old suffering dementia or lying in a bed or living alone, it is urgently necessary to expand old person helper voucher system which is now enforcing, and simultaneously expand expert hospital and nursing homes for the aged, easily available to low-income classes, whose treatment expenses are low-priced or which is operating at cost. Accordingly, the political will and efforts of the society and the government is needed.

Sixth, from the gender equality aspect, it is necessary to draw up and put in practice a plan for consultation service for female old people such as improved pension system after retirement, income

guarantee, medical benefits, gender equality assurance in the labor market, improvement of patriarchal recognition, protection of human rights, etc.

Seventh, because the facilities and consultation programs of a hall for the aged are very poor, it is necessary to draw up and put in practice a plan for consultation service such as 'a program for activating a hall for the aged called "Kyeong No Dang"', 'self-development program of the aged, 'installation of an expert old people problems consultation office', etc. so that the aged who use a hall for the aged may enjoy successful and merry old age.

